

리아호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삶

넬슨 회장: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키우십시오

새로운 칠십인 총관리 역원과 본부 청남
회장단이 지지받다

15개의 새로운 성전이 발표되다

연차 대회 말씀





하 나님께서 바라시는 백성이 될 위대한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사랑과 덕을 베푸는 역량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확신이 커집니다.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더 잘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라고 지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두려운 날”을[말라기 4:5]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하나님의 면전에서 갖는 확신”

토요일 오전 모임

- 4 총관리 직원, 지역 칠십인 및 본부 직원
지지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 6 2024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재러드 비 라슨
- 7 어린이와 같이
제프리 알 홀런드 회장
- 9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됨
카밀 앤 존슨 회장
- 13 바로 우리 눈앞에서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 17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조해 줍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 21 구주를 향한 제 사랑이 저의 “이유”입니다
리카르도 피 히메네스 장로
- 24 “내게 가까이 오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30 생명을 소중히 여김
닐 엘 앤더슨 장로
- 34 신성한 권세, 송고한 청년들
스티븐 제이 런던 회장
- 37 “내게로 돌아와 ...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
[라]”
에스 마크 파머 장로
- 40 신앙: 신뢰와 충실의 결합
산디노 로만 장로
- 43 구주를 만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
데일 지 렌런드 장로
- 48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한스 티 보움 장로
- 51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토요일 저녁 모임

- 56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 60 주는 그리스도시요
에이미 에이 라이트 자매
- 64 자비의 계획
제임스 알 래스번드 장로
- 68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나침반
세르히오 알 바르가스 장로
- 7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 75 예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일요일 오전 모임

- 82 만물을 회복하실 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86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스티븐 디 섬웨이 장로
- 90 여러분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짐이
아닌 기쁨입니다
태머라 더블유 루니아 자매
- 94 보상으로 주어지는 축복
제럴드 코세 감독
- 97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회복
게릿 더블유 공 장로
- 101 성약의 제자로서 얻는 기쁨
존 에이 맥쿤 장로
- 104 필멸의 삶을 위한 하늘의 도움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108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111 자애—진정한 제자 됨의 표시
마이클 비 스트롱 장로
- 115 두 번째 유혹에 유의하십시오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 118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김현수 장로
- 121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패트릭 키아론 장로
- 124 하나님의 사랑
벤저민 엠 지 타이 장로
- 127 하나님의 면전에서 갖는 확신
러셀 엠 넬슨 회장
- 131 새로운 부름
- 140 2024년 통계 보고
- 141 무대 뒤에서: 통역 및 대회 참석자 서비스
- 142 연차 대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적용하기
- 144 색인



연차 대회 기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온 음악가들이 합창단의 범세계적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과 함께 노래했다.

제195차 연차 대회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오전 모임

사회: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개회 기도: 케빈 에스 헤밀턴 장로
 폐회 기도: 조지 에프 제볼로즈 장로
 음악: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거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앤드루 언스워드와 리처드 엘리엇.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With Songs of Praise," *Hymns*, no. 71, 윌버그 편곡. "아들 보내셨네", 『어린이 노래책』, 20~21쪽, 호프하인스 편곡;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하나님은 사랑이라", 『찬송가』, 53장, 머피 편곡.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윌버그 편곡.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오후 모임

사회: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개회 기도: 앨런 티 필립스 장로
 폐회 기도: 제이 아네트 테니스 자매
 음악: 유타 북부의 청소년 합창단. 지휘: 제프 앤더슨.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 "Sing Praise to Him," *Hymns*, no. 70, 캠턴 편곡. "Come, Hear the Word the Lord Has Spoken," *Hymns—For Home and Church*, no. 1031, 카센 편곡.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Hymns—For Home and Church*, no. 1015, 앤더슨 편곡.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리옹 편곡.

2025년 10월 5일, 토요일 저녁 모임

사회: 닐 엘 앤더슨 장로
 개회 기도: 에드워드 듀브 장로.
 폐회 기도: 그레고리오 이 카시아스 장로
 음악: 브리검 영 대학교 연합 합창단. 지휘: 앤드류 크레인, 소냐 폴터, 브렌트 웰스. 오르간 반주: 조셉 피플즈와 린다 마켓츠. "부활하신 어린양", 『찬송가—가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 1201장, 윌버그 편곡. "복음이 지닌 평화", 『찬송가』, 7장, 스태헬리 편곡. "Were You There?," *Hymns—For Home and Church*, no. 1206, 스태헬리 편곡.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머피 편곡.

2025년 4월 6일, 일요일 오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라파엘 이 피노 장로
 폐회 기도: 마이클 티 넬슨 형제
 음악: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브라이언 마티아스와 앤드루 언스워드.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56장, 윌버그 편곡. "Welcome Home," *Hymns—For Home and Church*, no. 1027, 윌버그 편곡.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예수님 생각하오니", 『찬송가』, 104장, 윌버그 편곡.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가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 1003장, 윌버그 편곡.

2025년 4월 6일, 일요일 오후 모임

사회: 디이터 에프 후흐토르프 장로
 개회 기도: 데이비드 엘 버크너 장로
 폐회 기도: 트레이시 와이 브라우닝 자매
 음악: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거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리처드 엘리엇과 브라이언 마티아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찬송가』, 63장, 머피 편곡. "Close as a Quiet Prayer," *Hymns—For Home and Church*, no. 1030, 머피 편곡.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This Is My Beloved Son," *Children's Songbook*, no. 76, 카든 편곡. "이스라엘 구속주", 『찬송가』, 27장, 윌버그 편곡.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은 복음 자료실 앱과 conference.ChurchofJesusChrist.org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연차 대회 자료에 관한 정보는 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지

앞표지: *그분께서 살아나셨네*, 사이먼 두이
 뒤표지 사진: 크리스티 파월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 사진: 코디 벨, 브라이언 니콜슨, 레슬리 닐슨, 크리스티 파월, 헌터 윈터튼.

추가 사진: 자네 병엄, 셸리 브리토, 페르난도 칼데론, 오세아니 도나디에, 노 가르시아, 카테리나 그라체바, 크리스틴 그루나우어, 신시아 엘리자베스 에레라, 테리 호앙, 스테판 호이만스, 닐 카빌링, 로드리케 카부야, 애슐리 라슨, 바르바라 레이테, 아멜리아 리옹, 몽크바야르 마그반도르즈, 다니엘 마르티네즈, 멜라니 미자, 에빅 응고마, 오쿠보 사야카, 로버트 오피요, 이본 오리오르단, 미겔 파차스, 발리소아 라코토마나나, 네이션 리드, 헬렌 로즈, 스테판 사예브, 니콜라스 세레이, 아만다 스티드, 캐롤리나 트리야나, 지양 차이, 은테발렘 트왈라. 설명이 없는 사진은 컨퍼런스 센터나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에서 촬영되었다.



토요일 오전 모임

2025년 4월 연차 대회



4쪽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및 본부 역원 지지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6쪽

2024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보고자: 재러드 비 라슨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7쪽

어린이와 같이

저는 아기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모습이 지상에서
번영하는 하나님 왕국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 주는 모습임을 간증드립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9쪽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됨

온전함이 꼭 이 생에서의 육체적, 정서적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을 향한 개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카밀 엔 존슨 회장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13쪽

바로 우리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회원과 가족,
선교부와 선교사, 집회소와 성전의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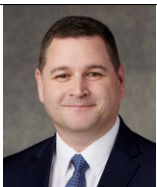


17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조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속죄를 통해 우리를
삶의 폭풍으로부터 구조해 주십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21쪽

구주를 향한 제 사랑이 저의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구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제가 하는
행위의 진정한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리카르도 피 히메네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24쪽

“내게 가까이 오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및 본부 역원 지지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지역 칠십인, 본부 역원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러셀 매리언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달린 해리스 옥스를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제프리 알 홀런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제프리 알 홀런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렌랜드, 게렛 더블유 공, 올리세스 쇼아레스, 그리고 패트릭 키아론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에 호명하는 칠십인 총관리 역원들은 2025년 8월 1일부로 해임되고 명예직에 임명됩니다.¹ 데이비드 에스 벡스터 장로님, 랜들 케이 베네트 장로님, 케빈 에스 해밀턴 장로님, 라파엘 이 피노 장로님, 호르헤 에프 세바요스 장로님.

이 형제님들과 그분들의 아내와 가족분들이 교회에서 보여 주신 수년간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해 오신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님이 2025년 8월 1일부로 그 부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 부름에서 봉사해 주신 테제이라 장로님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곧 임기를 다하실 예순다섯 분의 지역 칠십인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이타적인 봉사를 보여 주신 이 형제님들과 그분들의 가족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부 청남 회장단으로 봉사해 온 회장 스티븐 제이 런던, 제1보좌 브래들리 알 월콕스, 제2보좌 마이클 티 넬슨 형제가 2025년 8월 1일부로 부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 형제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빈 알 던컨 장로를 2025년 8월 1일부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새로운 칠십인 총관리 역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존 디 에이머스, 로널드 엠 바르셀로스, 스티븐 시 발로, 케빈 지 브라운, 비 코리 퀴벨리에, 마이클 치에슬라, 제임스 이 에번슨, 브릭 브이 에어, 오자니 파리아스, 에런 티 홀, 브라이언 제이 홈즈, 페드로 엑스 라레알, 클레멘트 엠 마츠와고타타, 에두아르도 에프 오르테가, 에드워드 비 로, 완량 우.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흔여덟 분의 새로운 지역 칠십인이 4월 3일 목요일에 열린 연차 대회 지도자 모임에서 지지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에 공표되었습니다. 새롭게 부름을 받으신 이 형제님들을 지지할 것을 권유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부로 부름을 수행하게 될 새로운 본부 청남 회장단으로 회장에 티머시 엘 파른스, 제1보좌에 데이비드 제이 윈덜리, 제2보좌에 손 알 딕슨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역원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지지 의사를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철십인 변경 사항

다음 지역 철십인은 연차 대회 지도자 모임에서 지지받았습니다.

이매뉴얼 로단테스 지 에이브러햄, 조나 아케케레, 에드먼드 엘 앙, 오딜롱 아세베두, 블라디미르 엔 아스타쇼프, 더글러스 더블유 애트우드, 이그네이션스 케이 바이두, 앤서니 존 발레도스, 카를로스 에이 밍티스타, 티머시 엘 바니, 마르코 에이 베체가토, 스티븐 엘 보드헤인, 태디어스 엠 브라운, 가브리엘 에이 캄푸스, 호세 알 가르테나스 바네가스, 팔메뉴 시 카스트로, 로버트 엠 차게러스, 데이비드 엘 찬들러, 앤드루 제이 차일드, 캄턴 제이 크리스텐센, 윌리엄 지 콜먼, 손 에프 디 콜린스, 브라이언 시 크롤리, 구스타보 에이 크리스탈레스, 로렌 지 돌턴, 엠 시드니 대니얼스, 로버트 엘 데이비스, 프리먼 디키, 모로니 도밍게스 히메네스, 시아레 마타바하 엘리에사, 로버트 케이 엘리스, 제임스 지 판토네, 제이컵 시 피시, 마티아스 에이 프로스트, 더블유 브렛 그레이엄, 제러미 비 그리젤, 로드니 에이치 힐람, 셰인 티 홀더웨이, 제임스 에이 자비스, 에런 알 쟈, 호세 에이 히메네스 알라바, 네이션 엘 존슨, 에이치 제이슨 조셉, 로널드 엠 저드, 모토시게 카리노, 닷폰 랫피소폰쿤, 로랑 이 레포레, 사무엘 로페스, 리카르도 지 마나한, 아르투로 마르티네스, 찰스 피 마틴스, 켈런드 아이 밀즈, 데이비드 이 무센, 루이스 나바로, 마티아스 엔 니암베, 제프리 엠 니코이아, 프린스 에스 나포어, 카뎀바 에프 니엠보, 아킨바테 에이 오조, 지 마이클 오르티스, 후리 파라타, 후안 시 킬란탄, 데이비드 에이 레예스, 매슈 오 리처드슨, 매슈 엘 리스, 하이메 엔 리베라 이세, 스티븐 엠 사전트, 데이비드 엘 스미스, 토드 비 스미스, 마르코 엔 소사, 러드 엠 스파타로, 스콧 스펜서, 크레이그 엠 토이셔, 미스 불랑 시 치반드, 프란시스코 발림, 헤수스 에이 바스케스 로만, 테리 이 웰치, 데이비드 에이 윈터스.

다음 지역 철십인은 2025년 8월 1일부로 또는 그 전에 해임될 예정입니다.

존 디 에이머스, 제이 디 앤더슨, 파아피토 아우아파아우, 프레더릭 케이 발리, 스티븐 시 발로, 케빈 더블유 버치, 존 더블유 보즈웰, 케빈 지 브라운, 제이 프란시스코 뷔러, 수랏 차이차나, 크리스천 시 칙번두, 매튜 알 클라크, 엘 귀도 크리스토폴, 비 코리 퀴벨리에, 에드마크 알 듀마, 브릭 브이 에어, 티머시 엘 파론스, 카를로스 에이 가발돈, 엠 앤드루 겔트, 블라디슬라프 와이 고노스타예브, 에런 티 홀, 토마스 해니, 리처드 아이 히턴, 브록 시 하이엇, 브라이언 제이 홈즈, 데이비드 에이치 헌즈먼, 노먼 인송, 대니얼 카바스, 페데리코 엠 칸라인, 제프리 제이 커, 데이비드 지 라프랜스, 마르셀로 로우사, 호세 지 마나린, 제러마이아 제이 모건, 마크 에이 모텐스, 에스 에프라임 음사네, 알 페퍼 머리, 에두아르도 에프 오르테가, 네이션 디 페이스, 마이클 엠 패커, 호르헤 더블유 페레스, 키릴로 포킵코, 세르히오 에이 폰시오, 아서 래스콘, 미겔 에이 레이노스, 구스타보 지 레센데, 로버트 지 리바롤라, 에드워드 비 로, 알렉세이 브이 사마이킨, 루치아노 산카리, 헨리 사브스트롬, 제이 매튜 스콧, 제임스 이 슬러터, 로버트 티 스미스, 리카르도 스펜서, 콜린 시 스티퍼, 데이비드 시 스튜어트, 콘스탄틴 톨로미예프, 알런 엠 투말리원, 마틴 제이 터비, 안 카를로스 베가, 폴 비 위퍼, 채드 알 월킨슨, 다우 알 윌슨, 마르쿠스 차르저. ■

주

1. 이들 철십인 총관리 역원은 올해로 70세가 되는 분들이다. 관례대로 이분들은 2025년 8월 1일부로 해임되고 명예직에 임명될 것이다.



일본



보고자: 재러드 비 라슨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2024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형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기록된 계시에 따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된 십일조 지출 평의회는 교회 기금의 지출을 승인합니다. 모든 교회 기관은 승인된 예산과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교회의 다른 모든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가 받은 현금과 사용한 지출 및 교회 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시된 감사에 근거하여, 교회 감사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현금과 사용한 지출 및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교회가 승인한 예산 범위, 회계 관행, 그리고 방침에 따라 기록되고 집행되었음을 밝힙니다. 회원들에게 권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부채를 피하며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저축하라는 원리에 따라 재정을 운영합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재러드 비 라슨

관리 책임자 ■





제프리 알 홀랜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어린이와 같이

저는 아기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모습이 지상에서
변영하는 하나님 왕국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
주는 모습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해에 사도들을 더욱
강하게 단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와 교회가 그분이
떠나신 후에도 지상에 존속하게 하기 위해, 그분을 안 지 불과
24개월 된 열두 명의 매우 평범한 사람들은 더욱 깊이 있고 진실한
배움을 얻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열두 사도 중에 논쟁이 있음을 보시고는
나중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¹ 분명히 부끄러웠을 그들은 “잠잠”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² 그러나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그분은 그들 마음속의
생각과³ 교만의 싹을 감지하시고는 “한 어린 아이를 불러 …”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도 전에 있었던 베냐민 왕의
고별사에 어린이의 겸손함에 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이와
같이 되고, 유순[하고] … 겸손[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대함]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⁵

물론, 우리가 장려하지 않는, 어린이와 같은 성향도 있습니다.
25년 전, 당시 세 살이던 제 손자가 다섯 살 된 자기 누나의 팔을
깨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말아 돌보고 있던 제
사위는 당황하여 딸아이에게 용서에 대해 생각나는 모든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아마도 팔을 물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고 그랬을 거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어설픈 가르침은 약 1분, 아니 1분 30초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아이들 방에서 온 집안이 흔들릴
정도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제 손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팔을 물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2군 팀인 어린이들에게서 어떤 미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분께서
하늘의 불과 수호천사들을 내려오게 하여 아이들을 둘러싸게

하시고 무리에게 “[그들의] 어린 자들을 보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⁶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배경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린이들의 순수함, 천진함, 신천적 겸손함과, 우리가
그러한 품성을 간직함으로써 삶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시대의 절망의 나날들은 “헛되고 헛되니”⁷라고
일컬어졌을까요? 리하이의 시현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크고 넓은 건물을 특징지었던 것이 “사람의 자녀들의 헛된
상상과 교만”⁸이었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또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했던 조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
대해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 그들이 그
입으로는 주께 [기도하]오나, 반면 그들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부풀어…[있]나이다.”⁹

이와 대조적으로, 기도하는 어린이는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순수하며, 겸손합니까? 어린이가 기도할 때면 마치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경험이 더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60여 년 전에 리처드 엘 에번스 장로가 인용한 것처럼 “우리
중 대다수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공언하면서도 … 그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 그분의 말씀은 인용하지만 실천하지는
않습니다.”¹⁰ “우리는 그분을 흠모하지만 경배하지는 않습니다.”¹¹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때때로 신성 모독적인
비속어로 남용하는 대신 그분을 존경한다면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 사랑은 그들이



인생이라는 운동장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도 쉽게 사랑하고,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들의 웃음은 기쁨을 주며, 가장 차갑고 매정한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미덕에는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은 어떨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신뢰하는 마음도 있고 용기와 고결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여 준, 제 사랑하는 어린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1일 전인 2025년 1월 5일에 이스턴 대린 줄리는 아론 신권을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집사로 성임되었습니다.

이스턴은 정말 오래전부터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전달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성스러운 기회와 함께 자신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놀림을 받거나 자신과 가족에게 창피를 안길 것이라는 끔찍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스턴은 울리히 선전성 근이영양증이라는 고통스러운 희귀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이스턴의 어린 시절은 엄청난 도전의 연속이었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스턴은 곧 영구적으로 휠체어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턴은 성임을 받은 그다음 일요일에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스턴은 와드의 감독이신 아버지께 직접 이 성스러운 상징물을 전달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임무를 앞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애원하며,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며 간절한 끝에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이스턴은 그 일을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가 그리스도의 상한 몸을 나타내는 상징물인 빵을 떼어 축복한 후에, 이스턴은 자신의 상한 몸을 이끌고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성찬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바닥에서 단상까지는 꽤 높은 계단 세 개가 있었습니다. 이스턴은 성찬기를 받은 후 최대한 몸을 쭉 뻗어 그것을 난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더 높은 계단에 걸터앉아 두 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첫 번째 계단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왼쪽 다리도 같은 계단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힘겹게 올리며 마침내 자신만의 세 계단짜리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턴은 계단 옆의 구조물 쪽으로 몸을 이동시킨 후 그것에 의지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성찬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걸음 더 내디딘 끝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감독님 앞에 섰습니다. 감독님의 두 눈에 가득 고였던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감독님은 이토록 용감하고 충실한 아들을 꼭 안아 주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러야 했습니다. 안도감에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던 이스턴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 영화롭게 하[였나이다].”¹²

신앙, 충성심, 순수함, 신뢰, 명예로움, 그리고 결국에는 그토록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던 아버지를 향한 사랑. 이러한 덕목들과 그 외 수많은 자질을 보며 우리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스턴은 근이영양증에도 불구하고 첫 성찬 전달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연차 대회에서 가족들과 사진을 찍은 이스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¹³

자매 형제 그리고 친구 여러분,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으뜸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실하며 고귀한 아기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이 지상에서 반영하는 하나님 왕국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 주는 모습임을 간증드립니다.

그와 같은 간증의 영으로, 저는 조셉 스미스가 어린 시절 자신이 보았다고 한 것을 보았으며, 자신이 이야기했다고 한 분들과 대화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겸손하고 순수하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하나님께서 성임하시고 은사를 부여하신 선지자이며 선견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온 생애 동안 읽어 온 결과, 물론경이 제가 읽은 책 중 가장 가치 있는 책이며, 거할 곳이 많은 왕국에 있는 제 소박한 거처의 종석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신권과 기도, 즉 그리스도의 신권과 여러분의 기도가 제 삶을 회복시켜 주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 가운데 가장 충실하고 겸손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자 위대한 자존자이신 분,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충성된 증인이신¹³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가복음 9:33.
2. 마가복음 9:34.
3. 누가복음 9:47 참조.
4. 마태복음 18:2~4.
5. 모사이야서 3:19.
6. 제3니파이 17:23; 또한 11~24절 참조.
7. 전도서 1:2
8. 니파이전서 12:18.
9. 엘마서 31:27.
10. 제임스 더블유 클라크, 리처드 엘 에번스가 대회 보고에서 인용, Conference Report, Apr. 1965, 136. 에번스 장로는 이 인용문이 제임스 더블유 클라크 박사의 라디오 설교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을 윌리엄 에이치 덴포스가 다시 인용했다고 말했다.
11. 제임스 더블유 클라크, 리처드 엘 에번스가 대회 보고에서 인용, Conference Report, Apr. 1965, 136.
12. 요한복음 17:4. 2025년 1월, 브라이언 졸리와 카리사 졸리가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에게 들려준 자신들의 이야기.
13. 마태복음 18:4.
14. 요한계시록 1:5 참조.



영국



카일 앤 존슨 회장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됨

온전함이 꼭 이 생애에서의 육체적, 정서적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을 향한 개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가 구주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였고 그들은 가는 길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주께 돌아와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구주께서는 감사를 표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주께 돌아온 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온전해졌습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에는 “thy faith hath made thee whole[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로 나옴—옮긴이)

아홉 명의 나병환자는 육체적인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도** 온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숙고하며, 그 반대로, 육체적으로 병 고침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병 고침과 온전함이 같은 것이 아니라면, 아직 육체적, 정서적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분을 통해 영적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치유자께서는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² 하지만 우리는 그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선택의지를 행사해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과 성약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의 면전에서 돌아가 모든 치유를 받기까지 이 지상 생활의 어려움을 온유함으로 견디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과의 관계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한다면, 저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소망을 낳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주는 온전함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 소망을 얻습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은 치유를 향한 제 소망을 부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 신앙을 굳건하게 합니다. 이것은 강한 연쇄 작용입니다.³



온두라스

주님께서는 이노스에게 그의 신앙이 그를 “온전하게”⁴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노스는 선지자이자 아버지였던 야곱의 말씀을 상고하고, 영생을 얻는 법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갈망과 겸손의 상태에 있던 이노스는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하고 여쭙었습니다.⁵ 이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네 신앙으로 말미암아] … 네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우리는 육체적, 정서적 치유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동안 영적인 온전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구주께서는 이노스에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속죄 회생의 권능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속죄는 우리의 비탄과 슬픔도 치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성 통증,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암, 불안 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모든 아픔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는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치유는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 두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등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심의 기름으로 채울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⁷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혼인 잔치에 상징하는 그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열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정확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열 사람 모두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밤중에 예상치 못한 시각에 왔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것이 아니라 미련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⁸ 미련한 그들은 그들의 등불을 밝힐 개심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구하는 그들에게

신랑은 그들이 그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⁹

그렇다면 그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온전했습니다.

그들의 등은 소중한 개심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덕분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참석해 신랑의 오른편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¹⁰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하라. 항상 기도하라. 너희 등잔을 손질하여 타고 있게 하며 너희에게 기름이 있게 하여 신랑이 올 때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할지니.”¹¹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묘사한 아름다운 조각이 최근 솔트레이크 성전 근처 템플스퀘어 상호부조회 건물 바로 앞에 놓였습니다.¹²

그곳은 열 처녀의 비유를 적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킬 때,¹³ 특히 주님의 집에서 맺을 수 있는 성약을 맺고 지킬 때, 개심의 기름으로 우리의 등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상징하는 여인들은 그들의 개심의 기름을 나누는 대신, 기름으로 가득 차 밝게 빛나는 등불을 높이 들으로써 그들의 빛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어깨를 기대고 팔을 두르고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¹⁴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백성의 빛이 되라. 산 위에 놓인 성읍이 숨기울 수 없느니라.

… [우리가]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에 두느냐? 아니라, 오히려 촛대 위에 두나니, 이에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비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¹⁵

우리는 그분의 빛을 나누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등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심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고 등잔을 손질하여 계속 타오르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십시오.¹⁶ 우리는 빛을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위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개심은 깊어지고,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빛을 밝게 비추다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심으로 온전함을 얻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를 잘 보여 주는 경전의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¹⁷ 표현한 고난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없애 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¹⁸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¹⁹ 이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²⁰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약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힘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즉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필멸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처럼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기뻐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힘의 빛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빌립보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²¹

자매 형제 여러분,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정서적 치유를 기다리면서도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함이 꼭 이 생에서의 육체적, 정서적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을 향한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관심의 빛을 빛내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기를 선택하는]²² 자는 적으니라.”²³

모든 사람은 부활할 때 육체적, 정서적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 관심했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 계시기에 그분의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이 회복되며 고쳐지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제자로서 갈릴리에서 구주를 따르며 섬겼습니다.²⁴

그녀는 십자가 아래 서서 그분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²⁵

그녀는 매장 준비를 마치기 위해 그분의 무덤으로 갔다가 무덤 돌이 옮겨진 것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처음에는 천사가, 그 후에는 구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²⁶

마리아는 울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²⁷

그러자 예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친절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알아보고 “랍오니 ... 선생님”하고 경건히 답했습니다.

이사야는 구주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라.]”²⁹

그분의 부활로 마리아의 눈물이 씻기었습니다. 분명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눈물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이에게 증거한 첫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겸손히 마리아의 간증에 제 간증을 더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중국에는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육체적, 정서적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위대한 치유자를 믿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17:11~19 참조. “Made whole(온전하게 되다)”라는 표현은 ‘구하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치유하다’라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번역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으며 **그뿐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구조하고 구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2. 알마서 40:23 참조. “영혼은 육신에게로 회복되겠고, 또 육신은 영혼에게로 회복될 것이라. 또한 각 사지와 관절이 그 몸으로 회복되리니, 참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리라.” 또한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참조. “부활의 은사는 주님의 치유를 완결 짓는 가장 완전한 은사입니다.”
3. 모로나이서 7:40~42 참조.
 4. 이노서 1:8.
 5. 이노서 1:7.
 6. 이노서 1:8.
 7. 마태복음 25:1~13 참조.
 8. 그들이 미련한 이유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거나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5:11.(후기 성도 영어 경전 마태복음 25:12, 주석 a)
 10.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열 처녀의 비유에 관해 이렇게 가르쳤다.

“그 처녀들이 사용한 등용 간증의 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처녀들은 간증의 등을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을 개심의 기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기적이지어서 함께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일까요, 아니면 개종[개심]이라는 기름은 빌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일까요? 계명에 끊임없이 순종함으로써 생기는 영적인 힘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하면서 얻은 지식을 그러한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충실한 후기 성도가 복음을 통해 받는 평안이 역경이나 큰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전이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런 질문 각각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베드나 장로는 더 나아가 “간증이라는 등이 계속 타오르게 하고 개심이라는 기름을 충분히 얻기 위한 우리 개개인의 책임을” 설명했다. “이 소중한 기름은 한 번에 한 방울씩, 즉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나파이후서 28:30) 인내하고 꾸준히 노력할 때 얻게 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부산을 떨쳐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주께로 돌이켰고”,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9쪽)
 11. 교리와 성약 33:17.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제자의 길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시간입니다.”(“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121쪽)
 12. 슬기로운 다섯 처녀 조각은 벤 해먼드의 작품으로 다섯 처녀를 다양한 연령대와 인종의 여인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개심한 제자인 여인들의 다양성을 나타냈다.
 13.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주님과 맺은 모든 성약을 새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새로운 성약을 맺는다. 신권 의식에 합당하게 참여하고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 성찬 찬송 “생명의 떡과 물”에는 이 원리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생명의 떡과 물로
내 영혼 채우리
나를 온전케 하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소서
(『찬송가—가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 1008장)
 14. 마태복음 5:14.
 15. 제3나파이 12:14~16.
 16. 한 찬송가 가사에는 이렇게 나온다.

내 안의 작은 빛 환하게 비추리 ...
어디에서나 환하게 비추리 ...
예수 주신 빛을 환하게 비추리
이 빛을 환하게 비추리
(“내 안의 작은 빛”, 『찬송가—가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 복음 자료집)
 17. 고린도후서 12:7.
 18. 고린도후서 12:8 참조.
 19. 고린도후서 12:9.
 20. 고린도후서 12:9~10.
 21. 빌립보서 4:4; 또한 고린도후서 1:3~4 참조. “찬송하리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요 자비의 아버지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2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시온이여 네 힘을 입을지어다”, 『리아호나』, 2022년 11월호, 94쪽 참조.
 23. 마태복음 22:14; 또한 교리와 성약 121:34~35 참조.
 24. 누가복음 8:2~3 참조.
 25. 요한복음 19:25 참조.
 26. 요한복음 20:15; 또한 13절 참조.
 27. 요한복음 20:13.
 28. 요한복음 20:16.
 29. 이사야 25:8.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바로 우리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회원과 가족, 선교부와 선교사, 집회소와 성전의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기도로 축복받음을 느낍니다.

지난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의 장엄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서두르다”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움직임이 빠르고, 속도가 높아지고, 시급하기까지 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그리스도의 계획에서 서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서두름의 일부입니다.

1834년 4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섯 평 반 남짓한 작은 학교 건물로 모든 신권 소유자를 모았습니다. 이 컨퍼런스 센터에는 그 학교 건물 수 십 채가 들어서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 모인 신권 형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교회는 복미와 남미 대륙을 채울 것이며,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²

그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



온두라스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회원과 가족, 선교부와 선교사, 집회소와 성전, 그리고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및 대학교 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 수가 늘고 영향력이 커지며, 무엇보다 교회가 회원들의 마음과 삶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에 지상에 살고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교회, 그분의 방법, 그분의 성약의 길에 대한 간증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 순간의 장엄함”에³ 경탄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그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자 고대와 현대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으로서 당당히 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를 보라 ... 저기를 보라”라고⁴ 외치는 반대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사업에서 그들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사소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신성하지 못한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해가 격렬해[질지라도] ...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고 고결하고 고고하게 전진하여 모든 대륙으로 나아가고 모든 지역으로 퍼지며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귀에 울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⁵

올해 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시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교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성전을 지음으로써 더 많은 회원에게 주님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교 사업을 통해 기록적인 수의 사람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셋째, 여러 형태로 이뤄지는 교회의 교육은 “이 예수[님을 찾]”는⁶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새로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오늘날 교회에는 설계, 건축, 운영 등 여러 단계에 있는 367곳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각 성전에 쓰인 “주님께 거룩함”이란⁷ 문구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성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마련하신 가장 높은 축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주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우리 자신과 회중 저편의 조상들을 위해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자 서두르는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그 강도나 다양성 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⁸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와 초월적인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감사하게도 아르헨티나 멘도사 성전 헌납식을 감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의 1926년 예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도토리가 서서히 참나무로 자라나듯” 남미에서의 주님의 사업은 한동안 더디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수천 명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며, 남미 국가들은 ‘교회 안에서 힘’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⁹ 저는 그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때 작은 도토리였던 멘도사는 이제 우람한 참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장은 여러 대륙과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여러 선교부에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시는 것을 봅니다. 2024년에는 450개 선교부에서 8만 명의 선교사가 봉사했습니다.¹⁰ 그중 36개는 새로 창설된 선교부입니다.¹¹ 작년에는 선교 사업을 통해 30만 8천여 명의 새로운 회원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¹²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서, 집합의 정신이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¹³

1839년에 선교사로서 영국 제도로 출발했던 사도 브리검 영과 히버 시 김볼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몸이 아팠으며, 병들고 궁핍한 가족들을 남겨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마차에 올라탔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히버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족들을 응원해 주시라.” 둘은 간신히 일어서서 “만세! 이스라엘 만세!”라고¹⁴ 소리쳤습니다.

저는 페루 리마에서 선교사 훈련원의 선교사들과 여러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업에 대한 똑같은 열정을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저는 그 서두름을 보았습니다. 현재 리마에만 7개의 선교부가 있습니다.¹⁵

모임이 끝날 무렵, 선교사들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곳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 제 눈앞에,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¹⁶ 제쳐 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물론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서두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회복 초기에 주님께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라고¹⁷ 명하셨습니다. 그 일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으며, “만세”를 외칠 만한 일입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스테이크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스테이크 회장단 전원이 BYU-패스웨이에 등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에 등록된 학생 수는 80만 명 이상으로, 이는 교회 역사상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¹⁸ 우리 청소년들은 새벽반, 주간반, 야간반부터 온라인 학습과 가정 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세미나리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하면서 서로에게서 힘을 얻는, 강하고 의로운 군대입니다.

지난 가을, 저는 유타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학생들과 그 부모들께 말씀을 전했습니다.¹⁹ 그들의 참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주님께도 똑같이 시간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참된 고등 교육,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²⁰ 대한 공부와 학교 공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께도 똑같이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해야 할 일 목록에 무엇이 있든 남은 시간이 아닌, 해야 할 일에 들어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개인 경전 공부, 가족과 함께하는 『와서 나를 따르라』 공부, 기도, 교회 부름, 성역, 성전, 성전 예배,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깊은 생각 등에도 똑같은 시간을 바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²¹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도 똑같은 시간을 바치십시오.

넬슨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간청드립니다. 그분께 적정한 시간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긍정적인 영적 가속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주목하십시오.”²²

우리는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교회 대학교에서 그렇게 점점 더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들에서는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 교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분야는 BYU-패스웨이 월드와이드[BYU-Pathway Worldwide]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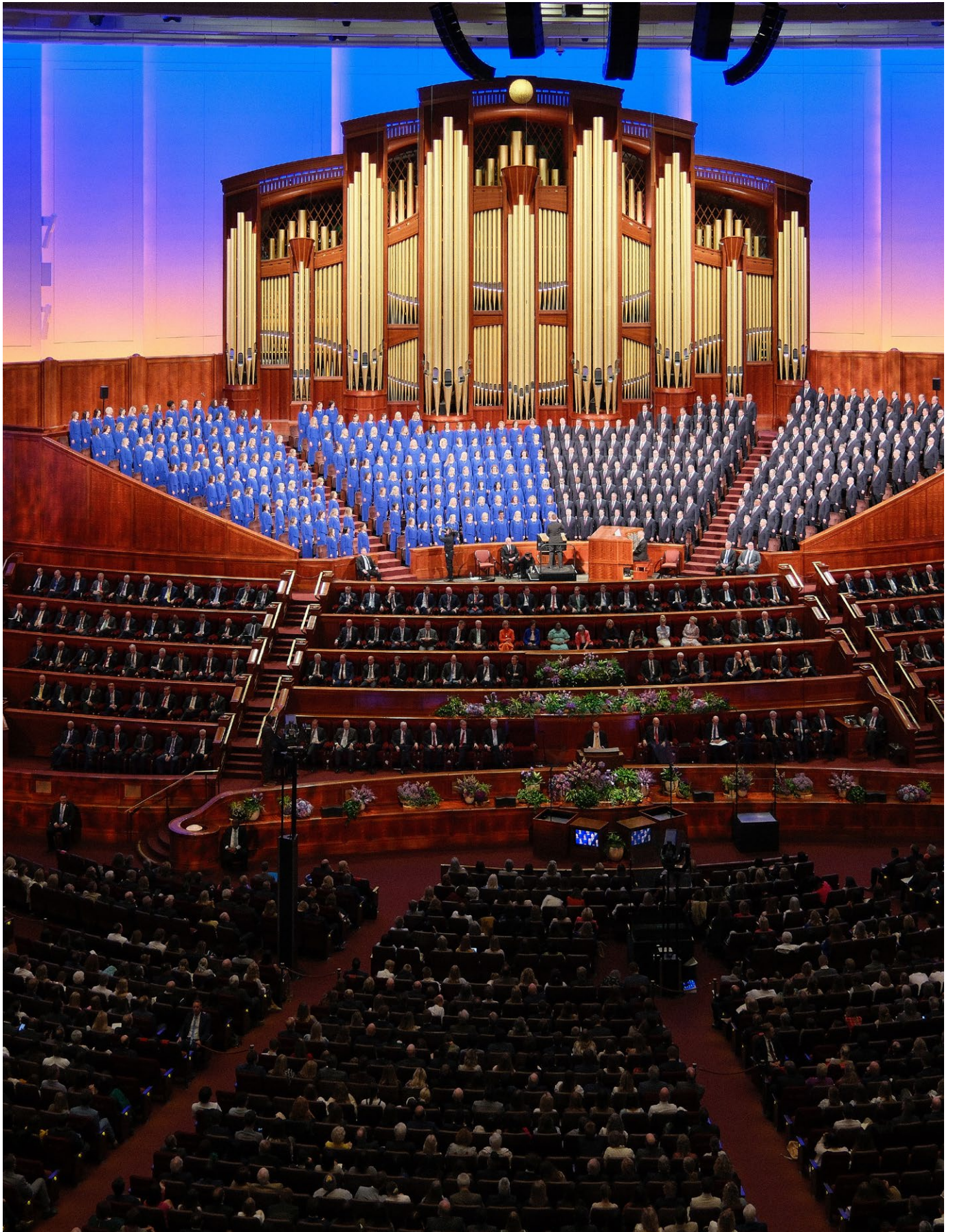
BYU-패스웨이에는 전 세계적으로 7만 5천여 명이 등록돼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록 학생은 대부분 회원이며, 3분의 1 이상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²³ 패스웨이의 목적은 오직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취업은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 봉사할 기회가 더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스테이크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스테이크 회장단 전원이 BYU-패스웨이에 등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잘 준비될수록 대적의 간교한 공격을 더 잘 막아 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²⁴ 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신앙의 어려움과 의심, 답이 없어 보이는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²⁵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주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²⁶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고난에 앞서,²⁷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의 거리를 지나시기에 앞서,²⁸ 골고다의 수난에 앞서,²⁹ 즉 그곳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속죄 희생을 완수하시기에 앞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해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³⁰ 잘못과 비참함과 몹시 힘든 나날을 짊어지셨으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다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³¹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³²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³³ 여러분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³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³⁵ 그러면 “그[분]의 사랑의 팔”로³⁶ 돌아가는 일을 서두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의 장엄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이신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만세!”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121쪽; 또한 교리와 성약 88:73 참조. “보라,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137쪽.
3. 러셀 엠 넬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121쪽; 또한 교리와 성약 88:73 참조. “보라,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
4. 조셉 스미스—역사 1:5.
5.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 C-1, 1285, josephsmithpapers.org.
6. 이더서 12:41.
7. 교회의 모든 성전 외벽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대부분은 “주님의 집”이라는 문구도 함께 쓰여 있다.
8. 러셀 엠 넬슨,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14쪽.
9. 멜빈 제이 벨라드, in Melvin R. Ballard, *Melvin J. Ballard: Crusader for Righteousness* (1966), 84.
10. 메리 리차즈 진행, *Church News* podcast, episode 217, “Elder W. Mark Bassett and David N. Weidman of the Church’s Missionary Department on the Expanding Role of Missionary Work,” 참조, *Church News*, Dec. 3, 2024, thechurchnews.com.
11. “예수 그리스도 교회, 2024년 36개의 새로운 선교부 창설 계획 발표”, 2023년 11월 1일자 뉴스룸 기사 참조,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12. 교회 선교사부에서 제공한 정보. 2022년 개종자 침례 수는 212,172명이었으며, 그 숫자는 2023년에 251,763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308,682명이 침례를 받았다.
13.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대의는 평범한 대의가 아니라 점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의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에 시운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An Ensign to the Nations,” *Ensign*, Nov. 1989, 53)
14. 올슨 에프 휘트니, *Life of Heber C. Kimball, an Apostle: the Father and Founder of the British Mission* (1888), 276.
15. 교회 선교사부에서 제공한 정보.
16.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8.(후기 성도 영어 성경 마태복음 7:33, 각주 a)
17. 교리와 성약 88:118.
18. 태드 월치, “Enrollment Growth at Latter-day Saint Universities Rebuts Narrative About Young Adults Losing Faith” 참조, *Deseret News*, Nov. 23, 2024, deseret.com.
19. 레이철 스티저 김슨, “Give the Lord ‘Equal Time,’ Elder Rasband Encourages During Devotional to 10,000 Youth and Young Adults” 참조 *Church News*, Oct. 14, 2024, thechurchnews.com.
20. 마태복음 16:16.
21. 마태복음 11:29.
22. 러셀 엠 넬슨, “영적인 가속도의 힘”, 『리아호나』, 2022년 5월호, 99쪽.
23. 태드 월치, “Enrollment Growth at Latter-day Saint Universities,” 참조, *Deseret News*, Nov. 23, 2024, deseret.com.
24. 베드로전서 5:8.
25. 러셀 엠 넬슨,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리아호나』, 2023년 5월호, 127~128쪽 참조.
26. 요한복음 14:27.
27. 마태복음 26:36~38 참조.
28. 누가복음 23:26; 요한복음 19:17 참조.
29. 요한복음 19:17; 니파이전서 11:33; 제3니파이 27:14~15 참조.
30. 엘마서 7:14; 교리와 성약 76:41~42 참조.
31. 모세서 1:39 참조.
32. 교리와 성약 6:36.
33. 모로나이서 9:25 참조.
34. 시편 147:3; 야곱서 2:8 참조.
35. 잠언 3:5 참조.
36. 니파이후서 1:15.
37. 러셀 엠 넬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121쪽; 또한 교리와 성약 88:73 참조. “보라,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



쿠엔틴 엘 록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조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속죄를 통해 우리를 삶의 폭풍으로부터 구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이 생에서 마주하는 시련들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조해 줍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지난해 말에 제게 와이오밍 캐스퍼 성전을 헌납하도록 지명하셨습니다.¹ 그것은 심오하고 감동적이며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구주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조하는 일에서 성전이 담당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와이오밍 캐스퍼 성전 구역 내의 여러 스테이크에는 1847년에서 1868년 사이에 후기 성도 개척자들이 걸었던 육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전 헌납을 준비하면서 캐스퍼 인근의 플랫 강을 따라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어지는 육로에 얽힌 역사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 길은 서부로 향하는 수십만 명의 이주자들에게 관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길을 따라 이동했던 6만여 명의 후기 성도 개척자들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다음 눈보라가 오기 전에, 앨빈 베셀라

개척자들 대부분은 마차로 이동했지만, 약 3천 명은 열 개의 손수레 부대를 꾸려 횡단을 했습니다. 이들 중 여덟 부대는 낮은 사망률을 기록하며 놀라운 정도로 성공적인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1856년 윌리와 마틴이 이끌었던 두 손수레 부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²

저는 기상 조건이 악화된 시점부터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위트워터 강과 마틴스 코브, 로키리지, 록 크리크 할로우를 건너며 겪은 어려움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헌납 전에 캐스퍼 성전 내부에 들어가 보았던 적이 없었던 저는 성전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Between Storms**[다음 눈보라가 오기 전에]라는 손수레 그림에 시선을 뺏겼습니다.³ 분명히 그 그림의 의도는 그 당시의 비극을 담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이 정확해. 손수레 개척자들 대부분은 비극을 겪지 않았지.’ 저는 대부분의 삶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폭풍 사이에 있기도 하고, 구름과 햇살 사이에 있기도 합니다.⁴

또 다른 벽에 걸려 있는 **Heaven's Portal**[천국의 입구]라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잔잔하고 맑은 스위트워터 강이 통과하고 있는 ‘데블스 게이트’의 여름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작품이 혹독한 겨울에 개척자들이 겪었던 시련뿐만 아니라 주님의 창조물이 지닌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시선을 돌려, 추천서 확인대 뒤에 걸려 있는 아름다운 구주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⁶ 곧바로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사로 차올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는 엄청난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속죄를 통해 우리를 삶의 폭풍으로부터 구조해 주십니다.

제게 그 로비는 성전 의식실로 가기 위한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의식실에서 우리는 승영 의식을 받고, 기록한 성약을 맺으며, 구주의 속죄가 가져다주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은 구주의 속죄로 가능하게 된 구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개척자들의 경험은 후기 성도들에게 고유한 역사적 전통과 함께, 집단적으로 형성된 강력한 영적 유산을 제공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주리주와 나무에서 강제로 쫓겨난 뒤 오랜 시간에 걸쳐 이주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브리검 영 회장이



천국의 입구, 짐 월콧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손수레 이주 계획을 발표한 뒤에야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손수레는 마차와 황소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했습니다.⁷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밀렌 앳우드스는 손수레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른 그루터기에 불이 났듯이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많은 이들이] 산악 지대에 있는 그들의 형제 자매들과 다시 만나 함께 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했다.”⁸

대부분의 손수레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와 마틴이 이끌었던 두 손수레 부대는 굶주림과 혹한에 많은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⁹

이들 대부분은 1856년 5월에 영국 리버풀에서 두 척의 배를 타고 왔습니다.¹⁰ 그들은 6월과 7월에 아이오와시티에 있는 손수레 여행 준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¹¹ 두 부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절상 너무 늦은 시기에 솔트레이크밸리로 출발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1856년 10월 4일에 처음으로 이 부대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날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손수레와 함께 평원에 있습니다. 그들을 이곳에 데려와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구조대를 보내야 합니다.”¹²

그는 감독들에게 노새 육십 마리와 마차 12대 이상, 밀가루 12톤(10,886킬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서 평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¹³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에 속한 개척자들의 수는 합쳐서 약 1,100명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성도들 중 200명가량이 이주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¹⁴ 시기적절한 구조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구조대가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난 지 약 2주 후에 겨울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원들이 남긴 기록에는 겨울 폭풍이 시작된 후 그들에게 닥친 혹독한 시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벅찬 기쁨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메리 허런은 구조대의 도착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아이들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감정을 추스르자마자, 모두 눈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¹⁵

이를 후, 윌리 부대는 살을 에는 눈보라 속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인 로키리지를 넘어 이동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손수레는 다음 날 아침 5시가 되도록 캠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열세 명이 사망했고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¹⁶

11월 7일, 윌리 부대는 솔트레이크밸리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날 아침에도 세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¹⁷ 이를 후, 그들은 마침내 솔트레이크에 도착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성도들은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같은 날 마틴 부대는 여전히 대략 523킬로미터쯤 떨어진 지점에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들은 스위트워터 강을 건너 지금의 마틴스 코브에 당도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악천후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 개척자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여정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¹⁸ 당시 불과 17세였던 저의 증조부 데이비드 패튼 김볼과 친구들인 “조지 더블유 그랜트, 앨런 헌팅턴, 스티븐 테일러, 아이라 네베커”와 같은 구조대원들은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몇 시간씩 서서” 부대가 스위트워터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용맹스럽게 도왔습니다.¹⁹

이 사건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저는 그 구조대원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그들 모두가 선지자를 따르고 있었고, 발이 묶여 있던 성도들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구조대원들은 이주자들만큼이나 영웅적이었습니다.



일본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저는 이주자들 간의 소중한 관계와 그들의 장기적이고 영원한 비전을 높이 사게 되었습니다. 존과 마리아 린포드 부부와 그들의 세 아들은 윌리 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존은 첫 번째 구조대가 당도하기 몇 시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전에 그는 아내에게 이 여정을 걸어온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서 솔트레이크에 닿지는 못하겠지만, 당신과 아이들은 무사히 도착할 거요. 우리 아이들이 시온에서 성장해 자기 가정을 꾸릴 수만 있다면, 나는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후회하지 않을 거요.”²⁰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놀라운 진리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손수레 개척자들의 용맹스런 노고에서 위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모든 사람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을 거쳐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찮고 중요치 않은 것들이 찌꺼기처럼 녹아 없어지며, 우리의 신앙은 밝고 온전하며 강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행하고 충실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고뇌와 슬픔, 때로는 비통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을 더욱 닮아 가기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²¹

구주께서는 영원의 속성을 결정지는 속죄와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해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셨습니다.²² 그분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범법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속하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²³

우리는 속죄 없이 스스로를 죄와 죽음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²⁴ 죄도 시련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삶의 역경은 실수, 잘못된 결정,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 및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가 시련과 질병, 고통을 견뎌 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 평안, 위안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공평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²⁵

이 부활절기에 우리는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에 집중합니다. 속죄는 많은 사람이 암울하다고 느끼는 시기에 희망과 빛을 줍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 그 은혜로운 행위만큼 훌륭하고 경이로우며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²⁶

저는 우리 시대에 특히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권고를 드립니다.

첫째, 사람들을 신체적 어려움과 특히 영적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²⁷

둘째, 감사한 마음으로 구주의 속죄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모두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기쁨과 행복을 발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이며 낙천적으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제 소중한 동반자인 메리가 평생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문제에 직면할 때면 저는 아내의 활기차고 희망적인 접근 방식에 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권고는 구주의 속죄에 대해 충실하게 숙고해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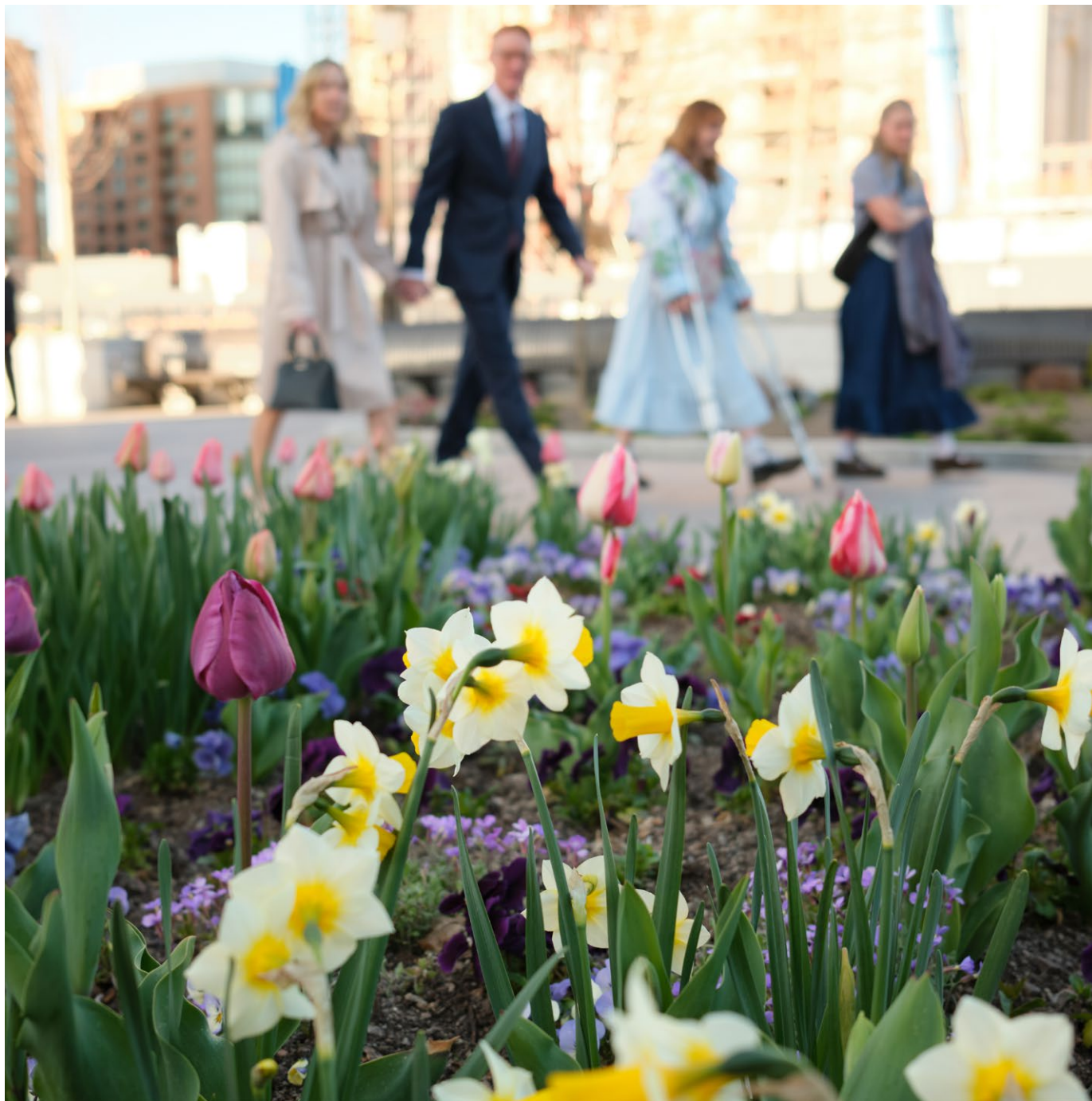
있도록 일관된 시간을 따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교의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찬을 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전은 구주의 속죄와 그 속죄가 극복한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고인이 된 사랑하는 분들과 더 먼 조상들을 영적으로 구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지난 연차 대회에서 이 원리를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축복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하는 일을 도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²⁸

우리는 이전 세대의 희생과 모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는 세상의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가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의 열쇠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이 삶에서 마주하는 시련들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와이오밍 캐스퍼 성전은 2024년 11월 24일에 헌납되었다.
2. 나는 아주 어린 시절에 윌리와 마틴 부대에 대해, 또한 그들이 겪었던 비극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의 증조부이신 데이비드 패튼 김볼은 브리검 영 회장이 이 성도들을 구조하라고 보냈던 구조대의 일원이었다.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2권,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1846~1893년』[2020], 237쪽 참조.
3. 앨빈 베셀카, **Between Storms**[다음 눈보라가 오기 전에], 와이오밍 캐스퍼 성전에 있는 원본 그림("Casper Wyoming Temple Open House Commences" 참조, Newsroom, Aug. 26, 2024,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4. "개나 호리나 함께하소서," ("저녁 닥쳐와", 『찬송가』, 102장)
5. 짐 윌콕스, **Heaven's Portal**천국의 입구], 와이오밍 캐스퍼 성전에 있는 원본 그림("Casper Wyoming Temple Open House Commences" 참조,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6. 조셉 브리키, **Risen Hope**[희망이 솟아오르다], 원본 그림 지클레 인쇄("Casper Wyoming Temple Open House Commences" 참조,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7. 윌리엄 지 하틀리, "The Place of Mormon Handcart Companies in America's Westward Migration Story" 참조, *The Annals of Iowa*, vol. 65, nos. 2, 3 (Spring/Summer 2006), 107-9.
8. 밀렌 앳우드, "Account of His Mission," *Deseret News*, Nov. 26, 1856, 300; 앤드루 디 올슨과 줄린 에스 올핀, *Follow Me to Zion: Stories from the Willie Handcart Pioneers* (2013), xi쪽에서 인용됨.
9. 하지츠와 헛트 마차 부대도 마틴 손수레 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0. 윌리 부대 대부분은 1856년 5월 4일에 손턴호를 타고 영국 리버풀에서 출발했다. 마틴 부대 대부분은 1856년 5월 25일에 허라이즌호를 타고 영국 리버풀에서 출발했다.
11. "Handcart Camp Dedicated in Iowa as Historic Site" 참조, *Church News*, Aug. 9, 1980, 3, 5.
12. 브리검 영, "Remarks," *Deseret News*, Oct. 15, 1856, 252.
13. 브리검 영, "Remarks," 252.
14. 올슨과 올핀, *Follow Me to Zion*, 217쪽 참조.
15. 메리 허턴, 올슨과 올핀이 인용, *Follow Me to Zion*, 131.
16. 1994년 7월 23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록 크리크 할로우 기념비를 헌납하면서 로기리지를 넘는 여정에서 사망한 충실한 성도들에게 경의를 표했다.(줄리 닉스테이더 힝스, "Trail of Handcart Pioneers Sanctified by Sacrifice" 참조, *Church News*, July 30, 1994, 8-9, 11) 헌납식에는 로버트 스코트 로리머 회장이 힝클리 회장과 함께했다. 와이오밍 리버턴 스테이크 회장인 로리머 회장은 비극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역사적, 영적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를 파악하고 감독하는 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17. 제임스 지 윌리 이주 부대 일지 참조, Nov. 7, 1856,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18. 존 자크, "Some Reminiscences," *Salt Lake Daily Herald*, Dec. 15, 1878, 1.
19. 『성도들』, 제2권, 237쪽. 나의 증조부이신 데이비드 패튼의 아들인 크로지어 할아버지는 내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가 선지자를 따르고 있었다면, 우리도 오늘날 선지자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20. 존 린포드, 골든 시 린포드가 인용, *Linford Family Heritage* (1995), 214; 또한 발 패리시, "President's Message," *Pioneer*, vol. 71, no. 3 (Fall 2024), 1 참조.
21. 제임스 이 파우스트,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장엄한 개척자 여행"(1997년 4월 6일 연차 대회 비디오 발표 자료),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63쪽.
22. 모사이야서 15:8.
23. 모사이야서 15:9; 또한 엘마서 34:16 참조.
24. 엘마서 22:12~15 참조.
25.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기 안내서』(2023), 56쪽.
26. 고든 비 힝클리, "성탄절에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리아호나』, 2000년 12월호, 4쪽.
27.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구조의 원리를 가르치고 직접 실천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토마스 에스 몬슨』[2020], 67~76쪽 참조)
28. 러셀 엠 넬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121쪽.



리카르도 피 히메네스 장로
철심인 정원희

구주를 향한 제 사랑이 저의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구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제가 하는 행위의 진정한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권유해 오신 것을 아셨습니까? 그분은 지난 두 번의 연차 대회에서 말씀들을 학습하고 숙고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2024년 4월에 그분은 이렇게 권유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은 이번 연차 대회 말씀들을 반복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¹ 그리고 2024년 10월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사들의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말씀들을 시금석으로 삼으십시오."²

이 권유는 우리가 평생, 그리고 특히 최근 몇 년간 받았던 선지자들의 권고에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일을 하라는 권유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 목록에 추가해야 할 일이 하나 늘었다고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와 더불어, 우리가 받은 모든 권유를 숙고해 볼 때, 오래전에 제가 배우고 결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러한 권유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권유는 제게 무척 중요한데 이는 제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구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제가 하는 행위의 진정한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는 또한 제 형제 자매이신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구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연관 지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약으로 맺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의 신성하고 영원한 진리, 결코 변하지 않을 그분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³

흥미로운 사실은,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하여 그것이 전통이나 관습이 되어 버리면, 그런 전통이나 활동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우리의 노력이 지장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나 활동이 구주와 우리의 성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년간 해 왔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는 일과,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임무와 목표를 완수하는 데 집중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단순히 그것을 하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상을 해낼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 행위의 근본적인 이유가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즉, 교회 활동이나 전통과 같은 의로운 일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함당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일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한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유를 위해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전을 읽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가족이나 워드 활동을 준비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때, 단순히 이런 일들을 완수하는 것이 진짜 목표일까요? 아니면,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진정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일까요? 어떤 활동을 하는 목적이 그저 우리가 수년간 해 왔던 일이라서, 혹은 할 일 목록에 완료 표시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런 활동은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구주와 유대하기

위한 수단일까요?

활동과 전통, 목표 설정과 이를 성취하려는 노력에 대한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와 우리 종교를 실천하는 법을 이해할 기회와, 거기서 오는 축복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전통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는 앨런 에이치 옥스 회장님께서 제일회장단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요청일 것입니다.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기리는 부활절을 함께 준비합시다. ... 다른 이들이 무엇을 믿고 행하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사회 전반, 특히 우리 가족 내에서 부활절 전통을 확립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의 살아 계신 구주의 부활을 기념해야 합니다.”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단순히 전통을 세우자는 권유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런 전통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구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구주를 향한 사랑과 더 많이 연결시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질문이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교리에 대해 더 배우십시오. 치유와 진보로 이끄는 그분의 회복된 복음을 더 배우십시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⁵

마음과 생각으로 이를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가 지식을 더 쌓고 과제를 완수하여 우리의 할 일 목록에서 그분의 권유에 완료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런 권유를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영원한 진리와 원리의 여러 측면을 통해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구주의 제자로서 일생에 걸친 우리의 여정을 그분의 성약의 사랑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시는 걸까요?

제가 전하고 싶은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어쩌면 극단적일 수 있는데, 연차 대회에 모든 말씀을 한 번에 다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읽은 것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할 일 목록에서 이 권유에 완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인 것은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단과 이상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권유는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고 숙고하며, 이를 우리 각자가 발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유를 받아들이고, 그 이면에 있는 이유를 이해한다면, 구주께 더 가까이 갈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여 그분께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의 가르침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부터 시작해 다른 이들과 나눌 것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두 가지 예 모두 의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에서,



타히티



그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인 연차 대회 말씀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해안을 얻는 심오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진리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이해할 방법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구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연관 짓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화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근본 진리들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려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근본 진리에는 이 후기에 회복의 필요성에 관한 필수 진리부터 시작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 즉,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포함됩니다.

구주와의 개인적 관계, 또는 그분에 대한 이해만으로 충분하며, 종교 혹은 회복된 교회는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생각에 대한 영향력은 더디게 고려하거나, 아예 저항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속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부터 시작하여 두 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그분들을 따르는 이유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은 조셉 스미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서 그분의 왕국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성약을 맺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만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성약을 맺을 수 있는 필수적인 신권 의식이 필요합니다. 신권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과 성약 관계를 맺고, 그분들이 주시는 성약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랑을 통해 자신이 맺은 성약에 참되고 충실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힘을 다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하심과 신성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두 팔을 활짝 펴고 이런 권유를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⁶

저는 구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저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신권 열쇠의 은사에 기뻐하십시오”, 『리아호나』, 2024년 5월호, 122쪽.
2. 러셀 엠 넬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121쪽.
3. 요한복음 3:16.
4. 델린 에이치 옥스, Facebook, Feb. 16, 2025, facebook.com/dallin.h.oaks.
5. 러셀 엠 넬슨,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리아호나』, 2023년 5월호, 127쪽.
6. 마태복음 11:28.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내게 가까이 오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이번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여러 건물과 가정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성약을 맺고 주님의 왕국에 들어올 때 그분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죽음을 겪는 필멸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가까이 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¹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멸의 시련을 겪다 보면 그분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 생각을 다 아시며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바라게 됩니다.

구주의 권유에는 그러한 확신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영국



타히티

담겨 있습니다. 항상 그분을 기억함으로써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경전 공부를 통해 그분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까이 느끼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당분간 떨어져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사람과 대화할 방법을 찾고, 그 사람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더 자주, 더 오랫동안 이어질수록 서로를 향한 애정의 끈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더 가까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소중한 소통과 서로에게 도움이 될 기회가 없는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그 끈은 약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듯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림으로써 소통하고, 성신의 애정 어린 인도에 귀 기울이며, 구주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축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계명에 순종한다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구주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께서도 제게 가까이 오시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성찬이 저녁 시간에 집행되었습니다. 75년도 더 된 어느 어둡고 추운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느꼈던 밝은 빛과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제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 성찬을 취하라는 계명을 지켰으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들었던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 모임이 끝날 때 찬송가 “낮도 다간 이 저녁에”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에는 “주여 이 밤 나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라는 잊지 못할 가사가 나옵니다.²

이 가사를 보고 어린 소년이었던 저는 큰 영을 느끼며 압도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신의 위안을 통해 구주의 사랑과 그분이 가까이 계시음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저는 어린 시절 성찬식에서 느꼈던 구주의 사랑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강렬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간단한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경전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후에, 충실한 종들이 구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았고, 그분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더니 왜 근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³

그날 저녁 해 질 무렵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들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⁴

그 제자들은 슬퍼하며, 이스라엘의 구속주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픔과 비통에 잠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는 분명 애정이 담겨 있으셨을 것입니다.







캐나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느꼈던 것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⁵

그날 밤 구주께서는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제자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라지셨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는 그 축복받은 제자들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⁶

그 길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열한 사도에게 전했습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던 그때, 구주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⁷ 그런 뒤, 당신의 사명 곧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죄를 속죄하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하는 일에 대한 예언들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⁸

구주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침례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은 성약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 성약은 곧 지상 생활 동안 구주의 증인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심은

수 세기 전에 물몬경의 위대한 선지자 엘마가 물몬의 물에서 명백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하여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 영생을 얻고자 한즉”⁹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중에 함께해 주시며 짐을 가볍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를 알아보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¹⁰ 여러분은 구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생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희, 나의 친구 시드니와 조셉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족은 평안하도다. 그들은 내 손 안에 있고 나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이는 내 안에 모든 권능이 있음이니라.”¹¹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 줄 때,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지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두 팔을 활짝 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돕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약의 종은 그분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봉사할 때 영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주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마치 제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 있던 그 집에 두 제자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얼굴을 맞대고 구주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삶에서 구주를 섬기며 그분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¹²

저는 부활하신 구주이자 우리 구속주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8:63.
2. “낮도 다간 이 저녁에”, 『찬송가』, 72장.
3. 누가복음 24:5~7.
4. 누가복음 24:15~18.
5. 누가복음 24:28~29.
6. 누가복음 24:32.
7. 누가복음 24:36.
8. 누가복음 24:46~48.
9. 모사이아서 18:8~9.
10. 모로나아서 10:32.
11. 교리와 성약 100:1.
12. 마태복음 25:21.

토요일 오후 모임

2025년 4월 연차 대회



30쪽

생명을 소중히 여김

생명은 우리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법령에 따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보호합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34쪽

신성한 권세, 숭고한 청남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신권의 권능과 의식, 의무를 통해 우리 모두를 축복함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스티븐 제이 런드 회장
본부 청남 회장



37쪽

“내게로 돌아와 …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라]”

다시 돌아오는 자들로 인해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시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까.

에스 마크 파머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40쪽

신앙: 신뢰와 충실의 결합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싹트고,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고 충실할 때 꽃 필니다.

산디노 로만 장로
칠십인 정원회



43쪽

구주를 만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

구주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48쪽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부디 여러분의 앞 세대들이 지닌 신앙과 간증에서 배우고 힘을 얻으십시오.

한스 티 보롬 장로
칠십인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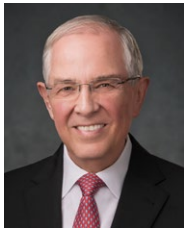


51쪽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에게 갖는 사랑이야말로 이 교회가 진정 구주의 교회임을 세상에 알리는 힘찬 간증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생명을 소중히 여김

생명은 우리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법령에 따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보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¹

저는 최근에 유태주의 한 감독님으로부터 그분의 와드에 있는 한 청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쏟아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련의 아름다운 사건을 통해 그 부모는 구주와 그분의 교회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 그들의 십 대 딸은 또래의 남자 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이 소중한 딸은 청녀 간증 모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느꼈고, 계명을 더욱 온전히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함께 회개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²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몸이 아팠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테스트 결과 ... 임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 울기 시작했습니다. ... 아빠가 저를 품에 안아 주시면서, 모든 일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제 남자 친구는 ...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봄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우리 와드의 가족들에게서 정말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었어요. [제] 감독님과 청녀 회장님은 사랑과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저는 ... 저와 제 가족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 모든 사람에게는 저처럼 가족 같은 와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린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³

이 청녀와 그녀의 가족, 그녀의 와드 가족은 지난 2월에 이 청녀가 낳은 남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를 구별 짓는 특징은 조직화되고 일치된 노력을 통해 ... [사랑의 친절로]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⁴

올바른 선택을 도움

미혼 여성이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건강 문제와 정신적 혼란, 당혹스러움, 재정적 걱정, 교육 문제, 불확실한 결혼, 꿈이 산산이 조각나는 슬픔으로 인하여 고통과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사려 깊은 여성이라도 깊은 고통과 후회를 초래할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낙태를 했거나 낙태 행위에 참여하여 깊은 고통과 후회를 경험했던 분들은⁵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치유하실 수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⁶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은혜라는 기적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⁷

인간 탄생의 신성함에는 종종 두 단어가 붙습니다. 바로 생명과 선택입니다. 생명은 우리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법령에 따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보호하며, 한번 잉태된 생명은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도록 선택합니다. 우리는 또한 선택의 은사, 곧 도덕적 선택의지의 은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선택의지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의로운 선택을 격려하여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돕습니다.⁸

누군가 이처럼 취약한 시기에 중대한 선택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말과 손과 마음은 그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구주의 사랑을 느끼도록 축복할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직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도록 영적인 시야를 밝혀 줄 수 있습니다.⁹

필멸의 삶의 교리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에 관해 알려진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 그것은 ...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야 하며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은 잉태되기 오래전부터 시작하여 영원을 두고 이어진다는 우리의 지식에 근거를 둡니다.”¹⁰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통해 전달된, 태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여러 시대를 거쳐 온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¹¹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은혜라는 기적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낙태를 반대하며, 교회 회원들에게 그런 낙태를 받아들이거나, 실행하거나, 장려하거나, 돈을 지불하거나, 주선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 예외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신]다.

-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 또는

-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유능한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혹은
- 유능한 전문 의사가 태아가 심각한 결함이 있어 태어나더라도 생존하지 못하리라 판단하는 경우.”

제일회장단은 이후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낙태는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드문 상황에서] 낙태는 오직 당사자가 기도를 통해 확인을 받은 이후에만 고려되어야 [하며]”¹² 또 당사자가 다른 이들과 상의한 이후라야 합니다.

30년 전에 주님의 선지자들은 전 세계에 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¹³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확증하신 도덕률입니다.

더 열어 두고 대화함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셨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님은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하셨습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은 영적인 일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서리를 배우고 싶어 하며 정확하고 순수한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 진리를 찾고 모색하고 있습니다.”¹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상호부조회와 장로 정원회 모임에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순결의 법, 생명의 신성함, 태아와 그 어머니를 보살핌에 관해 연민과 이해심을 가지고 더 자주 이야기합시다.¹⁵

어느 사랑스러운 자매님께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경험을 저에게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열일곱 살에] 임신을 했으며, 남자 친구는 저를 거의 돕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외로웠지만, [낙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감독님이 계셨고, 그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인도를 구했습니다. ... 저는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저는 경전을 공부했고 ... 기도했으며 구주와 회개 과정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 저는 [제 기도]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제 딸을 입양 보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고 회개를 통해 구주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¹⁶

사랑스러운 한 부부가 그 소중한 여아를 입양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기는 이제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족을 꾸렸습니다.¹⁷

때로는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수반되기도 합니다.¹⁸

최근에 제 아내 캐시와 제가 사랑하는 한 젊은 부부가 임신 중인 소중한 아기에 대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가] 임신 10주



칠레



페루

차에 들었을 때, 우리 기적의 아기가 21번 삼염색체증, 흔히 다운 증후군으로 알려진 유전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절을 고려해 보라는 의료진의 권고에 우리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에는 ...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딸아이가 ... 생후 1년 동안 여러 차례의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내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고, ... 영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리 딸이 하나님 아버지의 뛰어난 자녀이며 우리 가족이 되어 지상에 오고 싶어 하는 엄청난 열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계시와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의 엄마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혼란스러웠으며, 솔직히 말해 비탄에 빠졌습니다. ... 임신 14주 차에 우리는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선천적 심장 결함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임신 10~18주 차에 수많은 의사와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매번 진찰을 받을 때마다 임신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낙태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 구주께서는 제 마음을 치유하셨고, 우리 딸아이에 대한 평안과 기대를 주셨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듭해서 당신께서 저를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보여 주셨으며,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¹⁹

그들은 정확히 일주일 전에 딸아이를 신이 나서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영원히 그들의 자녀이고 그들은 영원히 아이의 부모일 것입니다.

의연한 믿음과 놀라운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신앙의 놀라운 모범

지난 수년 동안, 저는 회원 자격을 잃은 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겸손하게 성약의 길과 신권, 성전 축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한번은 제일회장단을 대신하여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 한 남성과 접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하고 훌륭한 세 자녀를 둔 후에, 아내와 자신이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저버렸습니다. 그 남성의 상대였던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낙태를 원했습니다.

그 남편의 성자 같은 아내는 그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달라고 간청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아이들과 함께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미혼 여성은 신중하게 임신을 중단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던 그 겸손한 자매는 그 사내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고, 남편이 잘못을 바로잡고 그녀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내가 말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²⁰

이 고결한 하나님의 여인은 볼 때마다 남편의 충실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를 어떻게 자기 자식처럼 키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찾았고, 생명의 신성함을, 생명의 거룩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무고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태아에 대한 사랑이



세계적으로 태아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 그분의 일이고 그분의 영광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 그분의 일이고 그분의 영광입니다.²¹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을 알 것입니다.”²²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과 지상에 오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²³ ■

주

1. 요한복음 13:35; 또한 마태복음 22:36~40 참조.
2. 개인 서신, 2025년 2월 6일, 승인을 받아 사용함.
3. 개인 서신, 2025년 2월 6일, 승인을 받아 사용함.
4.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9쪽.
5. 어느 프랑스 여성의 의로운 모범: 닐 엘 앤더슨, 『하늘이 주는 선물 용서』(2019), 전자책 25쪽 참조.
6. 닐 엘 앤더슨, 『하늘이 주는 선물 용서』(2019), 전자책 31쪽 참조, 또한 닐 엘 앤더슨,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5쪽 참조.
7. 낙태에 관한 공식 성명 참조: “낙태,”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https://www.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일반 지침서』에는 “낙태 죄는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38.6.1, 복음 자료실)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었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구주, 즉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인 주님이 고뇌와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분명하고 [갈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는 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고뇌가 경전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교리와 성약 20:37 참조]. 그러한 마음이 바로 참된 회개의 절대적인 선행 요소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 [2014], 83쪽, 또한 다음 성구들을 참고한다. 고린도후서 7:10; 제3니파이 9:20; 제3니파이 18:32.)
8.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이 네 형제들을 보라, 그들은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 내가 그들을 창조하던 날에 그들에게 그들의 지식의 지식을 주었고, 에덴동산에서 내가 사람에게 그의 선택의지를 주었느니라. 그리고 네 형제들에게 내가 말하고 계명도 또한 주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고,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택하라 하였노라!” (모세서 7:32~33)
9. Henry B. Eyring, *To Draw Closer to God* (1997), 143.
10. 맬린 에이치 옥스, “위대한 행복의 계획”,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2쪽.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의미 있는 생명체’로 되고, 언제 그 영이 그 육체를 ‘태동’ 시키는가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스물세 개의 염색체를 지닌 두 개의 생식 세포가 합쳐져서 하나로 될 때부터 생명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생명의 시작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14쪽)

11. 1879년에 존 테일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낙태와 영아 살해를 비롯한 가증스러운 행위에 반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제정과 사법적 결정을 비롯한 모든 부수적 형태를 동원해야 합니다.”(*Journal of Discourses*, 31:755)
12. 낙태에 관한 공식성명 참조: “낙태,”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1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복음 자료실.
14.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교회 교육의 진로, 개정판[1994년; 8월 8일, 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자에게 전한 말씀, 3쪽], 복음 자료실.
15. 복음 주제, “낙태”, 복음 자료실 참조.
16. 개인 서신, 2025년 2월 13일, 승인을 받아 사용함.
17. 셰릴린 스티븐슨과 그녀의 딸 엘리슨, 엘리슨의 친어머니 질 모젠슨의 이야기는 입양의 축복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이다.(*Mary Richards, “Navigating*

- the Journey of Adoption Reunification,” Church News, Nov. 18, 2024, thechurchnews.com. 참조)*
18. 주님의 도움과 더불어 우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는 축복을 받았다. 아만다 베커, “Finding Hope as a Single Expectant Mother,” *Liahona*, July 2022 (digital only) 참조; “The Adoption Decision,” *New Era*, Mar. 2006, 28–33.
19. 개인 서신, 2025년 2월 17일, 승인을 받아 사용함.
20. Neil L. Andersen, *The Divine Gift of Forgiveness*, 246.
21. 모세서 1:39 참조.
22. 요한복음 13:35; 또한 마태복음 22:36~40 참조.
23.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주제 및 질문, “Unwed Pregnancy,” *Gospel Library*; “출산을 앞둔 미혼 부모”,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스티븐 제이 런드 회장
본부 청남 회장

신성한 권세, 숭고한 청남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신권의 권능과 의식, 의무를 통해
우리 모두를 축복함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앤더슨 장로님, 신권 권능과 구주의 속죄 권능에 대해 훌륭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월 어느 일요일 아침, 제가 성찬식에 앉아 있었을 때,
12명이 넘는 청남들이 아론 신권 승진을 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의 성찬식 모임에서 시간대별로 수만
명의 집사와 교사, 제사들이 성임되고 있으며(오늘 아침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에 등장한 어린 친구 이스턴처럼),
이들은 이스라엘의 집합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아우르게
될 신권 성역을 일생 동안 수행하도록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약 10만 명의 청남들이 안수를 받고 의식을
통해 회복의 시대를 거쳐 조셉과 올리버, 침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명한 신권 권세선에 연결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크게 드러내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표현을 절제합니다.

하지만 새로 성임받은 신권 소유자들이 세상에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쁨의 교회”의¹ 방식으로 이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을 기념해 나팔을 불고 팽과리를 치며 화려한
폭죽을 터뜨리고 퍼레이드를 해야 해!”

하나님의 권능이 진정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에 널리 퍼지면서 이 세상의 양식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신권 성임을 받은 이 청남들은 평생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청남들은 그들의 존재, 그들의 기도, 그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신권
권능이 굉장히 중요한 때와 장소에서 봉사하게 되거나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체계적인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역을
배우는 천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옛 선지자 침례
요한은 조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교리와 성약 13:1)

요한은 이 권세를 모세의 형제이자 신권 동반자였던 이의
이름을 따라 “아론 신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에는 이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의식을 가르치고 도와야 했으며, 이러한
의식들은 추후에 메시아로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 됨의
노력을 집중하게 했습니다.(신명기 33:10 참조)

민수기에서는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 의식 기구를 담당하는
임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울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상과 …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이[나라].”(민수기 3:10, 31)

동물을 희생하는 구약전서의 의식은 그 목적을
완수했고, 구주의 삶과 속죄를 통해 대체되었습니다. 그 고대
의식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만찬, 즉 성찬이라고 부르는 의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현대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그들이
고대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것, 즉 우리에게
그분의 속죄를 상기시키기 위해 가르치고 의식을 집행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집사와 교사, 제사들이 성찬 집행을 도울 때, 그들도 직접
떡과 물을 취하고 그들이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찬 집행이라는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하면서 또한 그들이 지닌 신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론 신권은 예비 신권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그 의식들을 통해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책임감과 기쁨을
경험하고, 미래의 신권 봉사를 위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역을 행하라는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희망과 꿈, 심지어 아슬아슬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영감 어린 축복을 선포하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이런 중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집사와 교사들이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0:59) 이러한 기회
외에도 제사들은 “설교하며 …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교리와



케냐



침례

성약 20:50)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감독은 새로운 집사 정원회 회장단에게 이러한 의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회장단은 그들의 정원회와 와드에서 그들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연세가 지긋하신 와드 회원들을 방문하여 필요 사항을 알아본 다음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에는 앨런이라는, 거칠고, 종종 욕설도 하며, 가끔은 적대적인 이웃이 있었습니다. 앨런의 아내 완다는 교회 회원이 되었지만, 앨런은 흔히 말하는,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사들은 봉사하러 갔고, 눈과 쓰레기를 치우며 앨런의 모욕적인 언사를 재치 있게 무시했습니다. 앨런은 집사들을 싫어할 수 없었고, 이윽고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집사들은 앨런을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앨런은 “난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좋아하지 않아요.” 집사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저희랑 같이 저희 정원회 모임에만 오셔도 돼요.”

그리고 감독의 승인을 받아 앨런은 모임에 참석했고, 계속 참석했습니다.

집사들은 교사로 성임되었고, 앨런을 위해 계속 봉사했습니다. 앨런은 그들에게 차를 수리하는 법과 물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사들이 제사가 되었을 때, 앨런은 그들을 “우리 청남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청남들은 열심히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앨런에게 함께 선교사 토론 연습을 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앨런은 절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의 집에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앨런은 아프게 되었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정원회 모임에서 앨런은 그들에게 자신이 금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상냥하게 요청했고 청남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남들은 그의 집으로 따라가서 그가 숨겨 두었던 담배를 전부 압수해 버렸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앨런은 병원과 재활 센터에 가게 되었고, “앨런의 청남들”은 조용히 신권 권능과 꾸밈없는 사랑을 보이면서 앨런에게 봉사하였습니다.(교리와 성약 121:41 참조)

기적이 계속되어 앨런은 침례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침례를 받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사에서 제사가 된 청남들은 앨런의 요청에 따라 앨런의 관을 들었고, 장례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제사 직분에 걸맞게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고,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고 권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성전에서, 앨런의 청남들 중 한 명이 집사 정원회 회장이었던 청남에게 앨런을 위한 대리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라고 한 모든 것을 이 청남들은 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 전체에 걸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집사, 교사, 제사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 중 하나는 성찬 의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영감에 찬 한 감독님과 그분의 훌륭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최근의 어느 토요일 아침에 아들의 침례식에 차를 타고 가던 중, 그들은 사랑하는 두 살배기 딸 테스를 갑작스럽게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연민으로 가득 찬 와드 회원들은 이 여자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성찬식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 아침 감독님의 가족이 교회에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모임이 시작되기 몇 분 전에 그들은 조용히 교회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독님은 연단에 올라와 평소에 앉던 보좌들 사이의 자리를 지나쳐 성찬대에 있는 제사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감독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던 전날 밤, 이해와

평안을 구한 끝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와드에 가장 필요한 것에 관해 강한 영감을 받은 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독이자 아론 신권 회장이며 깊은 슬픔에 빠진 아버지가 성찬 성약의 약속을 선포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그분은 제사들과 함께 무릎 꿇고 그분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감독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소리 내어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²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말씀,

의식의 말씀,

성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이생의 목적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가장 장대한 결과로 이어 주는 지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마다 예배실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 그날 예배실에 있던 회중이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교리와 성약 20:77)

그런 다음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물] 마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물]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이 [물]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교리와 성약 20:79)

이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간증합니다. 그들은 사실,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도록, “그의 영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신권의 권능과 의식, 의무를 통해, 또한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교사의 침례의 열쇠들을” 통해 우리 모두를 축복한다는 사실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교리와 성약 13: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패트릭 키아론, “기쁨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37~38쪽 참조.
2. 키아론 장로는 자신의 반연차 대회 말씀인 “기쁨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주석 10번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가르침을 언급했다. “제사 여러분이 성찬대에 무릎 꿇고 계시로 받은 기도문을 읽을 때에는 모든 회중이 주님과 성약을 맺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53쪽)





에스 마크 파머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내게로 돌아와 ...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라]”

다시 돌아오는 자들로 인해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시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니다.

한때 저희는 웅장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집에 살았습니다.¹ 대문 옆에는 아름다운 버드나무가 서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세찬 폭풍우가 몰아쳐 그 버드나무가 쿵 쓰러져 버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무는 뿌리가 뽑힌 채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전기톱을 들고 땀감으로 쓰러고 나무를 막 자르려는데, 이웃이 황급히 달려 나와서는 저를 말렸습니다. 그는 제가 나무를 포기한 것을 책망하며 나무를 없애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 뿌리 한 쪽을 가리키며, 나무에 버팀목을 대 주고, 가지를 치고, 양분을 공급해 준다면, 뿌리가 다시 자리를 잡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쓰러져 망가진 나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했고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만에 하나 나무가 다시 자라난다고 해도, 다음번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분명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나무가 다시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알았기에,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얼마 후에 저희는 뿌리가 자리를 잡고 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굳건히 뿌리를 내린 그 원기 왕성한 나무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전경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성도들을 만날 때면, 저는 그 버드나무를 떠올리며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한때 복음에 대해 그 나무처럼 굳건하고 활기찬 간증을 가졌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지극히 개인적인 여러 이유로 그들의 간증은 약해졌고 신앙을 잃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흙에 가느다란 뿌리로 매달려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의 길을 새로이 하고 교회라는 본향으로 되돌아오기를 선택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에서 거듭 영감을 얻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땀감처럼 신앙과 믿음을 버리는 대신, 다시 돌아오라는 영의 속삭임과 사랑에 찬 권유에 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참석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한 재활동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부족한 신앙과 약점을 기꺼이 보듬어 주시고, 제게 손을 내밀며 항상 친절히 대해 주시는 형제님들께



콜롬비아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 주변에는 저활동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교회로 돌아가 신앙을 되찾으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마 모두들 신앙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그리워하시는 모든 분들께, 돌아오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다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강화될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했던 한 귀환 선교사가 교회의 선임 지도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 지도자의 특정 문화 전통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겸손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15년 전에 불쾌해했던 그 사실 때문에 엄청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져온 손해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다시 돌아올 길을 찾아서 기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는 모든 분들께, 부디 돌아오셔서 복음의 기쁜 열매를 다시 한번 맛보실 수 있기를 권유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한 자매님은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이야기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를 떠나 괴로워하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드리는 강력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와 복음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가족에게서 멀어진 이유를 수도 없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전 교회를 떠나겠다는 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천 가지 자잘한 선택들을 했었죠. 그래도 저는 제 부모님이 큰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지켜 내셨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몇 날 밤을 지새우시고 몇 번이나 진심 어린 기도를 하셨는지 저는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저의 죄를 비난하기보다는,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도와주려 하셨어요. 또 집이나 가족 모임에서



필리핀

제가 환영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느낌은 제가 자초한 거였죠. 그분들은 계속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분명 저에게서 빛이 점차 희미해지는 게 보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때의 저는 단지 장차 제가 될 사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교회에서 멀어지는 길이 복잡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로였어요. 하지만 돌아오기가 어렵지 않았던 한 가지는 제가 속한 본향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은 거였답니다.”

오늘 저는, 한때 영을 느꼈지만 되돌아올 길이 있을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 날 위한 자리가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간신히 견디고 계시거나,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는 분들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도전 과제를 드리려는 것도,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본향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을 맞이하고 싶은 진심 어린 소망과 사랑을 품고 건네는 권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깃든 다음 권유와 위대한 약속을 들으시면서 성신의 증거를 느끼실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²

매주 수많은 분이 구주의 권유에 응하여 제자의 길과 교회 활동으로 돌아와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치유를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구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떠도는 이야기와는 상반되게, 기록적인 수의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남아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는 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³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 일부가 가버나움에서 그분의 가르침이 난해하다는 이유로 자리를 뜨려 하자,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도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⁴

저마다 시험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다음 대답은 시대를

초월해 울려 퍼집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⁵

구주께로 돌아오라는 그분의 권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버드나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1. 돌아오는 여정은 쉽거나 편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이것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버드나무가 다시 일어났을 때는 모든 가지가 잘려 나간 상태였습니다.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옛 방식을 버리고 자만을 내려놓을 때면, 우리도 연약한 상태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⁶ 나무의 몸통과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맞춘다면, 되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⁷
2. 버드나무가 예전 같은 기운과 아름다움을 되찾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이제 그 나무는 전보다 더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이 자라날 때에도 인내하십시오.⁸ 여기에는 “요 몇 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같이 무심코 내뱉는 말에 상처를 입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3. 끊임 없는 보살핌과 영양분이 없었더라면, 그 버드나무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주 성찬대에서 흠족히 취하고 주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신앙과 간증에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⁹
4. 버드나무의 가지와 잎이 다시 자라나기 위해 햇빛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영의 느낌과 증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간증이 자라날 것입니다.¹⁰ 앰블레크가 자신이 저활동 회원이었던 시기에 관해 전한 다음 말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¹¹
5. 제 이웃은 그 나무가 다시 한번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신성한 잠재력과, 신앙과 간증이 얼마나 자라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¹²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부서진 모든 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¹³

저는 다시 돌아오는 자들로 인해 하늘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¹⁴ 여러분은 필요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입니다.¹⁵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더 큰 평안과 큰 기쁨으로 축복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팔은 접혀 있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¹⁶ 여러분이 돌아오시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¹⁷ 우리는 마음속의 모든 사랑을 담아 본향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 집은 당시에 워싱턴 스포컨 선교부 사택이었으며, 지금까지도 그러하다. 버드나무 사진은 내 아내 재기가 촬영했다.
2. 제3니파이 9:13. 회개하라는 권유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한다. 요한1서 1장 8절(“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과 매일 회개하라는 러셀 엠 넬슨 회장의 권유를 참조한다. “영적인 가속도의 힘”, 『리아호나』, 2022년 5월호, 98쪽.
3. 쿠엔틴 엘 쿡, “삶과 신앙의 어려움을 직면함”(전 세계 청년 성인 영적 모임, 2023년 11월 14일), 복음 자료실 참조. “참고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저활동이 되거나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과거에 비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¹⁷다.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선교사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교회 참여 비율은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는 청년 성인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과 클라크 지 길버트, "Video: Elder Christofferson Challenges Narrative, Says Spirit Working in Youth," *Church News*, 2024년 12월 13일 참조.

4. 요한복음 6:67.
 5. 요한복음 6:68.
 6. 엘마서 5:28 참조.
 7.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뿌리를 가꾸면 가지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102쪽 참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이야말로 우리 간증의 뿌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지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가꾸는 일을 다룰 때, 저는 우리가 가지를 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 뿌리를 가꾸면 가지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8. 엘마서 32:41 참조.
 9. 러셀 엠 넬슨,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리아호나』, 2023년 11월호, 119쪽 참조.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신앙이 자랍니다. 성전에서의 봉사와 예배는 여러분이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러셀 엠 넬슨, "신권 열쇠의 은사에 기뻐하십시오", 『리아호나』, 2024년 5월호, 122쪽 참조.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쇠막대를 굳게 붙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을 이해하는 데 이보다 더 힘이 될 것은 없습니다."

10. 엘마서 32:28 참조.
 11. 엘마서 10:6.
 12. 패트릭 키아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본향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5월호, 87쪽 참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13. 제프리 알 홀런드, "고쳐야 하는 부서진 것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69~71쪽 참조.
 14. 누가복음 15:11~32; 교리와 성약 18:13 참조.
 15. 요한복음 15:9 참조.
 16. 엘마서 5:33 참조.
 17. 러셀 엠 넬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122쪽 참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신적인 제자가 되기에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구속이 주는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러셀 엠 넬슨, "영적인 가속도의 힘", 99쪽 참조. "여러분이 성약의 길에서 너무 멀리, 또는 너무 오래 벗어나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산디노 로만 장로
칠십인 정회원

신앙: 신뢰와 충실의 결합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싹트고,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고 충실할 때 꽃 필니다.

열일곱 살 때 저는 제 친구 호세 루이스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저희는 시간을 내어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끝내고 물에서 나오던 중에 저는 도움을 구하는 제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수영장의 깊은 쪽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 들었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친구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제가 친구 손을 잡아 물 밖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자 절박했던 제 친구는 제 등에 올라타서 팔을 제 목에 감았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저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적을 바라며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권능이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저를 수영장의 얇은 곳으로 밀어 주고, 저희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다음과 같은 심오한 교훈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익사하기 직전의 사람이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애타게 공기를 갈망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권능을 간절히 얻으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¹

사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필수적인 원리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을 믿는 것 또는 그분이 실재한다는 간증을 갖는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신앙의 시작일 순 있지만 신앙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신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²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예컨대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그들이 꾸준히 사랑과 도움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인식하고 그분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³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최근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여러분은 “살면서 하늘의 빛줄기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⁴ 이 권유를



칠레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및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주는 행복에 대해 숙고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전 속 인물과 함께하셨던 “잊지 못할 영적인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보십시오. 그렇지만, 영이 그 기억들을 여러분의 “육의 마음판에”⁵ 새겨 넣을 때까지 이러한 간증은 여러분의 삶에 권능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에 대해 숙고하고 기록하십시오.⁷

그런 다음,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마치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 받은 축복에 대하여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⁸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쭙보십시오.⁹

여러분이 진실하고 겸손하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응답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적 행위들도 유의미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개인 공부, 성전 예배를 그분들을 알아 가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기회로서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충실할 때 신앙이 자라납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싹트고,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고 충실할 때 꽃 필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의 참된 관계를 원한다면, 성약을 맺고 신실함과 충실함으로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러한 마음을 그분께 보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음으로써 소망이 자라고 성약을 준수함으로써 신앙이 커 갑니다.¹⁰

개인적인 사례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브라질

혼자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왜 우시는지 여쭙보자, 어머니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착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제가 어머니의 속을 찌르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했으며, 그분의 삶을 덜 힘들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눈물이 글썽한 채 9살 아이로서는 최대한 엄숙하게 항상 최고의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고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저에게 미쳤던, 그리고 아직도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와 맺은 그 약속은 제 삶을 인도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 행동이 어머니를 기쁘게 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와 이 약속이 함께 결합하여 평생 제 행동의 닻이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을 때 저는 이미 그분을 믿는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성약을 맺었고 성약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그분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제 삶을 인도하셨으며, “그의 사랑으로 [저]를 [온전히] 채우”셨습니다.¹¹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 충실함으로 저를 서서히 채우셨습니다.¹²

“신앙이 행동의 원리”이며,¹³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십니까?¹⁴

여러분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 노력할 때,¹⁵ 여러분은 애굽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처럼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¹⁶ 그리고 반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젊은 선지자 조셉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¹⁷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충실함¹⁸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신뢰의 결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hesed[헤세드]¹⁹)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충실한 사랑(emunah[에무나]²⁰)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यो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²¹ 여러분이 그분께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²²

역경을 마주했을 때의 신앙

하지만 그분의 기적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역경은 불가피하며 때때로 두렵기도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²⁴는 2025년 FSY 대회 주제를 기억하며 그분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십시오.²³

어떻게 하면 그분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에게는 빛을 밝혀 줄 근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충실함과 그분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여러분의 등불을 밝히는 연료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둡고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때, 무턱대고 나아가는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름으로 가득 찬 램프를 켜면 불확실한 길에 희망의 빛 한줄기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²⁵ 여러분이 과거에 한 경험은 여러분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탱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키워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소망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수영장에서 겪은 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절망의 순간에

제가 바랐던 대로 기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보장하지는 않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선택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그분과 그분의 축복에 대한 소망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기적을 구하”되²⁶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십시오.]”²⁷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약속

어린 친구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며 성약의 자녀들입니다.²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참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²⁹ 그분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³⁰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충실함과 사랑, 신뢰는 여러분의 성품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³¹ 그분을 닮아 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 낼 자신감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³²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그분의 용서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³³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희망이 밝아질 것입니다.³⁴ 그분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할³⁵ 그분의 권능을 주실 것이며,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올 능력까지도 주실 것입니다.³⁶

저는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³⁷ 부를 때, 그리고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였”을³⁸ 때 오는 기쁨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42쪽.
2. 신앙(faith)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fides*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신뢰하다”는 의미이다. (Michiel de Va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Latin and the Other Italic Languages* [2008], “fido” 참조) 그리스어 동족어인 *πίστις*는



- “신뢰하다”로 번역된다.(Robert Beekes, *Etymological Dictionary of Greek* [2010], 1:1161 – 62 참조)
3.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이다.”(경전 안에서, “신앙”, 복음 자료실)
 4. “그리스도를 바라보라”(전 세계 청소년 토론 모임, 2025년 1월 5일), 복음 자료실; 또한 알렉산더 두슈루 장로, “빛기둥과 빛줄기”, 『리아호나』, 2024년 5월호, 14~17쪽 참조.
 5. 닐 엘 앤더슨, “잊지 못할 영적인 기억”,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18~22쪽 참조.
 6. 고린도후서 3:2~2 참조; 또한 모로나이서 10:3; 러셀 엠 넬슨, “그의 말을 들으라”,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88~92쪽 참조.
 7.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신성한 계획에 따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55~57쪽 참조.
 8. 모사이야서 2:20~21; 교리와 성약 59:21 참조.
 9. “Appendix 1: Sixth Theological Lecture on Faith, circa January – May 1835, as Published in *Latter Day Saints’ Messenger and Advocate*,” 124~25쪽, josephsmithpapers.org 참조.
 10. 모로나이서 7:41 참조; 또한 스티븐 M. R. 코비와 레베카 R. 메릴, *The Speed of Trust: The One Thing that Changes Everything* (2006), 215쪽 참조.
 11. 니파이후서 4:21.
 12.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니, 그분 안에서 나는 위안을 찾을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 그분의 뜻을 행할 뿐, 나는 내 목숨에 연연하지 않소.”(『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43~44쪽).
 13. Bible Dictionary, “Faith.”
 14. 히브리서 11:6.
 15. 요한복음 8:29 참조.
 16. 창세기 39:9.
 17. 조셉 스미스—역사 1:25.
 18.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언제나, 어떠한 처지에서든 여러분의 진실한 생활을 통해 자신의 충실함과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충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60쪽, 또한 Brent J. Schmidt, *Relational Faith: The Transformation and Restoration of Pistis as Knowledge, Trust, Confidence, and Covenantal Faithfulness* [2022], 9; Teresa Morgan,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Pistis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Empire and Early Churches* [2015], 127 – 28 참조)
 19. 러셀 엠 넬슨, “영원한 성약”, 『리아호나』, 2022년 10월호, 4~11쪽 참조.
 20. “신앙을 뜻하는 히브리어 *אמונה* (에무나)는 ‘지지하다’를 뜻하는 행동 지향적인 단어이다. ... [신앙은] ‘하나님을 지지하는’ 사람을 행동하게 한다. 신앙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에무나[emunah]라는 단어가 지지하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도 볼 수 있다. ... 그것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던 아론과 훌의 지지/에무나[emunah]이지 모세의 지지/에무나[emunah]가 아니다. 누군가가 “내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을 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Jeff A. Benner, “Faith,” Ancient Hebrew Research Center, ancient-hebrew.org)
 21. 요한복음 14:21; 또한 23절 참조.
 22. 요한복음 15:9~10 참조.
 23.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39~42쪽 참조.
 24. 교리와 성약 6:36.
 25. 닐 엘 앤더슨,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65~68쪽 참조.
 26. 러셀 엠 넬슨, “영적인 가속도의 힘”, 『리아호나』, 2022년 5월호, 99쪽.
 27. 러셀 엠 넬슨,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리아호나』, 2020년 11월호, 92~95쪽 참조.
 28. 러셀 엠 넬슨, “성약의 자녀”,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32~34쪽 참조.
 29. “예수님은 저의 친구입니다. 저에게 것처럼 많은 것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친구가 되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고든 비 힝클리, “나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85쪽)
 30. 요한복음 6:67~68; 교리와 성약 6:20 참조.
 31. 러셀 엠 넬슨, “영원을 위한 선택”(전 세계 청년 성인 영적 모임, 2022년 5월 15일), 복음 자료실; 리차드 지 스코트, *21 Principles: Divine Truths to Help You Live by the Spirit* (2013), 90쪽 참조.
 32. 앨마서 48:17 참조.
 33. 모사이야서 4:2; 앨마서 36:18 참조.
 34. 토마스 에스 몬슨,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참조.
 35. 이사야 58:9; 힐라맨서 10:4~5; 이더서 12:30 모로나이서 7:33 참조.
 36. 니파이후서 25:23 참조.
 37. 앨마서 5:26; 또한 앨마서 5:9; 26:13 참조.
 38. 니파이후서 1:15.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주를 만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

구주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10월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재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언제나 기쁨에 넘치는 낙관적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초등학교의 한 소녀가 저에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불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나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해서 무서워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비단 어린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그 소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도, 가장 좋은 조언은 구주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²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성역을 마치실 무렵 언제 다시 오시느냐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당신의 재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를 당신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³ 이러한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가 인생의 목적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⁴

구주께서는 먼저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열 처녀가 혼인 잔치에 갔습니다. 다섯은 지혜롭게 등에 채울 기름을 가져왔고, 다섯은 어리석게도 기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 신랑이 곧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떠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너무 늦어 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⁵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비유의 세 가지 측면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 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 그 날을 견디리라.”⁶

다시 말해, 그들은 살아남아 번성할 것이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신권 의식과 성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신이 항상 자신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능력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습득해야만 합니다.⁷ 꾸준하고, 개인적이며, 사적인 헌신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성신을 초대합니다.⁸

예수님이 강조하신 세 번째 요소는 속임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⁹

구주께서는 위선자들이 택함받은 사람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며 많은 제자가 속을 것을 아셨습니다.¹⁰ 우리는 하늘의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자들을 믿어서도 안 되며, 비유로 말하자면 광야나 골방으로 들어가 거짓 가르침을 받는 모험을 해서도 안 됩니다.

물문경은 미혹하는 자와 제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선을 행하도록 이끍니다.¹¹ 구주의 충실한 제자이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받을 때,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¹²

우리는 또한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속임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성약의 길에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벗어나게 하는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¹³

이 열 처녀 비유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구하며, 속임수를 피할 때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는 자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성신을 인도자로 삼거나, 속임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¹⁴ 이 일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¹⁵ 이 비유에서는 한 사람이 세 명의 종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서로 다른 양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¹⁶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처음 두 종은 받은 것을 두 배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달란트를 두 배로 불린 두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¹⁷

그런 다음 주인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꾸짖었습니다.¹⁸ 이 종은 달란트를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종도 달란트를 두 배로 불렸더라면 다른 종들과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¹⁹

이 비유가 전하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키우기를 바라시지만,²⁰ 자기 능력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8세기의 하시담[유대교의 한 분파—유킴인] 학자인, 아니폴의 주샤(Zusya of Anipol)가 제시한 다음 통찰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샤는 유명한 선생이었는데 죽음이 다가오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필리핀

스승님은 신한 삶을 사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 큰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샤가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샤야, 너는 왜 또 다른 모세가 되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위대한 영혼을 저에게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주샤야, 너는 왜 또 다른 솔로몬이 되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내가 나의 창조주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주샤야, 너는 왜 주샤가 되지 못했느냐? 내가 능력을 주었는데도, 어찌하여 너는 그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어떤 답을 드려야 하겠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이다.”²¹

참으로, 우리가 구주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애정 어린 도움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니고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그분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래야 합니다.²²

마지막으로, 구주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²³ 주님께서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 그분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실 것입니다.²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별 짓는 특징은 주님이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그분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당황하며, 그들이 어느 때에 그분께 음식을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대접하였으며, 마시게 하였으며, 옷을 입히거나 그분이 약할 때 도왔는지, 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여쭙었습니다.²⁵ 이에 대해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²⁶

이 비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²⁷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을 실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이 신성한 열망은 19세기에 핀란드 시인 요한 루드비그 루네베리가 쓴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제 형제자매들은 어린 시절 내내 “농부 파아보”라는 시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파아보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핀란드 중부의 호수 지역에서 살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몇 년 연속으로 봄철에는 눈이 녹아 흘러내린 물 때문에, 여름철에는 우박 때문에 그리고 가을에는 때 이른 서리 때문에 그의 농작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이 빈약할 때마다 농부의 아내는 “파아보, 파아보, 이 불운한 양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때마다 파아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호밀 가루에 나무껍질을 섞어 빵을 만드시오.”²⁸ 나는 습해진 밭의 물을 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요.”

농작물이 망가질 때마다 파아보는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아내에게 밀가루에 섞는 나무껍질의 양을 두 배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더 열심히 일하며, 땅에서 물을 빼고 봄철의 눈 녹은 물과 이른 가을 서리에 농지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도랑을 팠습니다.

수년간의 고생 끝에, 파아보는 마침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파아보, 파아보, 이제 행복한 때가 왔어요! 이제 나무껍질은 치워 버리고

호밀로만 빵을 구울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파아보는 엄숙하게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웃집 밭에 서리가 내렸으니 호밀 가루와 나무껍질을 반씩 섞으시오.”²⁹ 파아보는 어려움에 처한 궁핍한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과 가족의 풍요를 희생했습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받은 은사, 즉 시간과 재능과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특히 가장 취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³⁰

앞서 언급한 불안해하던 초등학교 어린이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전하는 저의 권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성신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개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³¹ 여러분은 구주를 만날 준비가 될 것이며, 넬슨 회장님처럼 기쁨에 넘치는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³²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우면서, 현재나 미래에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넉넉한 소망을 갖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³³

새로 나온 한 찬송가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기쁜 목소리로 그날을 준비해 ...
주 오시는 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경전 말씀 알려 주네 그 기쁜 날 온다네
사랑하는 주 다시 오실 때.³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121쪽.
2.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꾸준히 성약을 준행하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 점점 더 구주를 닮아 가게 된다.



케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요한1서 3:2~3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 주님의 재림은 복천년이 시작될 때 있을 것이며,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이가 그분이 과거와 현재의 약속된 메시야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이사야 45:23; 스가랴 12:10; 교리와 성약 88:104 참조)
4. 러셀 엠 넬슨,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6쪽. 참조.
5.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25:1; 마태복음 25:1~4, 6~13 참조.
6. 교리와 성약 45:56~57.
7.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께로 돌이켰고”,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9쪽 참조.
8. 니파이후서 32:5 참조.
9. 마태복음 24:4~5.
10. 조셉 스미스—마태 1:5~6, 8~9, 21~22, 25~26 참조.
11. 모로나이사서 7:13, 15~17 참조. 물몬경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연합하고 그것을 명확히 하여 “거짓 교리들을 무너뜨린다.”(니파이후서 3:12) 아마도 이것이 러셀 엠 넬슨 회장이 “물몬경은 …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가르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물몬경, 이스라엘의 집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리아호나』, 2014년 7월호, 27쪽)
12. 러셀 엠 넬슨,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리아호나』, 2023년 11월호, 118쪽 참조. 넬슨 회장은 또한 이렇게 가르쳤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릇된 철학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더럽히지 마십시오.”(“세상을 이기고

심을 얻으십시오”, 『리아호나』, 2022년 11월호, 97쪽) “여러분의 질문들을 주님께, 그리고 다른 충실한 이들에게 가져가십시오. … 의심에 빠진 다른 이들과 그 일을 되풀이하며 의심을 키우는 일은 그만두십시오.”(“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신앙은 산을 옮길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1년 5월호, 103쪽) 물몬경의 선지자 엘마 일세는 이렇게 권고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믿고 너희를 가르치는 자나 너희에게 성역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모사이아서 23:14) 이 경륜의 시대에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심령이 통회한 자 … 온유하고 교화하는 말을 하는 자… 나의 권능 아래 떠는 자는 … 내가 너희에게 준 여러 계시와 진리를 따라 찬양과 지혜의 열매를 맺으리라.”(교리와 성약 52:14~19 참조)

13. 러셀 엠 넬슨 회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121쪽 참조.
14. 돌아가신 조상을 대신하여 대리 의식을 행하는 경우, 그 조상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충실히 남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 대신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15. 마태복음 25:14~30 참조.
16. 경전 안에서, “달란트” 참조. 달란트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무게와 금전적 가치를 매기던 고대의 단위였다. 한 달란트는 약 6,000테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1테나리온은 대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므로, 1달란트는 평균 노동자의 약 20년 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7. 마태복음 25:21; 또한 38절 참조.
18. 마태복음 25:24~26 참조.
19. 이 비유를 확장하여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각 종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면, 처음에 각 종이 가진 것에서 드러난 사소한 차이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20. 또한, 주님은 이 비유에 언급된 달란트를 지식과 간증(이더서 12:35, 교리와 성약 60:2, 13 참조)뿐만 아니라 재산과 청지기 직분(교리와 성약 82:18 참조) 등 삶과 복음의 다양한 측면에 비유하신다.
21. 해럴드 에스 쿠스너, *Overcoming Life's Disappointments* (2006), 26쪽 참조.
2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기 안내서”(2023)의 48쪽에 나와 있듯이, “삶에 관해 일어나는 모든 불공평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23. 마태복음 25:31~46 참조.
24. 마태복음 25:32~33.
25. 마태복음 25:37~39, 44 참조.
26. 마태복음 25:40; 또한 45절 참조.
27. 모사이아서 2:17 참조. 우리는 구주의 복음을 나누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도록 돕고(이사야 61:1~3 및 누가복음 4:16~21 참조),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할 때(교리와 성약 81:5 참조), 그분의 사명에 참여한다.
28. 자작나무 껍질의 안쪽 층에는 약간의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다. 정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29. 요한 루트비그 루네베리, “Högt Bland Saarijärvis Moar,” *Idyll och epigram Dikter* (1830), nummer 25; *Suomen kansalliskirjallisuus* (Helsinki, 1941), 9:50~52; sv.wikisource.org/wiki/Högt_bland_Saarijärvis_moar 참조. 스웨덴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은 내가 직접 한 것이다.
30. 이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일을 나타낸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신명기 15:11)
31. 재림과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훌륭한 말씀을 찾아보려면 앨런 에이치 옥스,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10쪽을 참조한다.
32. 러셀 엠 넬슨, “세상을 이기고 심을 얻으십시오”, 95~98쪽 참조.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집합의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준비와 자격을 갖춘 사람들, 타락한 이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 높고 더 거룩한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신의 선택의지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세상을 이기고 심을 얻으십시오”, 98쪽)
33. 모로나이사서 7:3 참조.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란 육체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은] 진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영적 안식과 평안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만족을 얻은 자들이며, 진리에 굳건히 서겠다는 불굴의 결의를 마음에 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뜻대를 바라보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 마련된 길을 겸손과 의로움으로 걷는 자들이라. 그러나 이 단호한 확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채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그로 인해 불안해하고, 불안정하며,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교회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낙담하는 자들이다. … 그들은 의심, 불안, 불확실한 감정을 품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혼란스럽고, 마치 바다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아주 작은 변화에도 동요한다.”(*Gospel Doctrine*, 5th ed. [1939], 126쪽)
34. “사랑하는 주 다시 오실 때”, 『찬송가—가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 복음 자료실, 1002장.





한스 티 보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부디 여러분의 앞 세대들이 지닌 신앙과 간증에서 배우고 힘을 얻으십시오.

저는 성전을 점검하는 임무를 위해 테네시 내슈빌 성전을 방문하는 동안 임무 수행의 일환으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둘러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메이트론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메리 완라스를 그린 *Carry On* [계속 나아가라]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862년에 미주리주에 살았던 14세 소녀 메리 완라스는 임종을 앞둔 새어머니에게 장재인 아버지 [몹시 어린 네 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반드시 그레이트솔트레이크밸리까지 가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황소와 젖소들이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가 탄 마차를 끄는 동안 메리는 그 소들을 몰았고, 또한 동생들도 돌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루 여정을 마치고 나면 메리는 식용 식물과 꽃, 딸기류 열매를 채집하여 가족들을 먹였습니다. 구름이 산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라는 지시가 메리에게 유일한 나침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메리의 가족은 봄과 여름 내내 이동하여 9월에 유타밸리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유타 카운티에 정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으며, 훗날 메리는 그곳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¹

신앙과 강인함을 지닌 이 14살 소녀의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에게 “그저 계속 나아가라”는 영감을 줍니다.

“그저 계속 나아가라”를 제 모국어인 네덜란드어로 번역하면 *Gewoon Doorgaan* [호보온 도르하안]인데, 이는 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생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제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은 우리 가족의 개척자들입니다. 그분들은 매일 주님의 우리인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평원”을 건너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황소와 마차는 없지만, 그분들이 미래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그분들은 청년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성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에 아버지는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져 강제 수용소에 갇혔으며,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결혼 가정에서 자란 제 어머니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굶주림과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때로 어머니는 어쩔 도리 없이 톨립 구근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친의 행동과 그로 인한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교회 활동에서 만나셨고, 그 후 얼마 안 되어 결혼을 결정하고,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인봉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저축한 돈을 성전 여행에 모두 써 버리고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두 분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막막했지만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암스테르담 중심가에 있는 몹시 초라한 원룸 옥탑방에서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두 분은 몇 년간 손빨래를 했고, 마침내 세탁기를 살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를 구입하기 직전에 감독님이 방문하셔서 암스테르담에 집회소를 짓기 위한 기부금을 요청하셨습니다. 두 분은 세탁기를 구입하려고 저축한 돈을 전부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계속 손빨래를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도 다른 어느 가족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역경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돈독해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강해졌습니다. 엘마가 아들 힐라맨에게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온갖 시험과 곤경하에서 ... 받들어 주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았습니다.²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많은 시련을 겪은 두 분이 어떻게 제가 바라는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모님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이 맺은 성약에 따라 생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으셨던 어머니는 65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시고 지난 2월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생활하시는 92세인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대한 자주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는 제 동생들에게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인도네시아의 수용소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을 한 덕분에, 아내가 이 지독한 병에 걸려 중세가 악화되는 여러 해 동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의 간병을 맡기고 더 이상 아내 곁에 있을 수 없게 된 그 운명적인 날까지 끈기 있게 아내를 돌볼 수 있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제 부모님의 좌우명은 예나 지금이나 “그저 계속 나아가라”이며, 부모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거하시라는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³

부모님의 신앙과 간증은 이후 세대들에게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제 아내가 자란 마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시 두 살배기 외동딸이었던 제 아내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는 신한 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겠다는 결심은 그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년간 가족들에게 애정 어린 편지를 보내고 지역 사회에 봉사한 후에야 그분들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감독으로 봉사하던 중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셨다가 바로 풀려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상하신 장모님께서는 장인어른께 교회에 계속 나가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서는 이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나가야



케냐



브라질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사과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신들의 한계점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일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힘과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신했던 제 부모님들의 신앙과 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분들이 사리 분별을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그분들은 기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영이 함께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에, 선지자 조셉처럼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노래책』에 나오는 힐라맨의 용사들 노래를 좋아하시죠?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훌륭한 부모님께 태어나
모든 계명 순종하라
가르침 받아 알고 있네

여러분은 제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겪으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더라도, “훌륭한 부모”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모범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사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도 자신이 “힐라맨의 용사”이며 “세상에 진리 전파할 주의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느끼십니까?⁶ 저는 FSY와 여러 청소년 모임 등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여러 번 그렇게 느꼈습니다.

찬송가 “의와 진리 지키기에”를 부를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의와 진리 지키기에
시온 청년 지체하라
우리 원수 물려올 때에

검을 내어 피하라 야!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⁷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 부디 여러분의 앞 세대들이 지닌 신앙과 간증에서 배우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간증을 얻거나 기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며 “희생은 하늘 축복을 가져온다”는⁸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희생에 관해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다음 권고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는 모든 합당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선교사로 봉사하십시오. 젊은 후기 성도 남성들에게 선교사 봉사는 신권 책임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젊은 자매[에게도] 선교 사업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매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⁹

여러분은 봉사 선교사나 토론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교사들은 모두 자신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영혼을 그리스도께 데려온다는 동일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봉사하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¹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세대이든 다섯 번째 세대이든,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 어떤 힘, 해의 왕국을 위한 어떤 헌신의 이야기를 전해 줄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려는 노력을 계속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기초를 세워야 할 반석이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¹¹

우리 모두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성 다해 수호하러, 영원토록 굳게 [섭시다.]”¹²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The Story Behind Carry On”, alyoung.com.
2. 엘마서 36:27.
3. 엘마서 36:28 참조.

4. 조셉 스미스—역사 1:25.
5.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어린이 노래책』, 92~93쪽
6. 『어린이 노래책』, 58~59쪽)
7.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8.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9. 러셀 엠 넬슨, “평화의 복음을 전파함”, 『리아호나』, 2022년 5월호, 6쪽.
10. 모사이야서 5:13.
11. 힐라맨서 5:12 참조.
12. Hymns[영어 찬송가], no. 254.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에게 갖는 사랑이야말로
이 교회가 진정 구주의 교회임을 세상에
알리는 힘찬 간증입니다.*

수년 전, 저는 아내 해리엇과 남부 독일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부활절이 코앞이라, 우리는 막역하게 지내던 비회원 친구를 일요일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구주와 그분의 교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녀에게 나누며, 와서 보라고 그녀를 초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초대를 받아들였고, 우리와 함께 가까운 지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친구를 처음 교회에 데려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 일요일 아침에 제가 느꼈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친구는 학식이 깊고 영적인 사람이었기에, 그날의 지부 모임이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를, 그리고 교회를 잘 대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지부는 식료품 가게 2층의 방 몇 개를 임대해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건물 뒤편에 난 계단을 이용해야 했고, 지나가는 동안 그곳에 보관된 식료품에서 풍기는 강한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성찬식이 시작되며, 저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된 친구를 생각할 때, 조금은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태버나클 합창단처럼 아름답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연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말씀은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적어도 주일학교는 이보다 나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우리가 데려간 친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 교회는 단지 작은 지부일 뿐이며,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 갔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분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라셨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비판적이었던 제 태도를 회개했습니다. 친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모임이 완벽하기를 바랐지만, 이 지부 회원들이 보여 준 진정한 가치는 바로 진심 어린 사랑과 친절, 인내,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이 땅에서 증가되게 하려 함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친구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구주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충만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곳에 그분의 신권 권능과 권세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부르시고 권세를 주신 종들을 통해, 그리고 살아 있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을 통해 이 교회를 직접 인도하십니다. 구주께서는 후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구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될 때, 신권 권세나 의식 또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할 때 느껴지는 분위기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주목할 가능성이 큼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으로 간증을 느끼는 순간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사랑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구주께서는 “신앙이 땅에서 증가되게 하려”² 이 교회를 회복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 교회 모임에 방문할 때 구주께서는 그 사람이 그분을 믿는 더 강한 신앙을 품고 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사랑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짐을



브라질



페루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음에 두는 단순한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더 큰 신앙을 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집에 온 듯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모임에 초대하는 것은, 마치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³

이상과 현실

물론 저도 이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멸의 삶에서는 이상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대낮(완전한 날)이 될” 때까지⁴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아직 완전한 날에 이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와드가 어떤 이유에서든 아직 충분한 신앙이나 사랑을 갖추지 못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우리가 그곳에 갈 자리가 없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바로 그 이상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물론경의 표제지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주의 사항이 나옵니다.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실수라, 그러한즉, 하나님의 것을 정죄하지 말지니라.”

책이나 교회 혹은 사람에게 “결점”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소리 높여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높은 표준을 지키고자 하면서도 서로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모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며, 우리가 이루는 모든 진보는 오직 구주께 의지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 진리는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왕국에 합류할 뿐만 아니라 왕국을

세워 가는 일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백성을 구상하고 계십니다.⁵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며,⁶ 그러기 위해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⁷

그렇다고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내 마음을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내게 맞추어 상대의 마음을 바꾸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우리의 마음을 구주에게 맞추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주님께서 도우신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⁸

어울림과 함께함

교회에서 자신이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한 번쯤은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11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살던 집을 떠나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익숙했던 모든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제 억양 때문에, 그곳 아이들은 제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우정과 소속감이 절실했던 시기에 저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차이, 즉 사람들이 서로를 구분 짓는 데 사용하는 차이는 대개 외모, 국적, 언어, 옷차림, 관습 등 세속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⁹

주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단 하나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범주입니다.¹⁰ 그리고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이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처럼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구주의 교회에서 우리는 기꺼이 모이기를 원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모읍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외모나 정치적 견해, 문화, 또는 민족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된 배경이 아니라, 공통된 목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¹¹

우리가 추구하는 단합은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방향—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¹² 우리가 하나인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한 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아들을 따르며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구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꼭 맞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에 꼭 필요한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¹³ 귀는 눈이 결코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발은 손이 잘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¹⁴

물론 모든 사람을 여러분처럼 바꾸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에게는 기여해야 할 중요한 무언가가 있으며, 배워야 할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목소리

연차 대회의 모든 모임에서 우리는 재능 있는 합창단이 부르는 영감 어린 음악을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음악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합창단원들이 모두 같은 음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한 파트가 멜로디를 노래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파트가 주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내며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합창단원은 저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들어 올린다는 동일한 중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원의 마음과 정신은 그 신성한 목적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진정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교회 회원이 아니시라면, 우리와 하나가 되어 구주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권합니다.¹⁵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과 그분의 자녀를 섬기려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성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를¹⁶ 바라는 마음을 이미 보여 주셨다면, 이 위대하고 신성한 사업의 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구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친구로부터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 교회가 참으로 구주의 교회임을 세상에 전하는 강력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스승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이상에 걸맞게 살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 요한복음 13:34~35.
- 교리와 성약 1:21.
- 교리와 성약 46:5~6 참조.
- 교리와 성약 50:24.
- 모세서 7:18.
- 교리와 성약 97:21 참조.
- 앨마서 5:14 참조.
- 누가복음 1:37 참조.
- 사무엘상 16:7, 새번역영어성서
- 러셀 엠 벨슨, “영원을 위한 선택”(전 세계 청년 성인 영적 모임, 2022년 5월 15일 월요일) 참조, 복음 자료실.
- 갈라디아서 3:28.
- 교리와 성약 6:36 참조.
- 고린도전서 12:12~27 참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참아 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 지체가 온몸의 유익에 기여하는 고유한 공헌에 감사한다.
- 귀가 몸을 보고 “나는 눈이 아니니까 여기 있을 자리가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눈이 귀에게 “넌 나와 다르니까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고린도전서 12:16, 21 참조)
- 앨마서 5:26.
- 모사이아서 18:8.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짐을” 지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는(8~9절) 사람들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간증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와 더 닮아 가기를 바라고,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칠레



코트디부아르



캐나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쿡 제도

토요일 저녁 모임

2025년 4월 연차 대회



56쪽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며,
그분의 빛을 받고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60쪽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16)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에이미 에이 라이트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64쪽

자비의 계획

주님께서서는 자비로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참으로 자비의 계획입니다.

제임스 알 래스밴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68쪽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나침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춘다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르히오 알 바르가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75쪽

예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며, 그분의 빛을 받고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머리말

해외에서의 긴 임무를 마치고 아내 리사와 함께 집으로 가는 마지막 야간 항공편을 타기 위해 공항 터미널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긴 줄에서 한 걸음씩 움직이며 서 있는 동안, 저희는 주변 여행객들이 비행기에 제시간에 탑승할 수 있을지, 여권과 비자 심사를 통과하고 보안 검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점점 불안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희 차례가 되어 입국 심사관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심사관은 그곳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기계적으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제 서류를 집어 제 사진을 확인하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마침내 제 여권에 쿵 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리사의 서류를 집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인 채 업무에 집중하면서, 날카로운 눈으로 꼼꼼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앞에 놓인 서류의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더니, 침착하고 따뜻한 눈길로 리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리사의 여권에 부드럽게 도장을 찍은 다음,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사가 그 직원이 본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구주의 그림이 있는 작은 카드였습니다. 아내의 지갑에 있던 카드가 우연히 빠져나와 여권 사이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심사관은 그 카드를 발견했고, 그것이 그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구주의 그림 덕분에 아무런 점점도 없었을 낯선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그림은 무미건조했던 관계를 인간미가 느껴지는 관계로 변모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닌 아름다움과 기적과 실재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하루 동안, 그리고 이후로도 자주, 저는 그 감미롭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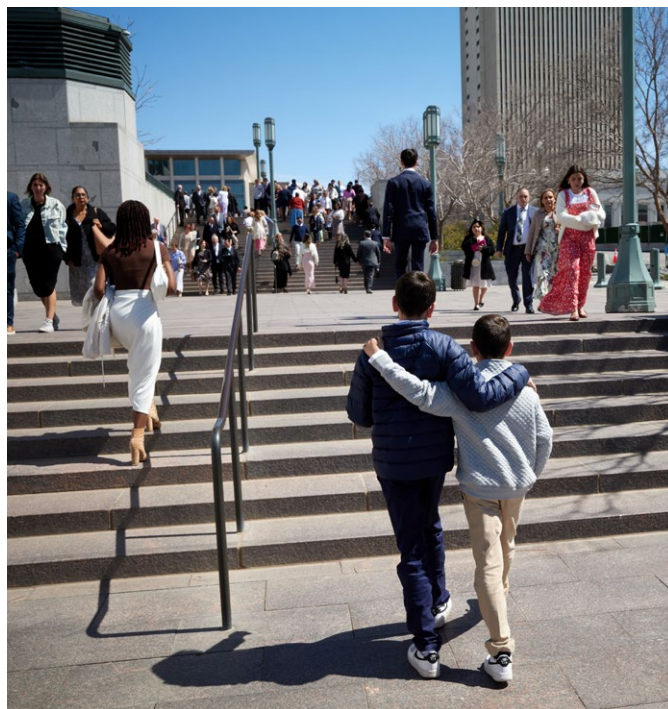
이 작은 구주의 그림 덕분에 아무런 점점도 없었을 낯선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순전했던 순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며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광스러운 영향에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며, 그분의 빛을 받고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신다는¹ 우리 교리의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대의 선지자뿐 아니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²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고³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합니다.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⁵ 그분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셨다고⁶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생애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시고⁷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⁸ 부활하심으로써⁹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음을 간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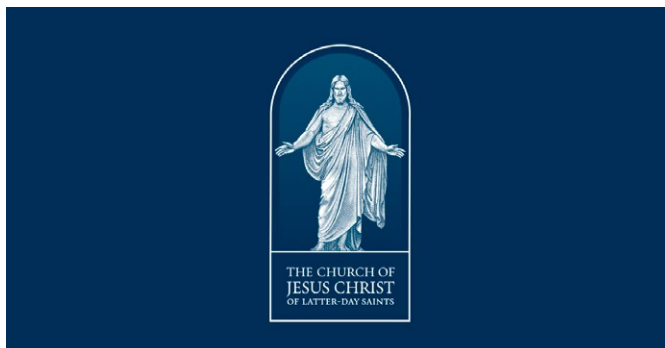
구주의 속죄 희생 덕분에 우리는 회개할 때 용서받고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안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¹⁰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후 부활할 것[입니다]. 이는 각 사람의 영과 육신이 재결합하여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¹¹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시대의 살아 있는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점점 더 많이 권유하십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마음과 귀와 눈을 주님께 더욱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제일회장단이 마련하여 발표한 정책 조정 및 개선의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다음은 그 일부입니다.

- “몰몬 교회”라는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¹²
-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새롭고 귀와 눈을 주님께 더욱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제일회장단이 마련하여 발표한 정책 조정 및 개선의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다음은 그 일부입니다.
-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아론 신권 정원회 및 청년 주제와 음악.¹⁴
-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문자 그대로의 부활을 더욱 강조.¹⁵
- 부활절을 단순히 하루짜리 기념일이 아닌 하나의 절기로서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¹⁶



마다가스카르

-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시각적 상징과 그것이 지닌 상징적 의미 소개.¹⁷

이들 중 몇 가지가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상징

2020년에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교회의 새로운 시각적 상징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상징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진리를 반영합니다.¹⁸ 현재 우리는 성전 추천서와 교회 웹사이트, 잡지, 복음 자료실 앱의 아이콘, 심지어 군복무 중인 많은 교회 회원들의 군인 인식표에서도 이 친숙한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징에는 교회의 이름이 모퉁잇돌 안에 들어가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된 모퉁잇돌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¹⁹ 이 화면에 캄보디아어로 나타난 교회의 상징은 현재 145개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징의 중심에는 베르텔 토르발센의 사랑받는 대리석 작품인 그리스도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작품을 보면 우리 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리스도상은 전 세계 방문자 센터와 성전 경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상징에서 눈에 띄는 이 조각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되셔야 함을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주께서 두 팔을 펼치고 계신 모습은 당신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이 상징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호기심에 많은 가족과 친구에게 교회의 상징을 이루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그 상징이 담고 있는 신성한 특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치 아래 서 계십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구주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념합니다. 이는 교회의 상징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고 거룩한 부활절

이제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회장단이 전한 부활절에 관한 최근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사회 전반, 특히 우리 가족 내에서 부활절 전통을 확립하도록 도움으로써 살아 계신 우리 구주의 부활을 기념”하라는²⁰ 과제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부활절을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기념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활절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주어지는 계시를 사랑하며, 부활절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일요일에는 1시간 동안 성찬식을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합당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주간과 종려 주일에 하는 와드나 스테이크의 영적 모임 및 활동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기념 활동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범종교 연합 합창단이 포함되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원과 친구들을 위해 “살아 계신 그리스도” 일반 공개 모임을 개최하고 여러 교파가 함께하는 지역 사회 부활절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구주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무리가 한 목소리로 그분을 찬양했던 모습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가족 단위로 집에서 예배드리라는 제일회장단의 권유에 응한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²¹

저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가족 예배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저는 가족과 함께 부활절을 기념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희 가족은 늘 특별한 부활절 일요일 식사, 부활절 바구니, 부활절 달걀 찾기를 즐겨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초점을 맞춘 영적인 요소를 의도적으로 기념 활동에 추가함으로써 모든 사건 중 가장 거룩한 이 사건을 기념하는 방식에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 가족은 더욱 그리스도가 중심인 부활절을 보내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아기 예수 탄생 연극과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의 부활절 연극에는 간단한 의상, 신약전서와 물몬경 낭독, 음악, 부활절 그림, 종려나무잎, 그리고 솔직히 말해 약간의 무질서함이 포함됩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종려 주일에 읽고 암송하는 “호산나 …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 예수라”²² 같은 구절은 마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²³ 구절이 성탄절과 깊이 관련된 것처럼 부활절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부활절 장식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부활절 장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토끼와 부활절 달걀이 이제는 그리스도상과 빈 무덤, 무덤 밖 동산에 모습을 드러내신 부활하신 구주,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신 구주의 이미지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부활절을 하루짜리 기념일이 아닌 하나의 절기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종려 주일과 성금요일, 그리고 성주간 전체에 일어난 성스러운 사건들을 더 깊이 알고 생각하고 기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과 그분의 문자 그대로의 기쁜 부활을 모두 기릴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겿세마네 동산과 갈보리에서 겪으셨던 고통을 상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빈 무덤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라는²⁴ 하늘의 선언을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은 기뻐집니다.

문자 그대로의 부활

최근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활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대하십시오. 이는 인류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 중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²⁵ 다양한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부활을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커지는 듯 보이지만, “부활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며, 부활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리로 확인합니다.²⁶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²⁷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해 사망의 줄을 끊으셨습니다.²⁸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참으로 놀랍니다.²⁹ 우리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³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주로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했다. … 부활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기독교 설교의 중심 주제이다. 부활과 그 결과는 기독교인들이 전한 ‘복음’ 또는 좋은 소식이었다.”³¹

저는 “부활이 있나니, …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며, 사망의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키운 바 되었”음을³² 선포합니다.



코트디부아르

맺음말과 간증

마지막으로, 저는 부활절이 상징하는 거룩한 사건들을 더욱 의식적으로 기념하라는 우리의 살아 있는 선지자와 그분의 보좌들의 권유를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유대가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해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간증드립니다.

며칠 전, 저는 한 할머니가 4살 된 손자에게 간단한 모양의 무덤과 무덤을 덮은 돌, 예수님, 마리아, 제자들, 천사 모형을 사용해 부활절 이야기를 시연해 보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고 무덤 문을 닫고 여는 모습과 동산에서 있었던 부활 장면을 할머니가 들려주는 동안 그 어린 소년은 열중해서 보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형들을 자기 주변으로 움직이면서 놀라움 정도로 자세하고 정성스럽게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감미로운 순간에 이어, 아이는 부활절이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년은 고개를 들고 아이디어 이유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그 어린 소년의 간증에, 여러분의 간증에, 그리고 천사들과 선지자들의 간증에 제 간증을 더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에베소서 2:20.
2. 조셉 스미스—역사 1:17.
3. 욥나아서 1:26; 모로나아서 10:30.
4. 니파이후서 25:26.
5. 마태복음 3:17; 요한복음 3:16~17; 히브리서 1:1~3; 제3니파이 11:7; 교리와 성약 93:15~17; 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
6. 마태복음 16:18; 사도행전 2:47; 제3니파이 21:22 참조.
7. 마태복음 26:36~46; 마가복음 14:32~41; 누가복음 22:39~46 참조. 또한 이사야 53:4~12; 교리와 성약 19:16~19 참조.

8. 마태복음 27:26~51; 마가복음 15:15~38; 누가복음 23:32~49; 요한복음 19:1~6, 14~37; 니파이전서 11:32~33; 니파이후서 9:5; 모사이야서 14:12; 교리와 성약 45:52; 53:2; 110:2~5 참조.
9. 마태복음 28:1~10, 16~18; 마가복음 16:1~14; 누가복음 24:1~48; 요한복음 20:1~31; 21:1~14; 제3니파이 9:22; 11:1~17 참조.
10. 모사이야서 2:41 참조.
1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누기 안내서”(2023), 10쪽.
12. 러셀 엠 넬슨, “교회의 정확한 명칭”,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7~90쪽 참조.
13. 제일회장단 서한, 2020년 5월 11일 화요일 참조.
14. “청녀 주제”, 복음 자료실; “아론 신권 정원회 주제”, 복음 자료실 참조; “그리스도 제자”, 음악 자료실; “주를 보라”, 음악 자료실.
15. 러셀 엠 넬슨 회장, 페이스북, 2025년 3월 16일, facebook.com/russell.m.nelson 참조.
16. 게리 이 스티븐슨, “가장 위대한 부활절 이야기”, 『리아호나』, 2023년 5월호, 6~9쪽, “2025년 부활절”(교회 지도자 공지 사항), 2025년 3월 11일 참조.
17. 러셀 엠 넬슨, “하늘을 열어 도움을 구함”,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74쪽 참조.
18. 러셀 엠 넬슨, “하늘을 열어 도움을 구함”, 73쪽 참조.
19. 에베소서 2:19~20; 베드로전서 2:3~6 참조.
20. 델린 에이치 옥스, “He Is Risen!” A Special 2025 Easter Season Message from the First Presidency(동영상), 복음 자료실.
21. 러셀 엠 넬슨,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리아호나』, 2023년 5월호; 127쪽, 제일회장단 서한, 2023년 2월 15일 참조.
22. 마태복음 21:9, 11.
23. 누가복음 2:14; “성탄의 종이 올린다”, 『찬송가』, 137장 참조.
24. 마태복음 28:6; 마가복음 16:6; 누가복음 24:6; 마태복음 28:1~10, 16~18; 마가복음 16:1~14; 누가복음 24:1~48; 요한복음 20:1~31; 21:1~14; 제3니파이 9:22; 11:1~17 참조.
25. 델린 에이치 옥스, 페이스북, 2025년 1월 2일, facebook.com/dallin.h.oaks.
26. 델린 에이치 옥스, “He Is Risen!”
27. 고린도전서 15:22.
28. 모사이야서 15:7~8 참조.
29.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참조.
30. 요한복음 15:13.
31. 시 에스 루이스, *Miracles: A Preliminary Study*(1947), 171–72.
32. 모사이야서 16:8.





에이미 에이 라이트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16)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 일라이가 4학년이었을 때, 아들의 반에서는 모의 정부를 구성했고, 일라이를 학급 판사로 선출했습니다. 하루는 유다 제2지방법원의 현직 판사가 방문해 일라이에게 자신의 법복을 입힌 다음 학급 판사직에 대한 신서를 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어리고 감수성이 풍부했던 아들의 영혼에는 법학과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깃들었습니다.

수년간 성실하게 노력한 일라이는 자신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로스쿨 중 한 곳으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열 개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본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였어요. 유사 이래로 인류는 원형에서 삶의 양식을 만들면서 도덕 체계를 도출해 왔는데, 제가 제 삶의 양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덕적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세상이 훨씬 더 나은 곳, 더 평화로운 곳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 날아가는구나. 종교 학계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2주 후에 일라이는 장학금과 함께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입학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는 캠퍼스를 둘러보았습니다. 로스쿨은 성처럼 보였고,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높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웅장한 도서관과 장엄한 복도를 지나면서, 저희는 현수막과 돌벽에 산상수훈의 내용이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새롭고도 획기적이며, 단언컨대 지금까지 전해진 설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설교입니다.² 그 어떤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신성한 속성과,³ 그분을 닮아 가려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더 잘 알려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평생의 과정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초등학교에서는 생후 18개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 후에, “[주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분의 가르침과 교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을 깨닫고 “떠나가[서]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⁴ 그러자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⁵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⁶

베드로가 보여 주었듯이, 믿음이란 “어떤 사람을 믿는 신앙을 가지거나 어떤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⁷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신앙의 중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참된] 성품과 [본성]을 [이해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 행사하게 됩니다.”⁹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모든 믿음의 기초이며, 신성한 권능이 흘러 들어오는 매개체입니다.”¹⁰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그분의 신성한 권능에 다가가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주께서] 백성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보라, 나는 … 예수 그리스도라… .

일어나 … 나아[오라] …

… 우리가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느니라. 또 그의 손과 그의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았으니,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갔으며]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 보았으며 … 분명히 알고



마다가스카르

증거하였느니라.”¹¹

어린 자녀들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듣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성역과 신성을 보여 주는 경건한 이미지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실재하심과 신성을 증거하는 성신을 느끼며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메시지와 사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하십시오.

베냐민 왕의 백성들은 마음의 크나큰 변화를 경험했으며,¹² 성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¹³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성약의 책임이 있습니다.¹⁴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와서 나를 따르라』 교재의 부록 1과 2에는 대화를 시작하기에 좋은 내용과 공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교사와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하나님의 성약의 길을 평생 동안 걸어가도록 어린이들을 준비시키는 신성한 책임을 수행하게 할 것입니다.¹⁵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십시오.

물문경에서 구주께서는 새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가능한 한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¹⁶

어떻게 하면 침례와 확인을 받은 어린이들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으라는 성약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¹⁷ 평생 제자의 길을 가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¹⁸

주님의 가장 어린 제자들에게 권유할 때,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곁에서 함께 걸으며, 길을 찾도록 돕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¹⁹ 이 소중한 어린 제자들이 가르치고,²⁰ 간증하고,²¹ 기도하고,²² 봉사하기 위해²³ 준비할 때 그들에게 조언해 줌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책임을 완수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이 이 교회가 그들의 교회이며,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을 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²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과 그것을 소망하는 방식이 영원히 변하게 됩니다. 개심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게 합니다.²⁵ 개심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과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나누는 것을 바꿉니다. 심지어는 유명하고 학술적이며 경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면접의 답변마저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²⁶ 삶의 모든 부분에 불어넣어야 합니다.²⁷ 우리가 가정과 이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그분께서 전세에서 지니셨던 신성과,²⁸ 거룩한 사명과,²⁹ 감옥을 깨뜨리신

부활에 대해³⁰ 간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사랑과 봉사, 정직, 겸손, 감사, 연민과 같은 메시지는 사려 깊은 삶을 권장하는 가벼운 격려의 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변화할 힘도, 감방할 목적도 없으며, 삶의 고난 가운데 복음의 목적과 원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³¹,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³²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³³ 우리의 사랑도 자녀들에게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성결하게 하고,³⁴ 영생을 얻게 하고,³⁵ 치유할 수 있습니다.³⁶

이 예수님은 상상의 존재,³⁷ 단순한 존재,³⁸ 실체가 없는 존재,³⁹ 가벼운 존재,⁴⁰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⁴¹ 영화로우신 분이시며,⁴² 전능하신 분,⁴³ 부활하신 분,⁴⁴ 지극히 높으신 분,⁴⁵ 경배 받으시는 분,⁴⁶ 권능을 가지신 분,⁴⁷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⁴⁸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입니다.⁴⁹ 어느 날 필리핀의 한 어린이가 저에게 이런 힘 있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 [위대한] 화복제물로 세우신”⁵⁰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5~7장 참조.
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산상수훈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말씀하셨다. (“The Way Home,” *Ensign*, May 1975, 15)
3. “6장: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구한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누기 안내서』(2023), 123~138쪽 참조.
4. 요한복음 6:66, 강조체 추가.
5. 요한복음 6:67.
6. 요한복음 6:68~69, 강조체 추가.
7. 경전 안내서, “믿음, 믿다”, 복음 자료실.
8. 사도행전 4:10~12; 모사이야서 3:17; 모로나이서 7:24~26; 신앙개조 제4조 참조.
9. 주제 및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복음 자료실 참조; 또한 *Lectures on Faith* (1985), 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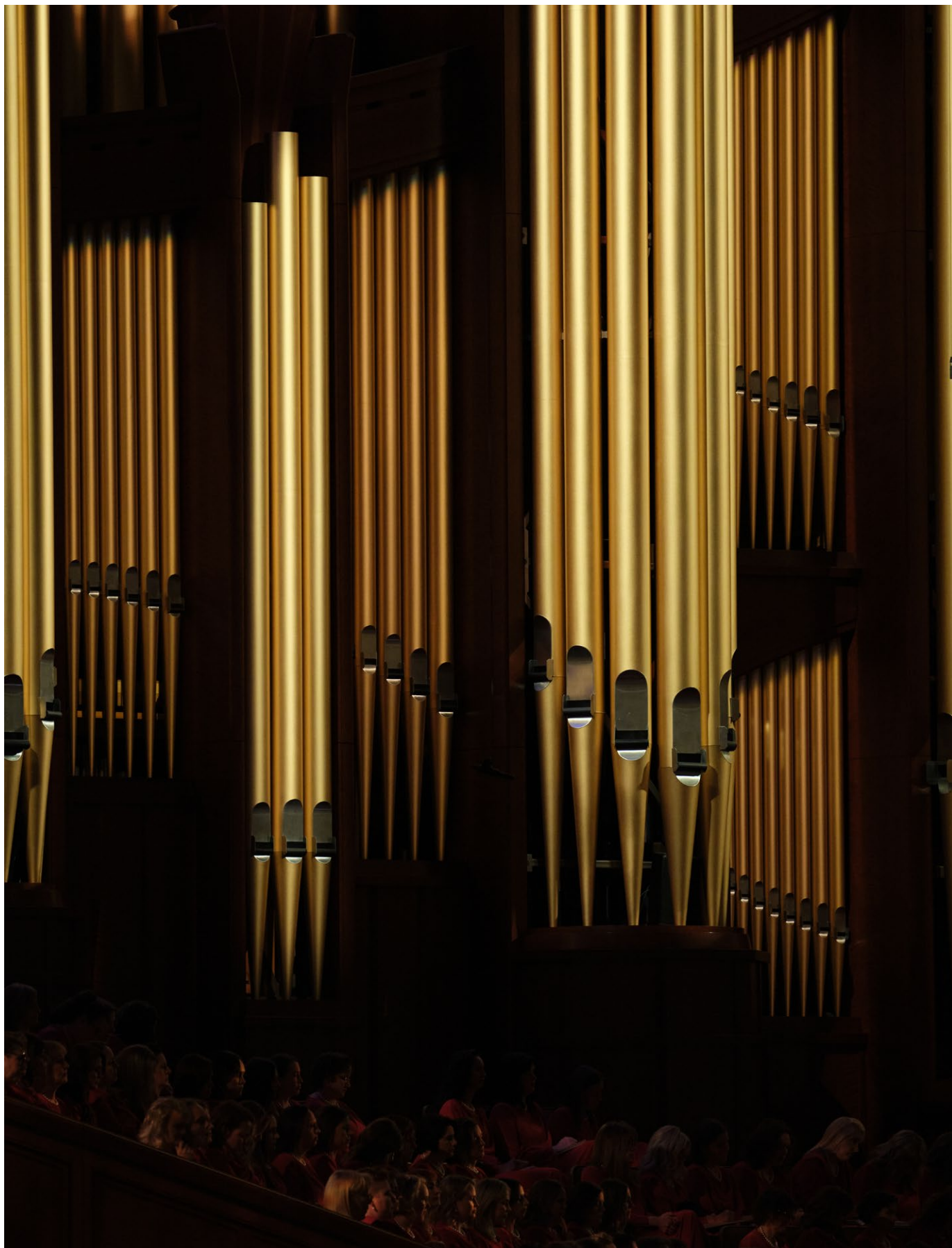


마다가스카르

10. 러셀 엠 넬슨,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신앙은 산을 옮길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1년 5월호, 102쪽.
11. 제3니파이 11:9~10, 14~15, 강조체 추가.
12. 모사이아서 5:2; 앨마서 5:12, 14 참조.
13. 모사이아서 5:7.
14. 러셀 엠 넬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121~122쪽 참조.
15. 『와서 나를 따르라—가정 및 교회: 2025 교리와 성약』 부록1: “부모용—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의 성약의 길을 걸어가도록 준비시킴”, 부록2: “초등학교용—어린이들이 평생 하나님의 성약의 길을 걸어가도록 준비시킴” 참조.
16. 제3니파이 27:27; 또한 니파이후서 2:6~8; 모로나이서 7:48 참조. 경전에서는 해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분과 같이 된 자들이라고 설명한다.
17. “어린이를 위한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메시지”(동영상, 친구가 친구에게 2021년 방송), 복음 자료실 참조.
18. 야고보서 1:22.
19.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또한 요한복음 14:6 참조.
20.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12.2.1.2, 29.2.1.4 복음 자료실 참조.
21. 『일반 지침서』, 29.2.2 참조.
22. 『일반 지침서』, 12.2.1.2; 29.6 참조.
23. 『일반 지침서』, 12.2.1.3;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뉴스룸,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2025년에 다른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권유받다”, 2025년 1월 13일, news-kr.churchofjesuschrist.org.
24. 사도행전 1:11; 데살로니가전서 4:16; 교리와 성약 1:12; 34:6~7; 49:7 참조.
25. 모사이아서 5:2.
26. 요한복음 8:12; 교리와 성약 93:2 참조.
27. 앨마서 19:6 참조.
28. 교리와 성약 76:4 참조.
29. 요한복음 3:14~17 참조.
30. 고린도전서 15:20~23 참조.
31. 베키 크레이븐, “세심함 vs. 소홀함”,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9~11쪽 참조.
32. 니파이후서 25:26 참조.
33. 요한복음 3:16; 13:34~35; 니파이전서 19:9 참조.
34. 모세서 6:59~60; 모로나이서 10:33 참조.
35. 교리와 성약 14:7; 84:36~38; 모세서 1:39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지혜와 권능이 자라며, 은혜에 은혜가 더해져 어느 날 갑자기 완전에 이를 것입니다.”(Doctrines of Salvation, 브루스 알 맥콩키 편 [1955], 2:36)
36. 제3니파이 17:7 참조.
37. 베드로후서 1:16~18; 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
38. 교리와 성약 110:1~4 참조.
39. 델린 에이치 옥스, “배도와 회복”, 『리아호나』, 1995년 7월호, 83~86쪽.
40.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참조한다.
“성스러운 것들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은 간단히 말해 이런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거룩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이 없다면, 점차 태도가 느슨해지고 행동이 해이해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정박지에서 벗어나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은 약해지고 이내 그것은 잊혀질 것입니다. 그 후로는 자신의 안락과 제어되지 않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성스러운 것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경멸하게 되고, 또한 자기 자신도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스러운 것들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해와 진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성령이 자주 그와 함께하게 되며, 나중에는 변함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는 점점 더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거룩한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가 맞게 될 마지막은 냉소와 절망의 정반대인 영생입니다.”(“A Sense of the Sacre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7, 2004], speeches.byu.edu)
41. 사도행전 17:34; 앨마서 30:52~53 참조.
42. 요한복음 17:3~5 참조.
43. 모사이아서 3:5 참조.
44. 누가복음 24:1~6; 제3니파이 11장 참조.
45. 빌립보서 2:9~11 참조.
46. 니파이후서 25:29 참조.
47. 출애굽기 19:16; 누가복음 4:32; 요한복음 1:12; 로마서 13:1; 니파이전서 17:48 참조.
48. 요한복음 3:16 참조.
49. 니파이후서 31:19; 앨마서 7:14; 34:18 참조.
50. 로마서 3:25; 또한 요한1서 2:2; 4:10 참조.



몽골





제임스 알 래스밴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자비의 계획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참으로 자비의 계획입니다.

선지자의 권유

교회에서 커틀랜드 성전을 취득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작년 4월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교리와 성약 109편에 기록된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문을 공부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¹ 이 헌납 기도문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날에 삶의 역경들에 맞설 수 있도록 성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는지를 알려 주는 지침서”라고 넬슨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²

여러분이 109편을 공부하면서 얻은 통찰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선지자의 권유를 따르며 배운 것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평안을 얻었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자비로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참으로 자비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아시다시피,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은 가능한 한 빨리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참석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엔다우먼트를 받고 나면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 ... 봉사자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³

새로운 선교사들이 선교사 훈련원(MTC)에 입소하기 전에 성전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성전 성약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앞서 그 성약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훌륭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109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새로운 선교사와 우리 모두에게 그 밖의 성스러운 방식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점을 배웠습니다.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계시로 주어진 이 헌납 기도문에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당신의 집에서 나갈 때” “땅의 ... 위인들”과 “모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난 받는 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그들의 편견이 사라지게 하시며, 당신의 백성이 모든 사람의 눈에 호의를 얻게 하시고, 모든 땅 끝이, 당신의 종들이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들었고 또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알게 하시[옵소서].”⁵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에게 주어진 이 훌륭한 약속은 바로 “진리 앞에서 [편견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눈에 호의를 얻”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을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분명 우리 각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과 동료들을 대하는 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헌납 기도문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주님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⁶

주님께서 자비를 간청하는 조셉 스미스에게 응답하심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저는 또한 조셉이 교회의 회원들과,⁷ 교회의 적들,⁸ 나라의 통치자들,¹⁰ 땅의 모든 나라에 대한 자비를 거듭 간청한 사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¹⁰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청했습니다.¹¹

일주일 후인 1836년 4월 3일 부활절에, 구주께서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교리와 성약 110편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집을 받아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고¹² 말씀하셨을 때, 조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비에 대한 이 약속은 분명 조셉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¹³ 넬슨 회장님께서 지난 4월에 가르치신 대로, 이 약속은 “오늘날 헌납된 모든 성전에 적용됩니다.”¹⁴

주님의 집에서 자비를 찾음

우리 각자가 주님의 집에서 자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그 중심에 “속죄소”를 두라고 처음 명하신 이래로 계속 그러했습니다.¹⁵ 성전에서 우리는 우리가 맺는 성약을 통해 자비를 발견합니다. 침례 성약에 더하여 성전 성약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결속해 주고, 넬슨 회장님께서 가르치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하는 “특별한 종류의 사랑과 자비”를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해 줍니다.¹⁶

우리는 가족에게 영원히 인봉되는 기회에서 자비를 발견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우리는 창조와 타락, 구주의 속죄 희생,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능력,¹⁸ 다시 말해 구원의 계획의 모든 부분이 자비를 나타낸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¹⁹ 구원의 계획은 행복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자비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¹⁹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성신에게 문을 열어 줌

저는 110편에 나오는 놀라운 약속, 즉 주님께서 성전에서 자비롭게 당신을 나타내시리라고 하신 약속에 감사합니다. 또한 조셉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자비를 간청하면 주님께서 자비롭게 당신을 나타내실 것임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자비를 간청했을 때 계시가 주어진 경험이 109편에 실려 있는데 그것이 최초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소년 조셉이 성스러운 숲에서 기도했던 것은 단지 어느 교회가 참된지 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했다. 내가 찾아가 자비를 구할 분은

그분뿐이었다.”²⁰ 어떤 이유에서든, 그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3년 후에 조셉은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사해 주[시도록] ... 전능하신 하나님께 ... 기도하며 간구”하자 모로나이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²¹

자비를 간청할 때 계시를 받는 이러한 방식은 경전에서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노스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²² 개심을 하기 시작한 라모나이 왕의 부친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알[기] ...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셨나이다.”²³ 우리가 이같이 극적인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금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성신의 증거를 느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²⁴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생각하면 물문경에 대한 간증의 문이 열림

이와 유사한 원리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이 모로나이서 10장 3~5절에 나옵니다. 진지한 기도를 통해 물문경이 참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간략히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비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가 어떻게 권유를 시작하는지 들어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²⁵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자신이 봉할 그 기록을 읽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에 관해 물문경의 가르침을²⁶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주님의 자비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²⁷

물문경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계획에 따라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²⁸ 모든 것이 그 완전한 구조로 회복된다는 엘마의 가르침이 사실일까?²⁹ 앰블레크의 말처럼, 구주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공의의 모든 실질적인 요구를 자비가 충족해 주고, “[우리들] 안전한 팔 안에 감싸” 줄 수 있을까?³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위해 고통을 겪으셨다는 엘마의 간증이 사실일까?³¹ 베냐민 왕이 가르친 것처럼 주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 또는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위하여” 대가 없이 속죄하셨을까?³²

리하이의 말대로,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일까?³³ 아빈아다이가 이사야의 말을 빌려 간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며,]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정말일까?³⁴

요컨대, 물문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이렇게 자비로운 것일까? 저는 그것이 참되며, 자비에 관해 평안과 희망을 주는 물문경의 가르침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그렇지만, 충실히 물문경을 읽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는 모로나이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³⁵ 저는 그런 고민을 잘 압니다. 수년 전 물문경을 처음 두 차례 읽었을 때, 저도 기도에 대한 즉각적이고 명확한 응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모로나이의 권고대로 물문경에서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설명하는 여러 방식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³⁶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마음에



성신의 평안을 느끼고, 물문경과 그 책에서 가르치는 자비의 계획이³⁸ 참됨을 알고, 믿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³⁷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자비의 계획과 그 계획을 기꺼이 실행하신 구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을 찾는다면, 거룩한 성전에서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께서 자비롭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신권 열쇠의 은사에 기뻐하십시오", 『리아호나』, 2024년 5월호, 121쪽 참조.
2. 러셀 엠 넬슨, "신권 열쇠의 은사에 기뻐하십시오", 121쪽.
3.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24.5.1, 복음 자료실.
4. 모든 성전 축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성약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다. 러셀 엠 넬슨, "세상을 이기고 심을 얻으십시오", 『리아호나』, 2022년 11월호, 96쪽 참조: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 또 하나의 예로, 성전 가먼트 착용에 대한 제일회장단의 다음 지침을 고려해 본다. "에비 의식에서 지시받은 대로 가먼트를 입는 성스러운 특권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킬 때, 구주께서 주시는 자비와 보호와 힘과 권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일반 지침서』, 26.3.3.2, 복음 자료실; 강조제 추가)
5. 교리와 성약 109:55-57.
6. 러셀 엠 넬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121~122쪽 참조.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성전에서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를 느낄 것입니다."
7. 교리와 성약 109:23 참조: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오니 당신 백성의 범법을 용서하시고, 영원히 지워 없애 주시옵소서."
8. 교리와 성약 109:50 참조.
9. 교리와 성약 109:54 참조. 또한 조셉은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다. "야곱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 시각부터 예루살렘이 구속을 얻기 시작하게 하시고, 속박의 멍에가 다윗의 집에서 꺾어져 벗어지기 시작하게 하시고, 유다의 자녀들이 당신께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하십시오."(교리와 성약 109:62-64)
10. 교리와 성약 109:68 참조.
11. 교리와 성약 109:69 참조. *Oxford English Dictionary*에는 자비가 "무력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보이는 관용과 연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mercy," oed.com). 자비는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 즉 그분의 **혜세**의 표현이다.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은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공덕과 상관없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12. 교리와 성약 110:7.
13. 개별적인 자비의 표현으로, 조셉과 올리버는 다음 말씀을 들었다. "보라, 너희 죄는 사함 받았으니, 너희는 내 앞에서 깨끗하도다. 그러므로 너희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교리와 성약 110:5)
14. 러셀 엠 넬슨, "신권 열쇠의 은사에 기뻐하십시오", 121쪽.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15. Bible Dictionary, "Tabernacle" 참조: "지성소에는 단 하나의 물품, 즉 언약궤만 있었다. ... 궤와 덮개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다. 그것은 아래에 있는 궤와 함께 유대교 율법에 알려진 가장 높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제단 역할을 했다. 속죄일에는 그 위에 속죄물의 피를 뿌렸다.(레위기 16:14-15)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었다.(출애굽기 25:22)"
16. 러셀 엠 넬슨, "영원한 성약", 『리아호나』, 2022년 10월호, 5쪽. 넬슨 회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영어에는 **혜세**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으며, 구약전서에서 **혜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번역어는 **자비**이다. 흠정역 성경의 구약전서에는 **혜세**라는 단어가 248회 등장하지만, 이에 대한 번역으로 **자비**[mercy]가 149회, **친절**[kindness]이 40회, **자애**[lovingkindness]가 30회 사용되었다.(Blue Letter Bible, blueletterbible.org/lexicon/h2617/kjv/wlc/0-1/ 참조)
17. 『일반 지침서』, 27.2 참조. 구주께서는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가르치신다.(요한복음 14:6 참조) 교리와 성약에는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도록 간청하는 구주의 간절한 기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아버지께 대한 변호자가 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아버지 앞에 너희 문제를 변호하고 있나니—

아뢰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의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러하오록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45:3-5)

18. 제프리 알 홀런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되심을 가장 좋아하시는 순간은 자비를 베풀 때, 그것도 자비를 기대하지 않거나 종종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실 때[입니다]."("포도원의 품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2~33쪽) 또한 교리와 성약 128:19 참조: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기쁨의 소리! 하늘에서 온 자비의 소리요, 땅에서 솟아난 진리의 소리요, 죽은 자를 위한 좋은 소식이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쁨의 소리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라."
19. 엘머서 42:15. 자비는 언제나 구원의 계획의 정수였다. 그리스도의 성역에 관한 다음 세 가지 경전 구절이 이를 설명해 준다. 니파이는 물문경의 첫 장을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보라, 나 니파이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니파이전서 1:20)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다. 어떤 이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구약전서의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이 구절을 더 많이 언급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Bible Project, "The Most Quoted Verse in the Bible," bibleproject.com/podcast/most-quoted-verse-bible/ 참조.)
신약전서의 누가복음에서, 천사는 노년의 엘리사벳이 장래에 침례 요한이 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자 이를 의심한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했다는 점을 기억한다.(누가복음 1:20) 사가랴는 마침내 말문이 열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는 메시아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음을 처음으로 공개 선언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러 오시"나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예언"했다.(누가복음 1:67~73; 강조제 추가)
20. 복음 주제 관련 글. "첫번째 시현 기록", 복음 자료실, 특히 1832년 기록 참조.
21. 조셉 스미스—역사 1:29. 교리와 성약 20편 5~6절에는 두 차례의 강력한 시현에서 회개의 역할이 설명되어 있다. 조셉은 자신이 "어떠한 큰 죄나 사악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나,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정죄받는 느낌을 가졌"으며 용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28, 29)
22. 이노스서 1:1-8 참조.
23. 엘머서 22:18. 엘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결과로, 엄청난 빛을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엘머서 36:17~20 참조) 제프리 알 홀런드 회장님은 엘마의 이 간청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런 기도는 비록 짧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심장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린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그 간청으로 귀결됩니다."(*Our Day Star Rising: Exploring the New Testament with Jeffrey R. Holland* [2022], 170-71)
24. 카일 에스 맥케이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셨다. "자주 회개한 조셉의 삶에서 저 또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하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61쪽)
25. 모로나이서 10:3.
26. 모로나이의 간청과 물문경의 첫 부분에 기록된 니파이의 말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니파이는 판에 기록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보라, 나 니파이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니파이전서 1:20)
27. 모로나이서 10:4.
28. 물문서 9:13 참조.
29. 엘머서 40:23: "영혼은 육신에게로 회복되겠고, 또 육신은 영혼에게로 회복될 것이라. 또한 각 사지와 관절이 그 몸으로 회복되리니, 참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리라."
30. 엘머서 34:16. 주님께서 이제껏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자비를 공의로부터 분리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 깊은 자비만으로 공의를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다.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사,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엘머서 42:15; 강조제 추가)



우리를 향한 구주의 자비로운 사랑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분께서 매우 실제적이고 고통스러운 공의의 요구를 겪으신 덕분이었다. 물론 이것이 그분께서 지니신 사랑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분명, 그분께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그리고 역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당신의 소망에 있다. (요한복음 3:16; 교리와 성약 34:3 참조)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즉 불가피하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에게 공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요구를 없애는 것으로 오해한다면, 그분의 속죄 희생이라는 선물과 공의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그분께서 겪으신 고통을 경시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을 속죄 희생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요소로 이해한다면 실망스러운 역설이 될 것이다. 공의의 완전한 요구를 똑바로 보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실제적인 요구를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다.

31. 앨마서 7:11~12.
32. 모사이어서 3:11.
33. 니파이후서 2:25.
34. 모사이어서 14:5.
35. 모로나이서 10:4.
36. 모로나이서 10:3.
37. 앤 러셀 벨라드 회장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알고, 믿고, 느끼는 것”에 대해 간증하라고 격려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리아호나』, 2023년 5월호, 107쪽)
38. 이 제언에서, 몰몬경이나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대체하는 “공식”을 제의하려는 의도는 없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계시는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처럼 “빠르게, 온전히, 단번에” 받을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처럼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받을 수도 있다. (니파이후서 28:30)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는 그러한 계시는 점차로, 그리고 부드럽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우리의] 영혼을 적[신다].’ (교리와 성약 121:45) 이러한 방식으로 계시를 받는 것이 더 일반적인 일이다.”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88쪽)



세르히오 알 바르가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나침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춘다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6세에 사랑스러운 조국 칠레의 프루티아르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삶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아름다운 칠레 파타고니아에서 대양과 강과 호수를 가로질러 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¹ 침례를 받은 뒤에는, 직장도 삶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진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²

자연을 보면, 연어는 강의 발원지에서 부화합니다. 연어는 생애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강을 따라 헤엄쳐 내려가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 연어의 발달에 필요한 영양과 생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가, 먹이처럼 생겼지만 영양가는 없는 화려한 낚싯바늘로 연어를 낚으려는 어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협을 피해 살아남은 연어들은 강력한 회귀 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 자기가 부화한 장소로 돌아가서는, 새롭고도 익숙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연어의 회유 행동을 여러 해 동안 연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어는 GPS와 같은 일종의 자기장 지도를 사용하여 방향을 잡고, 믿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³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가 떠난 하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연어에게 자기장 지도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지도가 있어서 하늘 집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⁴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춘다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⁵

우리의 신성한 품성과 운명

가족 선언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⁶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가 해야 할 큰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화 중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고 여러 차례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탄이 와서는 모세를 유혹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모세는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떠올리고는 그 유혹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⁷ 모세는 이 진리를 통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낚싯바늘들이 실제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종종 마음을 사로잡는 이 함정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수이신 구주의 길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낚싯바늘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개종자였을 때, 어느 일요일에 신권회 공과를 가르치던 중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어렵사리 공과를 마쳤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제가 공격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을 향했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품고 말이지요.

바로 그 순간, 한 신권 소유자가 오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권유하기를, 방금 공과에서 경험한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일에 대해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당시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그는 내게 중요한 자니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입니다. 넬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으로 인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돕고자 노력하실 때 절대 지지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자비로운 인내심도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⁸ 우리의 신성한 본질과 하나님과의 성약 관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신성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분을 취할 필요성

연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양분을 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영양실조로 사망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양분을 취해야 합니다.⁹ 기도, 경전, 성전, 정기적인 일요일 모임 참석은 영적 식단의 필수적인 메뉴입니다.

1956년 11월에 리카르도 가르시아 형제가 침례의 물가에 들어섰습니다. 그분은 제 조국 칠레에서 최초의 교회 회원이 되셨습니다.¹⁰ 가르시아 형제는 작고하기 하루 전에 가족과 친구들과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선교사들이 내게 권하기를, 내 가족과 함께 행복을 찾으라고 했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온 칠레 국민에게 전하거라, 복음은 행복이라고.”¹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된 가르시아 형제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가 보여 준 제자로서의 모범은 저를 비롯한 여러 세대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온 인류에게 축복을 전하기를 갈망합니다.”¹²

우리의 하늘 집으로 돌아감

우리 각자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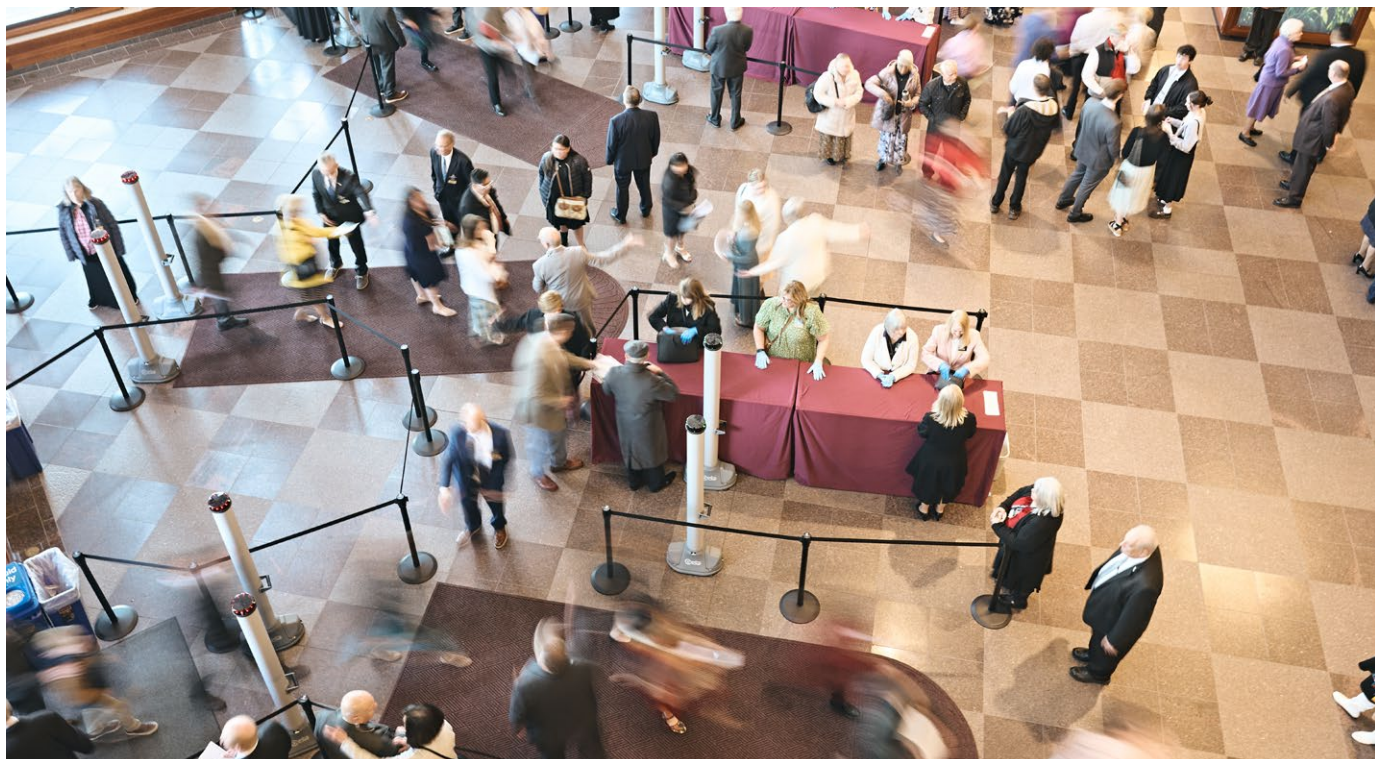
인도하는 나침반이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길입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성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약을 맺고 난 뒤에는 종종 물줄기를 거슬러 헤엄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험, 낙담, 유혹, 역경은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힘을 시험할 것입니다.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이해하시며, 언제나 나눠 지고 싶어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십니다.¹³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¹⁴ 그분의 속죄 희생으로 인해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분은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¹⁵

현세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완전히 잊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함으로써 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¹⁶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성찬을 취하면서, 용서받은 과오 대신 그분을 기억합니다. 이 의식은 예배와 영적 발전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¹⁷ 일요일이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¹⁸,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쉬게 하고, 몸과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성전, 곧 주님의 집에 갈 때 그분을 기억합니다. 성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정확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곧 그분께서 성약의 중심이시며,¹⁹ 이 성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인 영생으로 이끈다는 지식입니다.²⁰

저는 성전에 참석하면서 위안을 얻었으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휘장 양편에 있는 사람들과 하늘의 유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제 어린 자녀들 중





제일회장단



덜린 에이치 옥스
제1보좌



러셀 엠 넬슨
회장



헨리 비 아이어링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랜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이비드 지 렌랜드



게릿 더블유 공



울리세스 소아레스



패트릭 키아론

칠십인 회장단



칼 비 쿡



호세 에이 테제이라



에스 마크 파머



마커스 비 내쉬



마이클 티 링우드



아놀포 발렌주엘라



에드워드 듀브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제1보좌



제럴드 코세
감리 감독



엘 토드 버지
제2보좌

감리 감독단

교회 본부 직원

초등회



에이미 에이 라이트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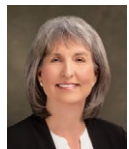


수전 에이치 포터
회장



트레이시 와이 브라우닝
제2보좌

상호부조회



제이 아네트 데니스
제1보좌



카밀 앤 존슨
회장



크리스틴 엠 이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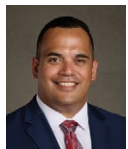
주일학교



채드 에이치 웹
제1보좌



폴 브이 존슨
회장



가브리엘 더블유 리드
제2보좌

청녀



태머라 더블유 루니아
제1보좌



에밀리 벨 프리먼
회장



안드레아 무노스 스페너스
제2보좌

청남



브래들리 알 월콕스
제1보좌



스티븐 제이 런드
회장



마이클 티 넬슨
제2보좌

칠십인 총관리 역원
(알파벳순)



마르크스 에이
아이두카이티스



루벤 비
알리아우드



호세 엘 알론소



호르헤 엠
알바라도



존 디 에이머스



스티븐 알
뱅거터



로널드 엠
바르셀로스



스티븐 시 발로



더블유 마크
배셋



데이비드 에스
벡스터



호르헤 티
베세라



랜들 케이
베넷



한스 티 보움



마크 에이
브레그



케빈 지 브라운



데이비드 엠
버크너



매튜 엠 카펜터



그레고리오 이
카시아스



아로우두 비
카바우칸치



최윤환



크레이그 시
크리스튼슨



아마드 에스
코빗



발레리 비
코르돈



호아킨 이
코스타



비 코리
퀴벨리에



마이클 체슬라



로버트 엠
데인즈



마시모 데 페오



션 더글러스



케빈 알 던컨



마이클 에이 던



알렉산더 두슈쿠



마크 디 에디



아이 레이먼드
에그노



제이 키모
에스플린



제임스 이
에번슨



브릭 브이 에어



오자니 파리아스



에두아르도
가바렛



잭 엔 제라드



클라크 지
길버트



리카르도 피
히메네스



크리스토프 지
지로캐리어



파트리시우 엠
지우프라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테일러 지
고도이



디 마르탱 구리



브룩 피 헤일즈



에런 티 홀



케빈 에스
해밀턴



엘런 디 헤이니



마티아스 헬드



칼 디 허스트



매튜 에스
홀랜드



브라이언 제이
홀스



데이비드 피
호머



윌리엄 케이
잭슨



제러미 알 야기



켈리 알 존슨



피터 엠 존슨



김현수



외르크
클레빈가트



조니 엘 코흐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알프레드 경구



페드로 엑스
라레알



우고 이
마르티네스



클레멘트 엠
마츠와고타타



제임스 더블유
맥קי 샴세



존 에이 맥쿤



카일 에스
맥케이



앨빈 에프
메리디스 샴세



피터 에프 웨르



휴고 몬토야



아이작 케이
모리슨



티에리 케이
무툼보



케이 브렛
네트레스



아데카이언 에이
오제다이런



라이언 케이
올슨



에두아르도 에프
오르테가



아틸란드 파울라
파렐라



케빈 더블유
피어슨



앤소니 디
퍼킨스



앨런 티 필립스



폴 비 파이프



존 시 핑그리
이세



라파엘 이 피노



제임스 알
래스먼드



카를로스 지
레비오 이세



산디노 로만



에드워드 비 로



시루 슈밀



조너선 에스
슈미트



스티븐 디
섬웨이



바이아나
시카히마



데네우송 실바



번 피 스텐필



마이클 비
스트롱



벤저민 엠 지
타이



브라이언 케이
델일러



마이클 존 유 테



세르히오 알
바르가스



모이세스
비아누에바



후안 파블로
비아르



다카시 와다



타니엘라 비
와콜로



앨런 알 위커



스코트 디
와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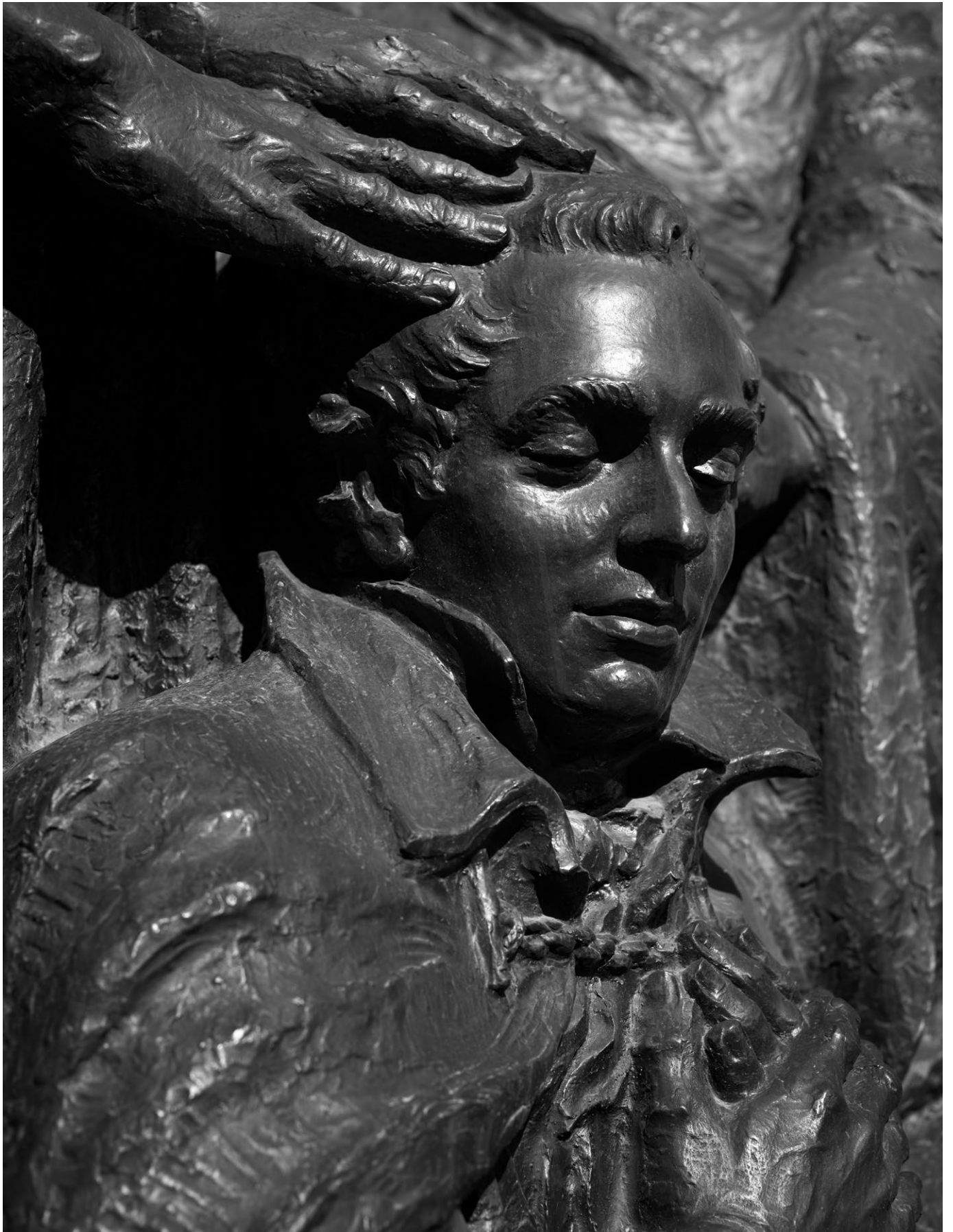
치 흥 (샘) 웅



완강 우



호르헤 에스
세바요스



두 아이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이 있어서, 그들은 평생 동안 매일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녀들의 삶에서 치유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행복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척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고난은 잠시 뿐”¹⁹일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제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곤 합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프리 알 홀런드 회장님께서 가르치셨듯, 언젠가 저희 자녀들이 “놀랄 만큼 아름다운 완전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앞에 영화롭고 당당하게 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²² 우리는 성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로 인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며, 현존하는 모든 어둠이 빛으로, 모든 의심이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희망이 존재합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관심을 쏟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지지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두시도록 권유합니다. 이렇게 할 때, 유혹과 상처 입음과, 자기 연민이라는 낯선바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굳건하며, 변함없이 설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이겨 낼 것이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²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나는 칠레에서 물고기 양식을 개발하는 공학자로 20년 이상 근무했다.
2. 앨마서 30:44.
3. 스티브 런더버그, “Magnetic Pulses Alter Salmon’s Orientation, Suggesting They Navigate via Magnetite in Their Tissue,” Oregon State University Newsroom, May 2, 2020, oregonstate.edu 참조.
4. 요한복음 14:6.
5. 러셀 엠 넬슨,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복음 자료실.
7. 모세서 1:4~13 참조.
8. 러셀 엠 넬슨, “영원한 성약”, 『리아호나』, 2022년 10월호, 6쪽.
9. 델린 에이치 옥스, “영을 양육함”,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10~19쪽 참조.
10. 트랜트 톤, “Builders and Blessings: How Early Latter-day Saint Pioneers Shaped the Growth of the Church in Chile,” Church News, Feb. 18, 2025, thechurchnews.com 참조.
11. 리카르도 가르시아 형제의 딸인 페를라 가르시아 자매와 개인적으로 접견한 내용.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26쪽.
13. 이사야 53:3.
14. 요한복음 16:33.
15. 교리와 성약 58:42 참조.
16. 닐 엘 앤더슨, “회개하여 ……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라”,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40~43쪽 참조.
17. 주제 및 질문, “성찬”, 복음 자료실 참조.
18. 마가복음 2:27.
19. 러셀 엠 넬슨, “영원한 성약”, 4~11쪽 참조.
20. 교리와 성약 14:7.
21. 교리와 성약 121:7.
22. 제프리 알 홀런드, “깨진 그릇과 같으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2쪽.
23. 히브리서 3:6 참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¹

동방박사로 일컬어지는 이 세 명의 박사들은 현명하게도 메시야를 찾아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경배, 즉 예배는 그분 앞에 있드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²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라고 하면 으레 사적으로나 교회 모임에서 종교적 헌신을 보이는 방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우리 구주를 예배하는 것에 대해 숙고했을 때, 다음 네 가지 개념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를 이루는 행동. 둘째,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주는 태도와 감정. 셋째,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의 유일무이함. 넷째,



독일

우리가 예배하는 거룩한 분들을 본받을 필요성.

첫째, 우리의 예배를 이루는 행동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예배의 형태 중 하나는 헌납된 장소에 모여 헌신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³ 이것은 물론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의 신성함을 갖춘다면 헌납되지 않은 장소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날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 형편에 따라 가장 좋은 복장을 합니다. 그것은 사치스럽지 않고 하나님께 존경과 경건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단정한 차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품행도 경건하고 공손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참여함으로써 예배합니다. 찬송가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으로써 예배합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예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 곧 주의 날에는 네 죄를 네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네 헌물과[시간, 재능 또는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여 바치는 제물’을 의미함] 네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⁵ 우리는 악단처럼 즐겁게 해 주거나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기억하고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기]”⁶ 위해서 모입니다.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에서 패트릭 키아론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함께 모이는 것은 단지 성찬식에 참석하고 해야 할 일을 해치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석은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⁷

우리의 안식일을 주님과 그분의 목적에 바치는 것 자체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 해 전에, 당시 장로였던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니까? 어릴 때 저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행동과 태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을 경전에서 배웠습니다.[출애굽기 31:13; 에스겔 20:12, 20 참조]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은 더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어떤 활동이 안식일에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단순히 저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드리고 싶은가?’”⁸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 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적절하고도 특별하게 그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만, 매주 그분의 부활을 포함하는 속죄의 성찬 상징물을 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기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성찬을 취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봉사하고, 지지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⁹ 함께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힘과 유익을 줍니다. 흥미롭게도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영적인 삶을 전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우선시하거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낮습니다.¹⁰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는 예배와 신앙으로 서로를 강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에서 하는 일상의 예배 행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할지라도 네 서약을 날마다 어느 때든지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¹¹ 현명하게도 한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심오한 방법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 삶에 맞이하여 그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마와 엠엘레크는 자신들의 회당에서 쫓겨난 조램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¹²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배로서의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골방과 너희의 은밀한 장소에서 또 너희의 광야에서 너희의 영혼을 쏟아 내어야만 하느니라.

또한 너희가 주께 부르짖지 아니할 때는, 너희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 끊임없이 그에게 기도하는 데 너희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라.”¹³

또한 그들은 경전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고, 자비로운 행동과 봉사를 하고, 성신을 받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고 말했습니다.¹⁴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두 번째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에 내재된 태도와 감정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예배를 그저 또 하나의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새로운 기쁨을 불러넣는 일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예물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¹⁵ 그분은 이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예배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속죄 희생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 속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셨음을 통렬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은 순종적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¹⁶

예배는 이 완전한 모범을 따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¹⁷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함에 이르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그분께] 희생으로 드린다”면, 그분은 다시금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침례하고 당신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¹⁸

셋째, 우리 예배 대상의 유일무이함

고리와 성약 1편에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규탄하십니다.

“그들이 나의 의식에서 벗어났으며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걷나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¹⁹

하나나,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세 명의 유대인 청년의 모범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었습니다. 이후에 이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자, 왕은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하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²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용감한 대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²¹

풀무불은 너무나 뜨거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속에 던져 넣은 사람들을 태워 죽였으나, 그 세 청년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²² 그들은 여호와께서 구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그들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분께



남아프리카공화국

충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 대한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됩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즉 그분께 저야 할 모든 책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보다 어떤 단체나 대의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도 다음과 같이 그들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²³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²⁴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본받을 필요성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가장 훌륭하고 진정한 예배의 형태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보인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본받는 것, 즉 그분들의 속성과 성품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속담처럼 모방이 가장 진심 어린 아침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을 본받는 것이 가장 진심 어린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예배 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서 인용한 키아론 장로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에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약의 길,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길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서약함으로써 그 길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는 구주의 은혜의 사자인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²⁵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집에서 추가적인 신권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더욱 성결하게 됩니다. 성전 의례와 의식은
승고한 형태의 예배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신권
의식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접하게 됩니다.”²⁶ 이 권능은 우리가
봉사하고 축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신성한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약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안에서
성결하게 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²⁷

우리도 고대의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²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엎드려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할”²⁹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1~2; 강조체 추가.
2. 마태복음 2:11 참조.
3. 교리와 성약 59:9.
4. 교리와 성약 59:12, 각주 b
5. 교리와 성약 59:12.

6. 교리와 성약 88:78 참조.
7. 패트릭 키아론, “기쁨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36쪽.
8. 러셀 엠 넬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30쪽.
9.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12~27 참조.
10. “Stats for Sermons: Most Christians Have Entirely Private Spiritual Lives,” Barna Group, Feb. 21, 2025, barna.com/trends/stat-download-spiritual-lives 참조.
11. 교리와 성약 59:11.
12. 엘마서 34:38; 또한 엘마서 32:10~11 참조.
13. 엘마서 34:26~27; 또한 엘마서 33:3~11 참조.
14. 엘마서 33:12~23; 34:8, 28~39 참조.
15. 마태복음 22:36~38; 마가복음 12:28~30 참조. 예수께서는 둘째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지 않으셨으나 자발적으로 말씀하셨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 또한 마가복음 12:31 참조)
16. 마태복음 26:39; 또한 마가복음 14:36; 누가복음 22:42 참조.
17. 예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18. 제3니파이 9:20 참조.
19. 교리와 성약 1:15~16.
20. 다니엘 3:15.
21. 다니엘 3:17~18.
22. 다니엘 3:28.
23. 조셉 스미스—역사 1:19; 또한 이사야 29:13; 누가복음 6:46 참조.
24. 요한복음 17:3; 또한 출애굽기 20:2~3; 모사이사서 12:33~35; 교리와 성약 20:17~19 참조.
25. 니파이후서 31:17 참조.
26. 러셀 엠 넬슨, “영원한 성약”, 『리아호나』, 2022년 10월호, 10쪽.
27. 교리와 성약 84:19~21 참조.
28. 제3니파이 11:17.
29. 교리와 성약 18:40.



몽골

일요일 오전 모임

2025년 4월 연차 대회



82쪽

만물을 회복하실 때

(사도행전 3:21)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후기에 그분의 복음과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86쪽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부름과,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구주를 만나기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디 셴웨이 장로
칠십인 정원회



90쪽

여러분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짐이 아닌 기쁨입니다

회개하라는 권유는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보여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태머라 더블유 루니아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94쪽

보상으로 주어지는 축복

삶의 많은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의 무한한 축복의 손길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



97쪽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회복

우리는 부활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성장, 그리고 소속감을 발견합니다. 이는 변함없이 진실되며 기쁨 가득하고 행복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101쪽

성약의 제자로서 얻는 기쁨

성약의 제자로서 행하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강화되고, 기쁨이 커지며, 우리의 영원한 관점이 더욱 넓어집니다.

존 에이 맥쿤 장로
칠십인 정원회



104쪽

필멸의 삶을 위한 하늘의 도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우리 필멸의 여정 전반에 걸쳐 우리를 인도해 줄 다른 도움이 있습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만물을 회복하실 때 (사도행전 3:21)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후기에 그분의 복음과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오늘로부터 195년 전이었던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들이 이 중대하고도 기쁜 순간을 위해 소규모로 모였습니다. 성찬 의식이 집행되었고, 성신의 은사가 부여되었으며, 신권 의식이 행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면서 모든 참석자에게 풍성한 영이 축복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재조직하시고자 계시로써 24세의 조셉 스미스를 교회의 지도자로,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교회의 장로”로¹ 지명하셨습니다.

세계사에서 이 하나의 사건이 지니는 중요성과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해 우리가 숙고하는 동안 성신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²

첫번째 시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은 일련의 기적적인 경험들이 쌓여 최고조에 이르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중 첫 번째 경험은 교회가 회복되기 10년 전 뉴욕주 북부에서 일어났습니다.

1820년 봄에 조셉 스미스라는 한 어린 소년은 기도하기 위해 집 근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해 궁금해했고, “모든 교[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아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를 알기” 원했습니다.³ 조셉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⁴

그 기도를 할 때 조셉은 단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아내서 그 옳은 일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조셉은 받은 응답에 따라 행하겠다고 결심한 채 신앙으로 구했습니다.⁵

“그의 [진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에게 나타나셨으며,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만물[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사도행전 3:21) 이 시현을 통해서 그는 신약 시대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기

사도들의 사망 이후에 지상에서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⁶ 이후에 조셉 스미스는 구주의 고대 교회의 교리와 권세, 성약과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조셉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습니다.”⁷

이 시현과 그 이후에 이어진 몇 차례의 신성한 경험들을 통해,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염려하시며,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와 아들께서 독립적으로 계시는 각각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포함한 신화의 속성과, 그분들의 품성과, 그분들의 완전함에 대한 핵심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아들이자 육의 아들이십니다.⁸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지니신 존재이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⁹

저는 아버지와 아들께서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신 이 사건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한 [장엄한] 만유의 회복”의¹⁰ 시작이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물문경

구주의 회복된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될 때까지 있었던 일련의 기적적인 경험 중 두 번째는 물문경의 번역과



멕시코

출판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고대의 기록, 즉 물몬경—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번역했습니다.] ... 이 성스러운 기록의 한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서반구에 있는 백성들에게 친히 성역을 베푸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물몬경은 삶의 목적에 대해 가르쳐 주고 그 목적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해 [줍니다]. 물몬경은 성경과 짝을 이루는 경전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며, 그분께서 우리 삶에 대해 신성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¹¹

구주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물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¹² 물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며, 성경의 참됨을 확인해 주고, 성경에서 제하어진 명백하고 귀한 것들을 되살려 줍니다.¹³

회복된 신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구주께서 설립하셨던, 그분의 신성한 권세와 교리, 성약, 의식이 있었던 초기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졌다고 가르칩니다. 후기에 일어나리라 예언된 만물의 회복의 일환으로, 고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직접 신권 권세를 부여했고, 그에게 신권 열쇠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의 회복된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될 때까지 있었던 일련의 기적적인 경험 중 세 번째 경험입니다.

신권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¹⁴ 수 있습니다. “신권 열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신권의 사용을 지시하는 권세입니다.”¹⁵

아버지와 아들의 지시에 따라, 부활한 침례 요한은 1829년에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위한 권세를 회복했습니다.¹⁶ 그해에,¹⁷ 본래의 십이사도 중 세 명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 직분과 그 외 신권 권세 및 열쇠들을 회복했습니다.¹⁸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6년이 지난 후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모세와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조셉에게 후기에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권세를 추가로 맡겼습니다.¹⁹

모세는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를 맡겼습니다.²⁰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기며 아브라함의 성약을 회복하는 일을 위임했습니다.²¹

엘리야는 인봉 권능의 열쇠를 맡기면서, 가족을 죽음 너머의 영원한 관계로 결속시키는 의식 등 지상에서 집행하는 의식들을 영원히 유효하게 하는 권세를 부여했습니다.²²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되다

물몬경을 번역하면서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설립되리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조셉에게 바로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라고 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써 ... [그]가 나아가 이곳 지상에 다시 한번 [그분]의 교회를 조직해야 할 정확한 일자를”²³ 조셉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신권이 회복되고 물몬경이 출판된 후에야 교회는 적절한



오스트레일리아

순서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1830년 3월 26일에 물몬경 초판이 출판되었고, 4월 6일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머리 된 모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그분의 무한한 속죄와, 그분의 실제적인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사도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신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과 그분의 교회로 나아와 성신과 구원 의식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얻으라고 권유하고 계[습니]다.”²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195년 전 오늘, 주님의 회복된 교회가 조직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와 아들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야 했고, 물몬경이 번역되고 출판되어야 했으며, 신권 권세와 열쇠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여 굴러 나아가 온 세상을 가득 메울 돌에 관한 꿈을 해석했습니다.²⁵ 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일 년 후에,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하나님 왕국의 열쇠가 땅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위임되었”으며,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굴러 나아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듯²⁶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간증합니다. 구주의 회복된 교회는 전 세계에 설립되고 있으며, 이 교회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²⁷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후기의 주님의 사업은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의 초점이며, 선지자, 제사장 및 왕들이 특별한 기대를 갖고 언급했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예감과 즐거운 예감으로 고취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이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했[습니다.]”²⁸

이 가장 위대한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는 “여러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의 전체적이고도 철저하며 완전한 연합과 결합이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드러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결코 드러나지 아니[한] ... 것들이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 드러날 것입니다.”²⁹

선지자 조셉은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어느 경륜의 시대에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와 계명하에 신권에 의해 요구된 모든 의식과 의무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존재하게 될 것이며, ...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³⁰

약속과 간증

저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누구에게든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소식일 “좋은 소식”의³¹ 기본 요소를 요약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기에 그분의 복음과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메시지에 대해 배우고 이것이 맞는지 시험해 보라고 권유드립니다. 저는 “회복의 메시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신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목적은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증거를 [성신의 권능을 통해] 축복으로 얻을 것임”³² 약속합니다. 어린 조셉 스미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고 그에 따라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신성한 증거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의 능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그분의 육으로 난 독생자이심을 간증하며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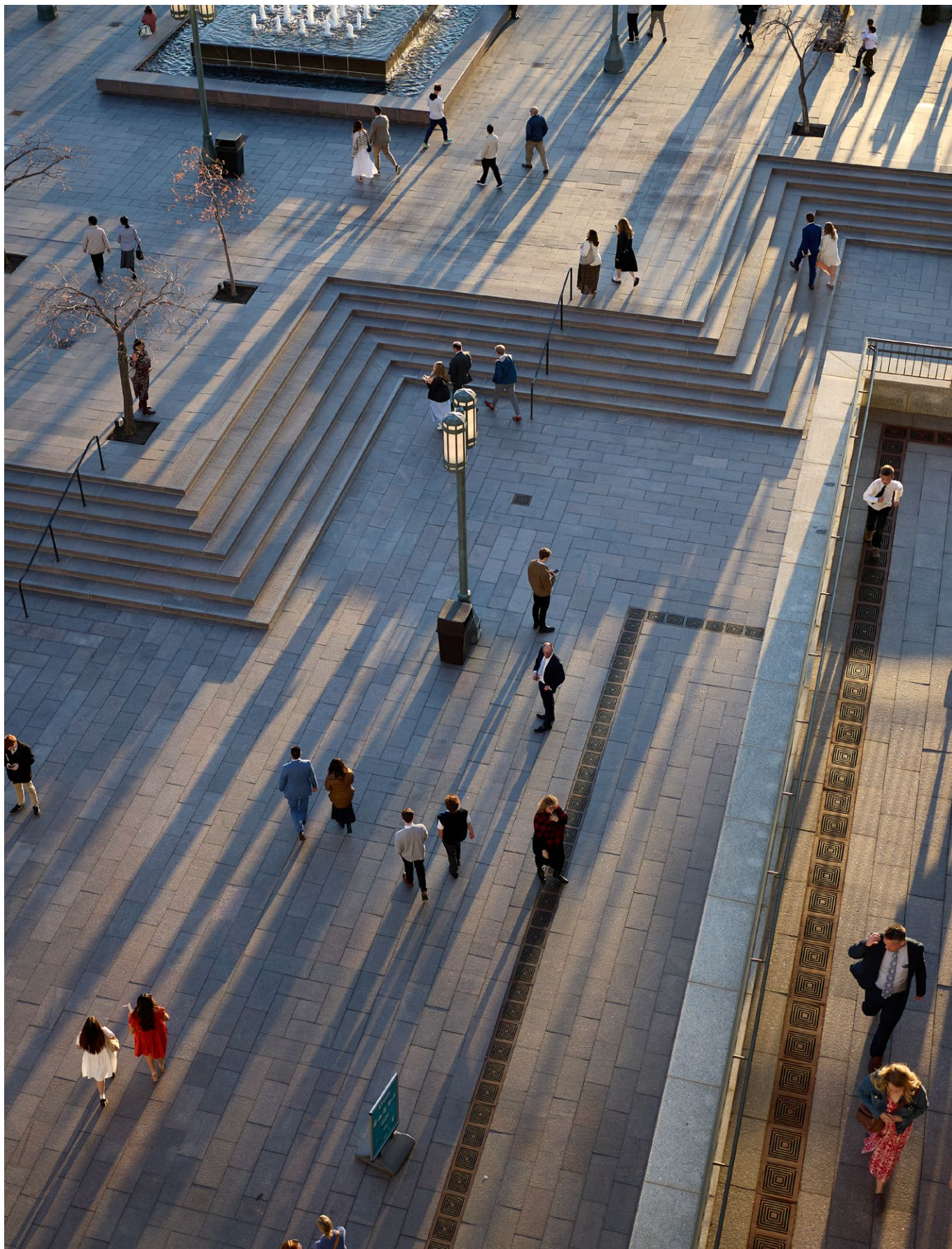
아버지와 아들께서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후기에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간증합니다.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구주를 대신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신권 권세가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참되다는 저의 확실한 간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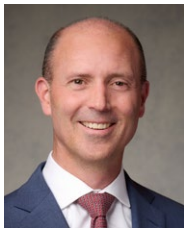
주

1. 교리와 성약 21:1;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8쪽 참조.
2. 나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1980년과 2020년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발표한 선언문들을 많이 참조했다. 다음을 참조한다. “성명서”, 『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79~81쪽;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복음 자료실.
3. 조셉 스미스—역사 1:18.
4.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복음 자료실 참조.
5. 조셉 스미스—역사 1:11~1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믿음으로 구하고”,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4~97쪽 참조.
6.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복음 자료실.
7. 조셉 스미스—역사 1:17.
8. 니파이전서 11:18~21; 교리와 성약 93:11~14, 21 참조.
9. 교리와 성약 130:22.
10. 교리와 성약 27:6.
11.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복음 자료실.
12. 신앙개조 제8조.
13. 니파이전서 13:40 참조.
14.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3.4, 복음 자료실.
15. 『일반 지침서』, 3.4.1.
16. 교리와 성약 13:1 참조.
17. 교리와 성약 18:9; 27:12~13 참조; 또한 Revelation Book 1, 24, josephsmithpapers.org 참조.
18. 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19. 교리와 성약 110:11~16 참조.
20. 교리와 성약 110:11 참조.
21. 아브라함서 2:9~11 참조.
22. 교리와 성약 128:9~10 참조.
23. 교리와 성약 20편 머리말.
24.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복음 자료실.
25. 다니엘 2:28, 35, 44 참조; 또한 1~45절 참조.
26. 교리와 성약 65:2.
27. 에베소서 1:10.
2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513쪽.
29. 교리와 성약 128:18.
3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511쪽.
31. 경전 안내서, “복음서”.
32.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복음 자료실.



스페인





스티븐 디 셴웨이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부름과,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구주를 만나기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복도에 서 있을 때, 닐 엘 앤더슨 장로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새로운 총관리 역원으로 막 부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니다. 마치 제가 느끼는 부족함을 눈치채신 것처럼,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음, 여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남자가 있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된 선지자이자 선견자이시구나.”

그러자 앤더슨 장로님이 속삭이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셴웨이 장로님. 5, 6년 정도면 나아질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청받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삶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교회 부름까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¹ 넬슨 회장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영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약속에 따라, 우리는 부름, 성역, 성전 예배, 영의 속삭임에 따르기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 구주를 만나기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²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의 일에 참여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성전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이 순간의 장엄함”³ 속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기꺼이 참여할 영혼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봉사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지만 봉사가 쉬운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성약을 지키는 제자인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과제를 제쳐 두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사심 없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으로 [당신을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상은 클 것이요, [그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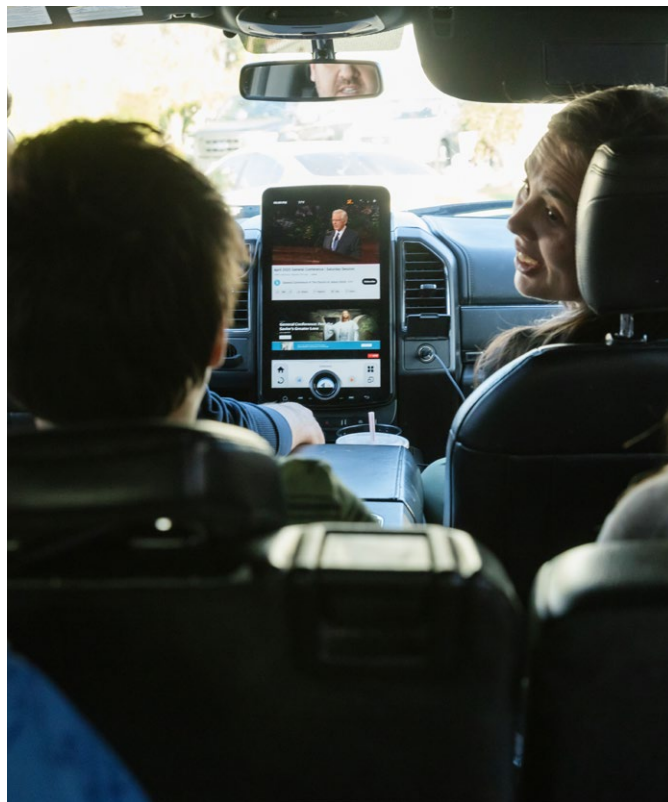
영광은 영원하리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⁴ 봉사하라는 권유에 ‘예’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⁵

저는 대학에서 화학 공학을 공부하면서, 또 일하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독신 와드에서 활동 계획자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악몽과도 같은 부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처음에는 지루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활동에서 아름다운 한 여성이 제가 아이스크림 담는 모습을 보고는 제게 반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세 번이나 다시 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그녀는 2주 후에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을지 모르고 청혼한 사람이 저였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제가 그 부름을 거절했다면 아내 하이드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의 참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큰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는 보라, 나는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 모두에게 큰 축복으로 복을 내릴 것이요.”⁶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때 어떻게 축복을 받고 구주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세 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향해



미국

발전해 갑니다.⁷

우리는 창조의 기사에서 이 방식을 배웁니다. 각 날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발전을 인정하셨습니다.⁸ 그분은 일이 완료되었다거나, 완벽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발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좋았습니다.⁹

부름이 개인의 가치나 합당성을 결정하거나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과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성장합니다.¹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전을 기뻐하시며,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때로는 부름을 위해 봉사할 힘이나 수단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¹¹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나 경전 공부같이 의미 있는 방법들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간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봉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¹²

둘째, 봉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성약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는 성약은 개인적으로 맺지만, 이 성약이 실천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입니다.¹³ 부름은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¹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맺은 성약에 따라 살기를 원하여 봉사할 때, 한때는 의무적이고 힘겨워 보였던 봉사가 기쁨과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¹⁵

의식은 그것이 하늘의 체크리스트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과 관련된 성약에 따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 있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봉사하기를 주저하는 마음, 또는 봉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실지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실지를 묻기 시작할 때 가속화됩니다.¹⁶

셋째,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경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니, 이는 [우리가] 영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과 권세로 가르칠 수 있게 하려 함이었더라.”¹⁷ 얼마나 멋진 거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나 무능력은 부름을 주거나 받아들이는 주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참여하는 데 완벽한 성구나 뛰어난 재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에스터 왕후는 자신의 나라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초기 교회를 이끌지 못했을 것이며, 조셉 스미스는 회복의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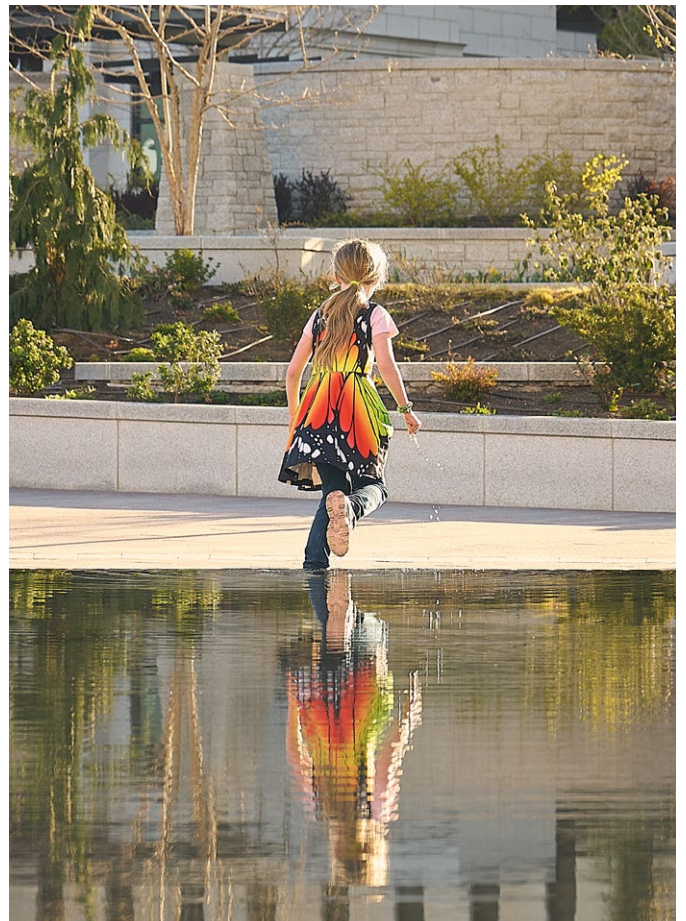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기 위해 신앙을 행사할 때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 의한 것인 줄을 ...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¹⁹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점진적으로 들어 올리셔서,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²⁰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헌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화롭게 하십니다.²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할 때, 그분은 우리를 성결케 하십니다.²²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봉사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준비를 갖추 때까지 은혜 가운데 성장합니다.”²³

다른 이들이 부름의 은사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구주 앞에 설 때 그분께서 무엇을 물으실지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한 가지 질문은 “너는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일 것입니다.²⁴ 부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성스러운 은사입니다.²⁵ 저는 지도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각자가 부름받지 않은 이들을 더 의식적으로 찾아보도록 권유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존은 감독님이 찾아와 주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 말했을 때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존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존은 금연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돕고 있음을 느꼈습니다.²⁶

그리고 불과 3주 후에 스테이크 회장님이 존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를 감독단에서 봉사하도록 불렀습니다. 존은 깜짝 놀랐습니다. 존은 스테이크 회장님에게 자신이 이제 막 담배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부름이 의미하는 바가 그가 일요일마다 프로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전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면,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여겼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의 영감 어린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존 형제님,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하겠습니다.”

존은 봉사를 위한 이러한 희생이 자신과 가족에게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²⁷

저는 우리가 제한된 시각으로 인해, 필멸의 관점에서 보기에 가능성이 적거나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부름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혹은 발전의 교리보다 성과 중심의 문화에 더 관심을 두고, 구주께서는 가능성이 적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키우신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일지 모릅니다.²⁸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 행하기를 배울지이다”라는 경전에 담긴 명령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²⁹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지도자와 부모가 그들이 돌보는 이들에게 스스로 배우고 행하는 것을 허용할때, 그들은 꽃을 피우고 번성합니다.³⁰ 충실한 회원에게 또 다른 부름을 하나 더 주는 게 쉬운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원이 부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더 훌륭한 방법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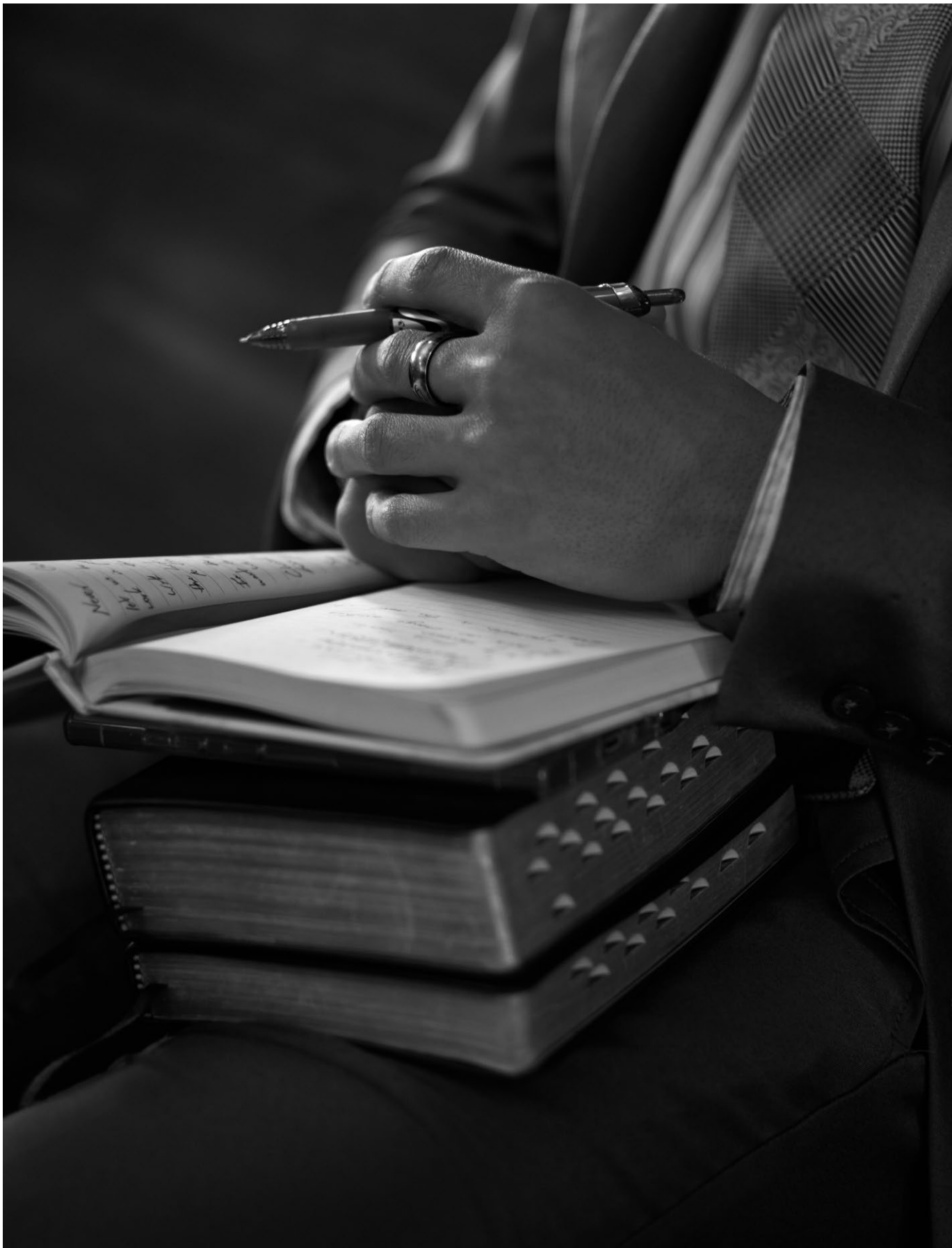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곳에 계신다면, 병자를 방문하시고 주일학교 반을 가르치시고 상심한 청년 곁에 앉으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몸소 자신의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³¹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고 배우게 하는 이 원리에 따르시기에, 우리를 그분의 자리에 대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면 “주님을 대표[함]”³² 권리와 특권,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봉사할 때³³ 우리의 봉사는 기쁨이 됩니다. 공과나 모임, 성역 방문 또는 활동을 마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더 기억하게 된다면, 이 일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구주를 대표하고자 진심으로 노력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됩니다.³⁴ 그것이 우리 각자가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성스러운 순간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우리가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땅끝까지 미치[는] [그분의] 음성”이심을 간증드립니다.³⁵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121쪽.
2. 교리와 성약 4:2~4 참조.
3. 러셀 엠 넬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121쪽.
4. 교리와 성약 76:5~6.
5. 요한복음 10:10 참조.
6. 교리와 성약 21:9.
7. 교리와 성약 88:19.
8. 창세기 1장 참조.
9. 구주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적은 일”의 책임을 맡긴다. 주인은 각 종이 “많은 것”의 주인이 되어 가는 발전 과정에 더 집중했고, 자기 재산을 돌려받는 일에는 덜 관심을 두었다. 두려워하고 일하기를 꺼린 종은 정죄를 받고 진보하지 못한 상태로 남겨졌다.(마태복음 25:14~28 참조)
10. 누가복음 21:19 참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의로운 일이 영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2.0”, [전 세계 청년 성인 영적 모임, 2024년 11월 3일], 복음 자료실)
11. 교리와 성약 10:4 참조.
12. 모사이야서 4:24 참조.
13. 러셀 엠 넬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결코 잊지 않을 교훈”, 『리아호나』, 2021년 5월호, 79쪽: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 돕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분은 우리를 가족이라는 형태로 지상에 보내시고 와드와 스테이크를 조직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분은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고 성역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서 떨어져 고립되어 있다면 그분의 행복의 계획은 좌절될 것입니다.”
14. 갈라디아서 6:2; 또한 모사이야서 18:8~9 참조.
15.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봉사의 부름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라는 부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부름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7쪽)
16. 헨리 비 아이어링, “Should a Latter-day Saint Sell a Product When Its Use Violates the Word of Wisdom?”, *Ensign*, Apr. 1977, 30 참조.
17. 모사이야서 18:26; 또한 모사이야서 27:5 참조.
18. 니파이후서 3:13, 24 참조.
19. 야곱서 4:7.
20. 이사야 40:29~31; 고린도후서 12:9 참조.
21. 마태복음 14:15~21 참조. 많은 군중을 먹이기 위해 비록 변변찮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바쳐졌지만, 구주께서는 그 현물을 감사히 받아들이시고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셨다. 이 기적의 위대한 교훈 중 하나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넉넉하다는 것이다!
22. 희생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신성하거나 거룩하다는 의미의 *sacer*와, 만들다라는 의미의 *facere*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때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히라맨서 3:35; 교리와 성약 132:50 참조)
23. 제3니파이 27:14.
24. 교리와 성약 15:6; 16:6; 18:10~16 참조.
25. 모로나이서 7:2;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4.1, 복음 자료실 참조.
26.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참조.
27. 개인적인 경험과 서신, 2025년 1월 4일, 가명을 사용함.
28. 마태복음 10:5~8; 누가복음 10:1~9; 『일반 지침서』, 4.2.6 참조.
29. 교리와 성약 107:99; 강조체 추가; 2024년 12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와의 대화에서 인용함.
30. 조셉 스미스—역사 1:20 참조. 우리 청소년은 교회에서 비단 미래의 지도자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도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끌 수 있다. 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리노이 시카고 선교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뛰어난 제자 744명과 함께 봉사하면서 이 진리를 보았다. 코로나 기간, 이 젊지만 강인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놀랍고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이끌었다.
31. 니파이후서 27:20~21 참조.
3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누기 안내서』(2023), 3쪽.
33. 야곱서 1장 17, 19절에서 야곱의 일은 곧 주님의 일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마지막 날에 흠 없다 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직분을 스스로가 아닌 주님께 영화롭게 했다.
34. 제3니파이 27:27 참조.
35. 교리와 성약 1:11~12.





태머라 더블유 루니아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짐이 아닌 기쁨입니다

회개하라는 권유는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보여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몇 년 전 플로리다 여행에서 밖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당장은 불완전한 사람도 나중에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성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다가, 제가 읽던 책에 대한 말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엉뚱한 말로 답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끝나는지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이죠! 천국은 완벽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 다시, 또다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요.”

오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개나 용서가 효과가 있지만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라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코도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니 난 그냥 이런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하는 분들, 저처럼 어떤 날은 성약의 길이 너무 가파른 나머지 성약의 등산길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피지에서 온 선교사 간가 장로도 호주에서 훌륭하게 봉사한 뒤¹ 귀환하기 전, 간증을 전하는 중에 비슷한 감정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도 제 사랑을 아실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간가 장로는 마음을 울리는 이 따뜻한 질문 하나로 제가 자주 걱정하던 문제를 간결하게 짚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실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아실까? 내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그분은 아실까?”

안타깝지만, 저는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고 있는가로 저와 구주의 관계를 가늠하곤 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란 회개가 필요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그분이 정말 실망하셨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주께 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거나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명과 순종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마음을 쓰시지만, 우리가 실수 후에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 의지하려고 합니까? 성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 안에 머무르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² 모든 계명을 지키지는 못했더라며 풀이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회개 역시 계명임을 상기해 드립니다! 사실 회개야말로 경전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계명일지 모릅니다.

엘마는 말했습니다. “오 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³ 여기서 엘마는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여 수치심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개를 외쳐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⁴ 그가 죄를 증오한 이유는 죄가 고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었습니다.⁵

계명은 이마에 써 붙이고 싶을 정도로 종종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계명은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⁶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특히 더 사랑하십니다.”⁷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라고⁸ 말씀하실 때, 그것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라고⁹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분이 여러분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그만두도록 간청하시는 모습, 여러분이 어둠에서 걸어 나와 그분의 빛을 향하도록 권유하시는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제 딸 칼리의 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제사가 된 형제가 성찬을 축복하다가,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¹⁰ 부분을 무심코 “당신 아들의 사랑을 기억하여”라고 말해 버렸습니다. 칼리는 그 말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속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고통을 겪으실 때 여러분은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이었습니다.¹¹

회개하라는 권유는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보여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선물을 사용할 때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이신¹² 그분이 기쁨으로 밝게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¹³

이 점을 가르칩시다!

회개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아야 성약의 길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함으로써 그 길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지난주에 똑같은 것을 회개했다며 수치심을 주시거나, 남들과 비교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¹⁴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므로 그분은 기쁘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¹⁵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믿기가 어려울까요?!

탁월한 참소자이자¹⁶ 기만자인 사탄은 수치심을 이용해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립니다. 수치심은 너무나 무거운 어둠이기에, 형제가 있어서 우리 몸에서 꺼낼 수만 있다면 실제로 그 무게를 달거나 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치심은 “대체 뭘 한거야?”, “제대로 하는 게 있거나 해?”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곧 우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숨으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대적은 죄의 무게를 우리 마음에 담아 두고자 온 힘을 다합니다. 죄의 대가가 너무 크니 어둠 속에 덮어 두는 게 더 편하다며 모든 희망을 없애 버립니다.

사탄은 희망을 훔쳐 가는 도둑입니다.

모두 귀 기울이시기 바라며 소리 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의 어두운 음성도,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소리 내어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아니야!”라고 말하며 사탄을 뒤로 물리치십시오.¹⁷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을 구주께 이끄는 힘을 느껴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분께 상한 마음을 드리는 순간, 그분께서는 어느새 우리 곁에 계시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¹⁸

여러분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 손을 뻗어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주께서 여러분이 내민 손을 거절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분이 물속에 뛰어들어 만물 아래로 내려가¹⁹ 신선한 공기를 향해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빛이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²⁰

구주께서는 수치심의 어둠보다 영원히 더 밝으십니다. 그분은



형가리

여러분의 가치를 결코 깎아내리지 않으십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 상상해 봅시다. 한 손은 가치를 상징합니다.
- 다른 손은 순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의미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결정을 하고 그리스도가 하시듯 주위 사람들을 대하셨을 것입니다. 연차 대회도 듣고 계시네요! 여러분의 순종은 여기에 있습니다!
- 아니면 이만큼 잘하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연결될 작고 단순한 일들을 최근에 잘하지 못했거나 몇몇하지 못한 결정을 조금 내리셨을지 모릅니다.
-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위치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순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여러분을 포함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분명히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가치는 그런 축복 중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값]”입니다.²¹ 여러분이 하는 결정의 결과가 어떻든 이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수하더라도 그리스도와 맺은 성약 관계 안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다이빙 수업을 들었는데, 심판은 다이빙 동작을 보고 점수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완벽히 수직으로 입수했는지, 발끝은 쪽 뻗었는지, 물은 털 튀겼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심판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바로 난이도를 평가 요소에 넣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난이도로 다이빙을 합니다. 여러분의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수행하는 다이빙의 난이도를 진정으로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²² 저는 저 자신을 개인적으로 이해하시며, 제 마음과 제 노력의 크기를 아시는 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여행자에게 어둠의 안개가 내린다는 것과 우리가 더러운 강을 지나야 한다는 것, 그랑기에 쇠막대를 붙들더라도 더러운 물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십니다.²³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는 것은 그분의 팔이 항상 우리를

항해 펼쳐져 있음을 확신하며, 희망을 품고, “저를 도와주시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회개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직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그분께 사랑으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며,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 곁에 머물 것을 다시, 또다시 선택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 없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했던 베냐민 왕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²⁴ 그들은 천막을 찢겨 집으로 돌아간 뒤에 절대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다른 점은 더는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그분께 집중했습니다!

저는 해변에 갔다가 바람 속에서 정신없이 날갯짓하는 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계속 같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새는 더 높이서 상승 기류를 받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힘만으로 하려는 것과 구주께 돌이키는 것의 차이입니다. 구주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으로²⁵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저희 부부는 호주에서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하면서, 귀환하는 선교사들을 마지막으로 만날 때마다 제3니파이 17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구주 곁에서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²⁶

그것에 대한 선교사들의 답을 듣는 것은 제 삶에서 가장 영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아십니다. 그분도 느껴 보셨으니까요.”라고 말하면,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말을 멈추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 자매 선교사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아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또 한 장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로 보아 제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필리핀

이렇게 해 봅시다. 오늘 밤 기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변호사이십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나를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에 관해 좋은 것을 말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구주와, 정말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분들의 사랑과 여러분의 가치는 큼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심을 증언합니다.²⁷ 그러나 어두운 방 속에 혼자 숨으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때가 오면, 용기를 갖고 그리스도를 믿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어둠에서 걸어 나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분의 빛에 둘러싸여, 역시 외로웠던 이들을 주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빛 가운데서, 여러분과 그들은 의아할 것입니다. “왜 어둠 속에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왜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있었지?”

“빛의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팔로 감싸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²⁸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사랑하여 다시, 또다시 그분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간가”로 발음한다.
2. 요한복음 14:15.
3. 앨마서 29:1.
4. 앨마서 29:2 참조.
5. 앨마서 37:32 참조.
6. 딸 칼리 루니아 레드와의 대화 중에 나온 아이디어.
7. 러셀 엠 넬슨, “영적인 가속도의 힘”, 『리아호나』, 2022년 5월호, 98쪽.
8. 힐라맨서 7:17.
9. 본부 청녀 고문 평의회의 캐스린 레이놀즈 자매와의 대화.
10. 교리와 성약 20:79.
11. 히브리서 12:2.
12. 니파이후서 31:20.
13. 앤서니 스웨트가 나눠 준 생각; 또한 교리와 성약 18:13; 테일 지 렌런드, “회개: 기쁨을 주는 선택”,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24쪽 참조.
14. “기도는 죄를 뉘우치는 죄인 음성이니 그 기도 소리 들으며 천사 기뻐하네.” (“기도는 영혼의 소망”, 『찬송가』, 61장)
15. 교리와 성약 18:10 참조.
16. 요한계시록 12:10 참조.
17. 마태복음 4:10; 모세서 1:20 참조. 넬슨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고통을 즐깁니다. 그 즐거움을 꺾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물리치십시오.” (“영적인 가속도의 힘”, 98쪽)
18. 앨마서 34:31; 교리와 성약 88:63 참조.
19. 교리와 성약 88:6 참조.
20. “여러분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포도원의 품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3쪽)
21. 교리와 성약 18:10.
22. 스티븐 이 로빈슨, *Following Christ: The Parable of the Divers and More Good News* (1995), 34~38 참조.
23. 니파이전서 12:16~17 참조.
24. 모사이야서 5:1~5 참조.
25. 말라기 4:2.[말라기 4장 2절의 주석을 참조하여 번역함—옮긴이]
26. 톰 크리스토퍼슨, “What Would It Be Like to Hear the Savior Pray for You?”, *LDS Living*, Jan. 19, 2021, [lds.org/living](https://www.lds.org/living) 참조.
27. 이사야 9:2; 교리와 성약 11:11 참조.
28. 1979년, 내가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나의 부친 빈센트 앨마 우드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보내 준 편지에서 인용함.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

보상으로 주어지는 축복

삶의 많은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의 무한한 축복의 손길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감리 감독단에서 봉사하면서 전 세계 다양한 장소와 문화권에 거주하는 후기 성도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변치 않는 신앙과 헌신에 끊임없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 즉 질병, 장애, 제한된 자원, 결혼이나 교육의 기회 부족, 타인에 의한 학대, 그리고 다른 제한이나 제약과 같은 어려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로 이러한 시련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은 방해받으며, 복음에 따라 온전히 생활하려는 여러분의 진정한 노력은 시험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신성한 의무를 완수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처한 상황으로 인해 제약이나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그분의 축복에 이르는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사소해 보이지만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한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물두 살 때, 파리에서 프랑스 공군으로 복무하던 저는 주님의 사도이신 닐 맥스웰 장로님이 상젤리제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말씀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있기 직전에, 저는 대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 시간에 한 고위 장교를 공항에 태워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에 참석하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던 저는 그 장교를 내려 주고 서둘러 대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은 저는 상젤리제 거리를 전력 질주하여 모임 장소로 향했고, 모임이 끝나기 5분 전에야 숨을 헐떡이며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맥스웰 장로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사도로서 여러분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름답고 잊지 못할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영에 압도되었고, 축복의 말씀이 마치 저를 위한 것인 양 제 영혼의 구석구석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날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위안이 되는 한 부분을 작지만 강력하게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마음의 의로운 소망을 이루는 것이 방해받을 때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상에

주실 것입니다.¹

위안을 주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원리에 근거를 둥니다.

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개개인을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십니다.”² 그분의 구속의 계획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구원과 승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2.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며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무한한 자비심으로 우리의 욕망과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과된 여러 상황의 난이도 등을 모두 고려하십니다.”³
3.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앨마가 가르쳤듯이, 구주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과 “그들의 연약함”도 짊어지셨습니다.⁴ 따라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는 우리가 범한 실수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넘어, 필멸의 경험에서 비롯된 부당함과 결핍, 그리고 한계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이렇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특정한 조건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⁵ “[우리]의 온 영혼을 그[분께] 예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⁶ 이를 위해서는 깊은 소망, 진지하고 충실한 마음,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려는 최대한의 부지런함이 요구됩니다.⁷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 우리의 열망에 미치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의 소망을 합당한 제물로 받아들이십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멕시코

그러한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불가능할 때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의 의로운 소망에 대해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⁸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필수적인 복음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형 앨빈을 걱정하던 중 다음과 같은 위안을 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자로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⁹ 그런 후 주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할 것임이니라.”¹⁰

주님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구주이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와 봉사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해임되어 슬퍼하는 한 젊은 선교사를 한 친구가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성구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다하고”, 그분의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 “부지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여] 그들의 원수들이 …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는, 보라, 그 [백성]의 손에 더 이상 그 일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헌물을 받음이 내게 마땅하다.”¹¹

제 친구는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봉사하라는 부르스에 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의 헌물을 받아들이셨으며, 모든 충실한 선교사에게 약속된 축복이 보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축복은 종종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도록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의 친절과 봉사를 통해 옵니다. 저는 저희 부부가 프랑스에 있는 딸과 멀리 떨어져 살던 시절, 출산을 어렵게 마친 딸을 도와줄 수 없어 무력감을 느꼈던 때를 기억합니다. 바로 그 주에 유타주에 있는 저희 와드에서는 쌍둥이를 막 출산한 산모를 위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아내 발레리는 그 산모와 도움이 필요한 딸 모두를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 산모를 위해 자원하여 음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프랑스에 있는 딸이 속한 와드의 자매님들이 딸의 가족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셨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에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 위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계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은사, 자원, 시간 등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인식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도 치유와 보상을 불러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축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주님의 집에서 조상을 위해 대리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의식을 행할 때, 우리는 현세에서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 주님의 위대한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행하는 사랑의 봉사는 구주의 은혜가



오스트레일리아

이 삶 너머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다음 생에서 우리는 이 필멸의 삶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 아직 영원한 동반자를 찾지 못한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애정 어린 말씀을 전했습니다. “충실한 생활을 한 후기 성도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이런 기회를 얻은 다른 남녀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 받는 모든 축복과 승영과 영광을 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¹²

이 희망과 위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필멸의 삶의 어려움과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천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결여된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구주가 계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분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¹³

삶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의 무한한 축복의 손길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온 영혼을 구주께 드린다면, 그분께서 속죄 희생을 통해 모든 무능력과 불의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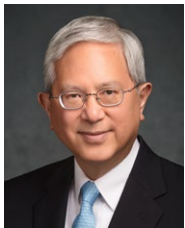
주

1. 앨마서 29:4 참조.
2. 니파이후서 26:33.
3. 닐 에이 맥스웰, “우리들의 마음의 욕망에 따라”,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21쪽.
4. 앨마서 7:11, 12.
5. 니파이후서 25:23.
6. 욥나이사서 1:26.
7. 교리와 성약 64:34 참조.

8. 델린 에이치 옥스, "The Desires of Our Hearts"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Oct. 8, 1985), 6, speeches.byu.edu.
 9. 교리와 성약 137:8.
 10. 교리와 성약 137:9. "그 심판은 여러분의 행위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에 품고 있던 생각과 마음속의 소망까지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망을 아십니다. 예를 들면, 독신 자매들과 자녀 없는 부부들의

-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심판의 날 깊이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선택",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84쪽)
 11. 교리와 성약 124:49; 강조체 추가.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2012), 130쪽.
 13. 니파이후서 25:23.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회복

우리는 부활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성장, 그리고 소속감을 발견합니다. 이는 변함없이 진실되며 기쁨 가득하고 행복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새벽 복음 공과반에서 성경 구절을 외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짧은 구절을 외우고 싶었습니다. 그중에는 경전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요한복음 11장 35절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세 어절로 된 성구였습니다.

지금의 제게는, 예수께서 슬픔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이 그분의 경이로운 실재성에 대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께서 필멸의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따라,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우리를 축복할지를 몸소 배우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¹

우리가 슬픔이나 기쁨으로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벽히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회복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세상을 떠난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연민으로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²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당신의 백성을 모을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³ 오늘날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할 때 그분의 속죄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물으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⁴ 그 종들에는 성역을 행하는 형제 자매인 우리도 포함됩니다.

마리아가 상심하여 무덤 앞에 서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며⁵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울]” 것⁶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이에게 새벽을 선사합니다.

몰몬경이 기록된 땅에서 충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분은 기쁨에 충만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시더라.”⁷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이 열망하는 것과 영혼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⁸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씻기십니다.⁹ 단, 기쁨의 눈물은 예외입니다.

눈물이 흐르면 때로 우리는 당혹감에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고통과 기쁨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의 우여곡절을 헤쳐 나갈 때 우리 자신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¹⁰

남미에 살던 한 아버지는 삶의 빛이었던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나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제 팔에 안겨서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무엇이랄도 하겠습니다.”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멕시코 푸에블라 성전 헌납식에서는 사랑하는 한 자매님의 얼굴이 행복의 눈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용모에서 신앙과 희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odos mis hijos están aquí en el templo hoy.*”—“제 자녀가 모두 오늘 이곳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의 집에 모인 후손들로 그분의 얼굴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에서는, 끔찍한 내전 중에 가족들과 이웃들이 서로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눈물로 점차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여러분, 제가 죽기 전에 실종된 여러분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고 싶군요.”

밝게 빛나는 신부와 잘생긴 신랑이 주님의 집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 신부와 신랑 둘 다 일흔 살의 나이였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는 이 날을 합당하게 기다려 왔습니다. 신부는 수줍게 웨딩드레스를 이리저리 움직였고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스페인



미국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분의 성약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젊은 시절에 남편을 여읜 한 자매님에게 가정 복음 교육을 하던 중 가슴 저미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과 연정을 벌인 후, 남편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분의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심한 악담이었다는 자책 때문에 저는 오십 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¹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부활절은 우리가 휘장 양편의 관계를 치유하고, 화해하며, 바로잡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치유하실 수 있으며, 용서를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뱉은 말이나 과거의 행동, 또는 타인이 우리에게 한 언행으로 빚어진 결박에서 우리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부활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너무 크다고, 너무 작다고, 너무 뚱뚱하다고, 너무 말랐다고 말하며, 충분히 똑똑하지도, 예쁘지도, 영적이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할 때 우리는 병적인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대한 기쁨으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죽음 정복하셨네 주님 이기셨으니 인간 승리 얻었네.”¹²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월에서 비롯되는 연약함과 육체의 불완전함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죄에서, 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은 눈물을 흘리듯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와,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합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잠재력까지 모든 선한 일들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빛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는 와서 평안과 기쁨을 얻으라는 그분의 애정 어린 권유를 여러 전통과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사는 누구든,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창조주의 자녀라는 신성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그리스도교도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동일한 종교적 유산을 갖고 있으며 고대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맺어진 성약 관계를 공유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간 요셉은 바로의 꿈이 7년간의 흉년 이후에 올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가족과 동족을 구했습니다.¹³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고,¹⁴ 그 계획 안에서 성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¹⁵

애굽에 있는 바로의 가문에서 자란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를 집합하는 열쇠들을 받았으며 훗날 이를 회복했습니다.¹⁶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했습니다.¹⁷ 카이로의 한 독실한 무슬림 신자는 다음과 같이 경건히 말했습니다. “코란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서 우리 나라에서 안전과 피난처를 찾으셨다고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였던 예수님은 우리 나라에서 우리 음식을 드시고, 첫걸음마를 떼시고, 처음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분과 그분의 가족에게 열매를 드리기 위해 나무들도 몸을 낮추었다고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나라에 계셨던 것이 우리 나라 사람과 우리 땅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필멸 상태에서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토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어떤 일에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교훈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만물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만물 위로 올라가셨습니다.¹⁸ 그분은 우리가 창의를 발휘하고 기쁨을 찾아낼 때 기뻐하시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이나, 회개와 용서에 이르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성한 능력을 보일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들이 울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이 때로는 자신들이 내린 선택의 결과로 인해 어마어마한 고통과 잔인함과 불공정함을 겪을 때 슬픔의 눈물을 흘리십니다.¹⁹

매년 봄 부활절 절기에 기념하는 영적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한 시점으로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부활과 회복의 신성한 패턴의 일부라는 확신이 듭니다.²⁰ 이 성스럽고 상징적인 집중은 우발적이거나 우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종려주일, 성주간,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기념합니다. 오늘처럼, 우리는 매년 4월 6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설립되고 조직된 것을 기념합니다.²¹ 이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매년 4월 첫 번째 일요일에 모여서 연차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²²

회복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1836년 부활 주일에 새로 헌납된 커틀랜드 성전에서 신권 열쇠와 권세를 지상에 돌려주었을 때에도 이루어졌습니다.²³ 그날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이 임함으로써, 교회는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그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가족을 영원히 결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회복이 모두 부활절과 유월절에 일어남으로써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커틀랜드 성전을 비롯하여 선지자 조셉과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현으로 본 오하이오주의 성스러운 장소를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하늘이 어떤 곳인지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의 왕국에서²⁵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구원”하십니다.²⁴ 유일한 예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타내신 후에 [고의적으로] 그를 부인하는”²⁶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성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은 모든 시대, 모든 땅,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꺼이 받으려고만 한다면 모든 것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다음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²⁷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 되고, 눈 멀고, 눌린 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에는 희망과 구원과 확신을 주는 메시아의 약속이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²⁸

그리하여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라.”²⁹

우리는 매년 부활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를 하나의 통합적 상징으로 기념합니다. 이 상징을 이루는 요소들은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실제적인 부활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축복할 신권 열쇠와 권세를 지닌 후기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과 의로움의 겹옷을 입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호산나[로다!]”라고 외칩니다.³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³¹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회복에서 평안과 성장, 그리고 소속감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변함없이 진실되며 기쁨 가득하고, 행복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앨마서 7:11~12 참조. 또한 성찬 의식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성약의 약속에 주목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 주신 계명을 지키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한다.]”(교리와 성약 20:77)
2. 요한복음 11:33~35, 39~44 참조.
3. 누가복음 19:41~44 참조; 또한 마태복음 23:37; 누가복음 13:34 참조.
4. 야곱서 5:41.
5. 요한복음 20:15.
6. 시편 30:5.
7. 제3니파이 17:21~22.
8. 시편 107:9; 예레미야 33:3 참조.
9. 이사야 25:8 참조.
10. 앨마서 26:12 참조.
11.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는 안전하게 산다”, 『성도의 빛』, 1973년 7월호, 7~8쪽 참조.
12. 『찬송가』 123장 “주님 다시 부활했네”는 니파이후서 9장 10절에 나오는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괴물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을 마련하시니] … 진정 저 괴물은 사망이요 지옥이[요], … 또한 영의 사망이라.”라는 구절을 되새기게 한다.
13. 창세기 37~47장 참조.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온 것은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의 눈물겨운 재회를 뜻한다. 이는



에콰도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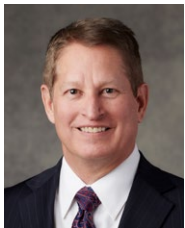
또한 리하이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아곱의 가족과 성약의 후손들을 보존하는
방편이 되었다.(니파이전서 5:14~15; 6:2 참조)

14. 창세기 45:1~8 참조.
15. 로마서 8:28; 교리와 성약 90:24; 98:3 참조.
16. 교리와 성약 110:11 참조; 또한 마가복음 9:2~10; 누가복음 9:28~36 참조.
17. 마태복음 2:13~15 참조.
18. 교리와 성약 88:6; 122:8 참조.
19. 모세서 7:28 참조.
20. 우리가 봄의 부활절 절기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절이 3월이나 4월에 오며
북반구의 봄도 일반적으로 3월이나 4월에 온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부활절의 실제 날짜와 상관없이, 부활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를 떠올리게 한다.
21. 교리와 성약 21:3; 115:4 참조.
22. 매년 오는 부활절은 성스러운 기념일과 정확히 일치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2026년과 2029년에는 부활절과 연차 대회가 같은 날이다. 2031년과
2034년에는 종려 주일과 연차 대회가 같은 일요일이다. 2026년과 2029년에는

유월절이 부활절과 연차 대회 기간과 비슷하다. 이러한 기념일들이 정확히
겹치든 아니든, 우리는 이날들이 비슷한 시기에 모여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성스럽고 상징적인 것임을 알고 있다.

23. 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24. 교리와 성약 76:43; 또한 42절 참조.
25. 맬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이 회복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의 영광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히 가장 높은
등급인 승영에 이르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영광의 왕국”, 『리아호나』,
2023년 11월호, 27쪽)
26. 교리와 성약 76:43.
27. 누가복음 4:18; 또한 이사야 61:1 참조.
28. 이사야 61:3.
29. 이사야 61:10.
30. 교리와 성약 109:79.
31. 요한복음 3:16.





존 에이 맥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성약의 제자로서 얻는 기쁨

성약의 제자로서 행하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강화되고, 기쁨이 커지며, 우리의 영원한 관점이 더욱 넓어집니다.

2023년 어느 날, 우양가 알탄수크가 몽골 북부의 도시인 다르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몽골 선교부 회장이 그녀의 일터에 왔습니다. 우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친절하고 유쾌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마음에 파스함을 느꼈지요. 그분이 떠나기 전에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제 일터에 와서는 혹시 교회에 가 보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시 저는 스트레스와 어둠이 가득해 보이는 사회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 자녀들이 이분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고 주변에 기쁨을 전할 수 있었으면 했어요.

하루는 선교사들이 십일조의 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신이 나서 ‘엄마, 우리 십일조를 꼭 내야 해요.’라고 했죠. 아이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시면서 몽골 울란바토르에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웬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과 간증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우양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참여했습니다. 성약의 길을 걷는 여정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라는 단어는 일본어로 “데시”인데, “데”는 “남동생”을, “시”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나는 장자니라.”¹ 그분의 존재,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곧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따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고,²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속죄 희생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역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³

때때로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지상 생활 속 익숙한 경험이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니는 부모의 본분과 지상의 가족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런 비교를 너무 과하게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의 속성은 타락한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과 친절, 인내, 이해를 보이시며 온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이자 길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완전한 성품과 그분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의 성향을 극복할 힘을 얻어 더욱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전히 자비롭고 공의로우십니다. 공의와 자비라는 이 신성한 성품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 모두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의롭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과 사랑에 있어 완전히 일치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인 우리는 그분들과 성약을 맺을 기회와 특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확장됩니다.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났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⁴

제자인 우리는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영적인 권능을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로



헝가리

연결되어 있으며, 성약을 맺고 지키는 자에게 예비된 사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⁵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거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능력은 우리의 의로운 소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⁶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뒤이어 다음과 같은 권유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 구절에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다음 11절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⁷

진정한 성약의 제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께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기쁨에 대한 더 큰 이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원리들에 대한 이해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몇몇 자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완전한 관점과 계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초부터 영광스러운 잠재적 미래까지를 모두 보십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 죄,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 내도록 길을 마련하셨습니다.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과 선택의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됨으로써 기쁨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면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는 표현을 아마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세가 아흔넷 되신 제 어머니에게는 현재 200명 이상의 후손이 있습니다. 언제가 되었던, 그 200명 중에 최소한 한 명은 불행할 것입니다. 아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 어머니께서는 끝없는

불행에 빠져 계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를 아는 분이라면 그분이 얼마나 기쁨에 차 계시는지 아실 겁니다.

또 다른 경험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2019년 1월에 제 아내 데비와 저는 벨슨 회장님의 사무실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우리와 무릎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으셨습니다. 벨슨 회장님은 저희의 현재 부름을 주신 후, 데비에게 몸을 돌려 그녀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완벽한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회장님은 친절하고 다정하고 온화하며 기쁨으로 가득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데비의 손을 잡고 토닥이며, 다 괜찮을 것이라고, 저희 가족이 축복을 받으리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희가 회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으며, 그분의 모든 시간이 저희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금요일 오후에 회장님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희는 안심과 사랑 그리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에 저희는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벨슨 회장님이 저희와 시간을 보내시던 그날, 그분의 따님 하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과 가족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그분의 딸에 대해 슬퍼하시면서도 저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관심을 보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경험에 대해 생각하며 이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며, 심지어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회장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그분의 딸과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약을 맺고 지키면서 구주께 결속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벨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빌립보서 4:7] 평강을 주시듯 인간의 논리나 이해력을 넘어서는 강렬하고 심오하며 폭넓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불치병을 앓거나 여러분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또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등질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구주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⁹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가 성약 관계에서 느낀 기쁨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이 위대한 대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¹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야곱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네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포도원에서 나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나의 명령을 지키고, 원열매를 다시 내게로 가져와, ... 보라 내 포도원의 열매로 인하여 너희가 나와 더불어 기쁨을 누릴 것임이니라.”¹¹

성약의 제자로서 행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의 능력치가 얼마만큼이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강화되고, 기쁨이 커지며, 우리의 영원한 관점이 더욱 넓어집니다. 그 후에 우리는 비로소 권능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참된 성약의 제자에게 예비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¹²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미국

주

1. 교리와 성약 93:21.
2. 마태복음 1:21; 니파이후서 2:6 참조.
3. 요한복음 3:16.
4. 모사이야서 5:7.
5. 러셀 엠 넬슨, “영원한 성약”, 『리아호나』, 2022년 10월호, 4~11쪽 참조.
6. 데일 지 렌런드, “Experience God’s Love”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2019년 12월 3일), speeches.byu.edu 참조.
7. 요한복음 15:9~11.
8. 엘마서 7:11~13 참조.
9. 러셀 엠 넬슨,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10.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월요일), 복음 자료실 참조.
11. 야곱서 5:75.
12. “하나님의 성약의 사랑인 **혜세드**가 우리가 성전을 짓고 의식을 행하는 이유이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의 가르침” 2024년 10월, 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필멸의 삶을 위한 하늘의 도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우리 필멸의 여정 전반에 걸쳐 우리를 인도해 줄 다른 도움이 있습니다.

I.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전세의 생활에 관해 몇 가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존재했습니다.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진보하도록 돕고 싶으셨기에 지구를 창조하기로 하셨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육신을 받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신성한 속성을 키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시험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² 이 시험에서 자신을 입증한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질]” 것입니다.(아브라함서 3:26)

하나님께서 이 신성한 계획의 조건을 정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주로 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선택의지를 없애자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던 루시퍼는 사탄이 되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³ 지상으로 추방되고 필멸의 삶이라는 특권을 빼앗긴 후,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모세서 4:4)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멸의 자녀들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자녀들이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니파이후서 2:11) 우리의 근육이 중력 법칙을 거스르며 사용되어야 발달하거나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필멸의 인간이 성장하려면 사탄의 유혹과 필멸의 삶의 역경을 온 힘을 다해 극복해 내야 합니다. 영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⁴ 선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향해 진보할 것입니다. 악을 택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멸의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혹 속에서 누구라도 악을 택하게 될 것이기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울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II.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필멸의 도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준비하셨다는 점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게 하시려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자비롭고 영광스러운 속죄의 의미를 알면,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지가 이해됩니다. 그분의 속죄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며”(앨마서 42:23),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합니다.(앨마서 34:8) 이로써, 회개하는 모든 죄가 지워지게 되었으며 구주께서는 우리의 필멸의

연약함에 대해 도울 권능을 얻으셨습니다.⁵

우리가 지은 죄가 지워지고 용서받는 것 외에도,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아들께서 마련하신 계획에는 처음부터 범법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를 보호해 줄 다른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멸의 삶은 항상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서로 다른 은사를 지닌 두 분이 계셔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모의 부재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역경의 일부입니다.

III.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우리 필멸의 여정 전반에 걸쳐 우리를 인도해 줄 다른 도움이 있습니다. 이 중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으니 네 가지라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이것들 외에도 자비로운 보호막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빛, 즉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로나이는 모로나이서에 기록한 그의 위대한 가르침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다는 아버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모로나이서 7:16) 현대 계시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가르침을 읽습니다.

“그리고 영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나니, 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4:46)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이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에게는 빛을 주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정죄 받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어졌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36:33)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이 구절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빛과 진리를 아무 도움 없이 어둠 속에서 찾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 그리스도의 영, 즉 진리의 빛으로부터 인도와 지시와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⁶



에과도르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큰 도움은 구원의 계획(행복의 계획)의 일부로서 경전에 집약적으로 제시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지시 사항입니다. 계명, 의식, 그리고 성약이 바로 그런 지시 사항입니다.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생을 향해 진보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신 길이라고 정의됩니다. 계명이 하나님께서 처벌할 대상을 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이 행복의 계획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는 구주와의 관계를 점차 돈독히 다집니다. 또한, 그분이 바라시는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권능을 더 많이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가 그분과 구주께서 거하시는 해의 왕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 해의 왕국에 거하는 이들의 삶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의식과 성약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정의하는 율법의 일부입니다. 의식과 그 의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성스러운 성약은 그 길을 따라갈 때 필요한 단계들이자 필수적인 방호책입니다. 성약의 역할에 대해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약은 특정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아래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옳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도움에는 성신의 **나타내심**이 있습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경전은 성신의 역할이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며, 우리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⁷ 경전에는 성신의 “나타내심”에 관해 기술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물문경의 참됨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는 영적 증거하심이 그 한 예입니다.⁸ 성신의 나타내심을, 침례 후 부여되는 성신의 은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도움 중 하나입니다. 이 은사는 회개하고, 물의 침례를 받은 다음에 정식으로 부여됩니다.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 사함이 임”하게 된다고(니파이후서 31:17) 경전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 사함을 받고, 그 후로도 매일 회개하고 성찬 의식을 통해 그들이 맺은 성약에 따라 생활하여 정기적으로 자신의 깨끗함을 새로이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인 성신이 “항상 … 함께 하”리라는(교리와 성약 20:77)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성신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것을 밝혀 주고, 그들이 개종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며, 모든 진리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날마다 그들을 진리와 기쁨으로 채워 주면서 평생 동안 동반자로서 그들 안에서 변함 없는 증거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참아 내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며 관대하게 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더없이 소중한 은사, 즉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계속 의에 목말라합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필리핀

결론지으셨습니다. “성신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람도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⁹

IV.

필멸의 여정 동안 우리를 인도해 줄 강력한 도움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도, 아주 많은 이들이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예정된 만남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 슬픔입니다. 이 대회에서 자주 언급된, 주님께서 주신 열 처녀의 비유에는 그분을 만나기로 초대받은 처녀 중 절반만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나옵니다.¹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예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활동 기간을 가지며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귀한 선교사, 교회 가르침과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태롭게 하는 청소년, 헬기세탁 신권에 성임되는 일을 미루는 남성, 때로는 고귀한 개척자의 후손이거나 합당한 부모의 자녀임에도 거룩한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을 택하지 않고 성약의 길에서 멀어지는 남성과 여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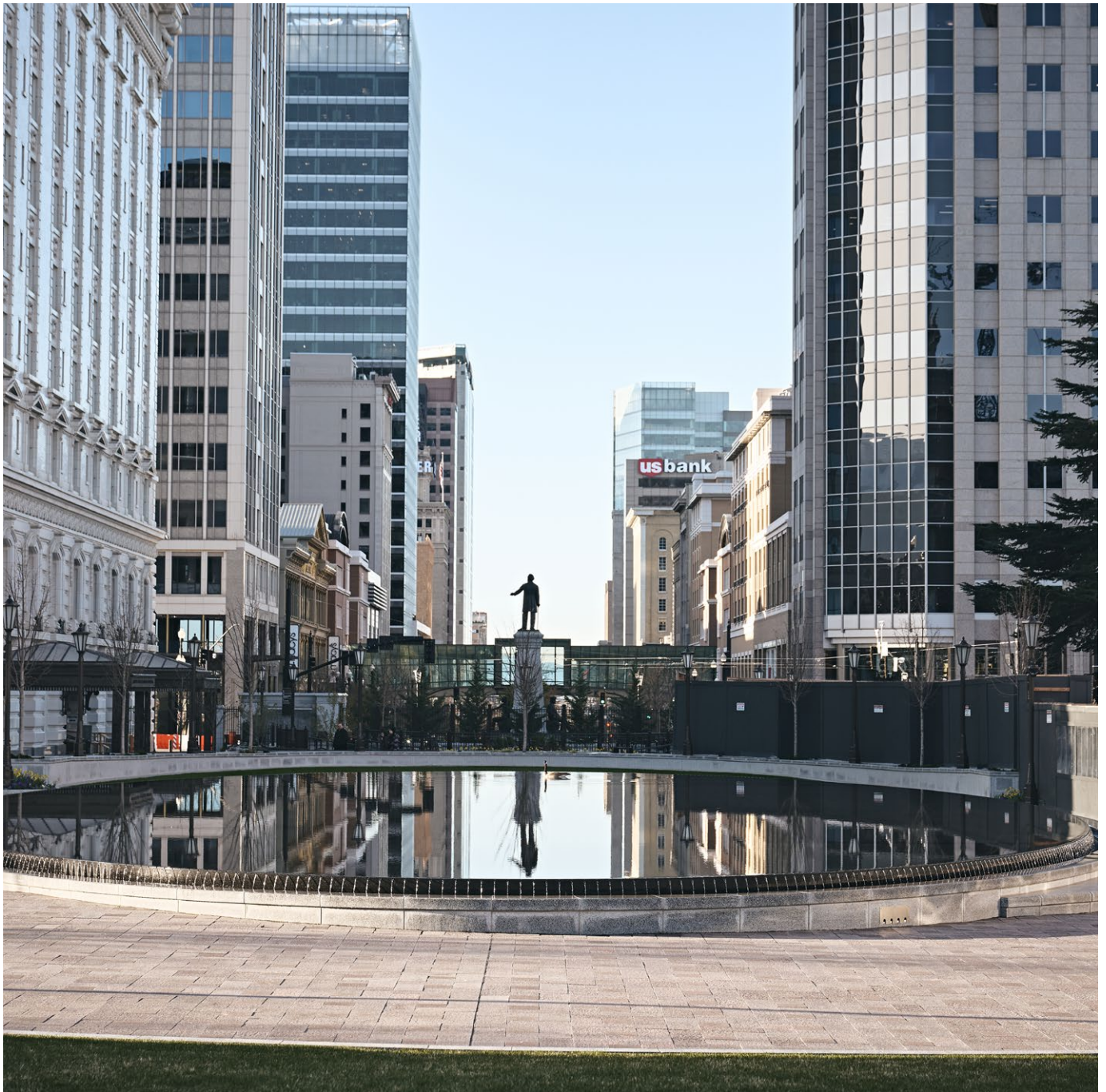
그런 탈선 중 많은 경우가 개인 기도, 정기적인 경전 공부, 잦은 회개와 같이 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성찬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매주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또 다른 경우, 교회 모임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며,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이나 꼭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기회보다 자신이 미래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선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탈선을 위한 치료제는 겸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물문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힐라맨서 12:1)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선지자들이 주는 가르침을 최신의 조사 결과나 사람의 지혜와 그릇되게 비교하고 따져 보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보탬이 되도록 그들에게 주시는 여러 도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성한 계획에서 우리가 맡은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성한 도움들을 구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도움을 구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들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아브라함서 3:22 참조.
2. 아브라함서 3:24~25 참조.
3. 모세서 4:1~4 참조.
4. 니파이후서 2:11; 15~16 참조.
5. 앨마서 7:11~14 참조.
6. 조셉 필딩 스미스, *Doctrines of Salvation*, comp. Bruce R. McConkie (1954), 1:51. 스미스 회장은 이 빛이 "만물 안에 있[는]"(교리와 성약 88:13; *Doctrines of Salvation*, 1:52)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덧붙였다.
7. 요한복음 14:26; 16:13; 니파이후서 31:18 참조.
8. 모로나이서 10:4, 8 참조; 또한 니파이후서 26:13; 교리와 성약 18:18; 고린도전서 12:7 참조.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70쪽.
10. 마태복음 25:1~2 참조.



일요일 오후 모임

2025년 4월 연차 대회



108쪽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은 진정한 감사와 참된 행복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을 계시로 이끌며, 우리 삶에 더 큰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111쪽

자애—진정한 제자 됨의 표시

제자의 길의 진정한 목적지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비 스트롱 장로
칠십인 정원회



115쪽

두 번째 유혹에 유의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해 줄 사람들에게서 숨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가십시오.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칠십인 정원회



118쪽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김현수 장로
칠십인 정원회



121쪽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거룩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패트릭 키아론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124쪽

하나님의 사랑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증언합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벤저민 엠 지 타이 장로
칠십인 정원회



127쪽

하나님의 면전에서 갖는 확신

우리가 삶을 사랑과 덕으로 채우기를 부지런히 구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은 진정한 감사와 참된 행복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을 계시로 이끌며, 우리 삶에 더 큰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우리 모두가 기꺼이 그러해야 하듯이,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다가가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¹ 깊은 경건함과 겸손, 그리고 놀라움으로 모세는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준비를 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주님이 임재하신 이 놀랍고도 경건함으로 가득한 경험은, 모세가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깨닫고 미천한 양치기에서 강한 선지자로 변화하여 삶의 새로운 길을 걷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도 경건이라는 미덕을 자신의 영적인 성품의 성스러운 한 부분으로 삼아, 제자로서의 삶을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높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건함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reverence*는 라틴어 동사 *revereri*(레베레리)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다”라는² 뜻입니다.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는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혹은 그러한 태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헌신을 하는 자가 성스러운 것에 대해 경건함을 표현할 때, 영혼에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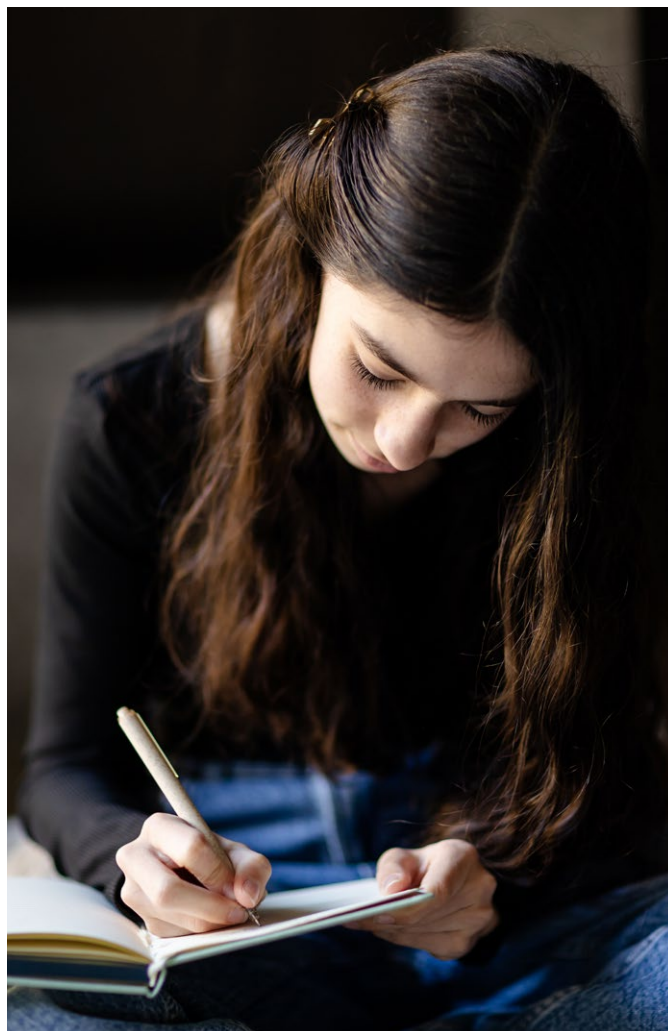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은 중요한 영적 자질의 가장 확실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은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미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실, 경건함은 단순히 영성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영성의 본질입니다. 어린이들이 “늘 경건할 때에 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곁에 느껴요”라고³ 노래하듯, 경건함은 영성의 토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동시에 영적인 성품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삶에서 경건의 은사를

키우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경건을 더 품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삶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슬픔과 비애가 들어설 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⁴ 성스러운 것에 대해 경건함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많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 더 높고 더 거룩한 것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 그리고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⁵

불행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성스러운 것에 대해 경건함을 보이는 것이 갈수록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흥미 위주 잡지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혹은 인터넷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는 불경함을 찬양합니다. 성스러운 것에 대한 존중의 부재는 경박한 태도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어져, 한 세대를 무관심으로 몰아넣고 다음 세대를 비참한 상태로 내던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경함은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서 오는 유대감에서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안락함에만 신경 쓰고 통제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위험에 놓이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신성한 본질과 같은 성스러운 것들을 멸망하는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성스러운



프랑스

것에 대한 불경함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생존에 필수적인, 섬세한 계시의 통로를 방해하여 우리의 대적이 그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⁶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경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건함이 해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⁷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모든 면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존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그분들의 형상을 묘사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그분들의 형상이 담긴 이 이미지들이 그분들의 신성한 본질, 특성, 성품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데에서 성신의 인도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묘사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합니다. 이는 기술을 통해 발전된 도구,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및 이미지 생성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 출처에 적용됩니다. 모든 공과와 서적, 교재,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스러운 미덕과 가치, 그리고 표준을 유지하도록 영의 인도에 따라 신중하게 제작되고 승인됩니다. 최근에 베드나 장로님은 교회의 청년 성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영적인 것과 기술의 복잡한 교차점을 헤쳐 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1) 인공 지능 사용의 지침이 되는 복음 원리를 파악하고, (2) 성신의 동반과 영적 계시의 은사를 얻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현대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지더라도 성신의 영향력에서 오는 경건함이 주는 경이로움, 경외심, 놀라움을 흉내 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의 유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대 기술이라는 “육신의 팔”에 기대는 것은 오직 성신의 권능으로만 받을 수 있는 영감과 교화, 그리고 증거를 부적절하고도 불경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신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⁹

또 다른 계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을 위해 세워진 성전은 그분을 경외하는 장소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¹⁰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인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성스러운 성전에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강조하셨습니다.¹¹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의 거룩한 면전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저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 신성한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면서 하는 첫 번째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신을 벗고 흰 의복으로 갈아입는 것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준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세상적인 신을 벗는 것이 거룩한 땅에 발을 내딛고 더 높고 더 거룩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첫 단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을 찾아 한층 더 깊은 영성과 헌신의 길을 걷기 위해 모세처럼 산 정상에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정 환경을 세상적인 영향으로부터 지키려고 노력할 때, 이러한 경건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경전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우리 구주를 더 잘 알고자 노력하는 것을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하여 그분과 맺은 성약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할 때,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마음에 고요하고 확실한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가정은 경건한 장소가 되어 영적인 피난처이자, 모세가 산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영이 거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성소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¹²

우리는 교회에서 충실히 예배에 참여하고 진심을 담아 성스러운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주님께 마음을 돌릴 때도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¹³ 모세가 그랬듯이, 세상적인 방해물, 특히 휴대 전화와 같이 이 성스러운 순간을 방해하는 것들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 그리고 우리가 맺은 성약에 집중하면서 성찬을 취하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에 집중하면 이 시간은 경건히 구주와의 교통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 되며,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주 여호와와의 전의 산에 오르고, 즉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약을 통한 확신을 품고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걷는 제자의 길에서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멸의 삶의 시련이 몰아칠 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이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경건한 가운데 성스러운 산에 오르는 순간을 직접 경험했으며, 그 결과 제자로서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출산 후 아직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동안, 미숙아로 태어나 살아남지 못한 둘째 아이의 장례를 위해 묘지를 걸어가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그리고 경건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음과 같이 명확하고 강력한 영적인 확신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아내와 내가 이 시간을 견뎌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오는 기쁨에 집중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그 순간 너무나도 슬프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당시의 시련은 성스럽고 경건한 경험으로 변화하여 저희의 신앙을 지켜 나가게 해 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주님과 맺은 성약과 그분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확신 주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은 진정한 감사와 참된 행복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을 계시로 이끌며, 우리 삶에 더 큰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경건함은 우리가 거룩한 땅에 발 디디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경건함이라는 미덕을 우리 일상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을 넓히며,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강해질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여호와와의 전의 산에서든 집회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는 성스러운 것들을 향한 경건함이라는 이 은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에 연결되고, 경이로운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경건하게 증거합니다. 아멘. ■

주

- 출애굽기 3:4~5.
- latin-dictionary.net, “revereri” 참조.
- “경건은 사랑이지요”, 『어린이 노래책』, 12쪽.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03), 31쪽 참조.
- 교리와 성약 63:64 참조.
- 보이드 케이 패커, “계시는 경건을 통해서 옴”,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24~26쪽 참조; 또한 러셀 엠 넬슨,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84쪽 참조.
- 교리와 성약 76:92~95 참조.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2.0” (전 세계 청년 성인 영적 모임, 2024년 11월 3일), 복음 자료실; 또한 게릿 더블유 공과 존 시 핑그리, “Principles of Church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adership Enrichment Series, Mar. 13, 2024); 게릿 더블유 공, “인공 지능—기회, 주의 사항, 지침이 되는 교회 원리” (연차 대회 지도자 모임, 2024년 4월 5일) 참조.
- 니파이후서 4:34.
- 교리와 성약 109:13, 16~21 참조.
- 러셀 엠 넬슨,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14쪽; “성전과 여러분의 영적인 기조”, 『리아호나』, 2021년 11월호, 96쪽 참조.
- 또한 러셀 엠 넬슨,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리아호나』, 2020년 11월호, 73~76쪽 참조.
- 교리와 성약 136:28 참조.



마이클 비 스트롱 장로
칠십인 위원회

자애—진정한 제자 됨의 표시

제자의 길의 진정한 목적지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최근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제자의 길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¹ 한다고 권유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권유를 듣고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저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의 길은 의식적인 여정이다

제자란 다른 사람의 추종자 또는 문하생을 말합니다.² 제자는 스승처럼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견습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리를 믿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맬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는 것은 이따금 혹은 건성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끊임없는 결심이자 삶의 방식입니다.”³ 제자의 길은 주님의 속죄 희생과 그분의 가능하게 하는 힘을 통해 변화되기 위해 의식적으로 임하는 여정입니다. 제자의 길의 진정한 목적지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즉 우리의 “얼굴에 그[분]의 형상”을⁴ 지니는 지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분의 생각과 행동, 예를 들어 그분의 순종, 겸손, 인내 등을 의식적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점차 이런 속성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구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⁵ 이처럼 구주의 성품을 본받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हम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활함으로써 가장 잘 표현됩니다.”⁶

진정한 제자 됨의 표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신성한 속성 중에서도, 다른 모든 속성을 아우르는 상위의 속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순수한 사랑, 즉 자애입니다. 선지자 몰몬도, 사도 바울도 자애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⁷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즉,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제시된 바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⁸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사랑을 당신의 참된 제자로 인정할 수 있는 표시로 간주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⁹

자애는 정의하기 쉽지 않은 많은 개념을 내포하지만, 자애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는 “자애는 신앙과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¹⁰ 가르칩니다. 사실, 자애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이 묘사는 구주의 삶을 요약해 주는 성구, 즉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¹¹ 성구에 훌륭한 통찰을 더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구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방법을 본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애를 나타내시지만, 저는 그분의 참된 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의 자애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자애는 연민을 보이는 것이다

첫째, 구주께서는 측은히 여김으로써 자애를 보이셨습니다. 물몬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니파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던 중에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당신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 다음 날 당신께로 다시 올 준비를 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¹² 그런 후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눈물을 머금은 채 마치 그에게 조금 더 그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간구하려는 듯이 그를 주목하[였]더라.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의 심정은 너희에 대한 측은함으로 가득하도다.”¹³

연민은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애의 일부입니다.¹⁴ 연민으로 가득한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둘러싼 가운데 그분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¹⁵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¹⁶ 마음이 있으셨기에 이처럼 다정하고 사랑 깊은 행동들,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청년 시절 남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 사랑하는 친구의 연민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제 동반자와 차를 몰고 선교부 회장님의 사택으로 가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탄 한 청년이 갑자기 저희 차량 앞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저는 충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청년은 그 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죽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의 끔찍한 현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저는 감옥으로 끌려가 그곳에 갇히고 말았습니다.¹⁷ 저는 그때보다 더 두렵고 외롭다고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라는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 사고 소식을 들은 동료 선교사 브라이언 코체버 장로는 마음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감옥으로 와서 교도관들에게 제가 혼자 있지 않도록 감방에서 저와 함께 머물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그들은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이 제자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행동에 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 사랑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에 평온과 위로를 느꼈습니다.¹⁸ 그의 자비로운 연민은 그가 주님의 제자라는 표시였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얼마나 동정 어린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¹⁹

자애는 말하지 않은 필요 사항에 대해 성역을 베푸는 것이다

구주께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필요 사항을 알아차리시고 그에 대해 성역을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38년간 불구로 생활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에게 의롭게 살라고



프랑스

하셨습니다.²⁰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는 정죄보다는 희망과 위안을 주셨습니다.²¹ 지붕 아래로 내려진 중풍 병자는 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²²

제가 감옥으로 부름받았을 때, 제 아내 크리스틴은 성찬식 시간에 제가 연단에 앉아 있는 동안 홀로 저희의 어린 여섯 자녀를 감당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하실 수 있듯이, 저희의 자녀들은 경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의 상황을 알아차린 와드 회원 존과 데비 베니치 부부는 일요일마다 아내 옆에 앉아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친절은 수년간 계속되었으며, 그분들은 저희 가족의 또 다른 조부모님이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이 제자들은 말하지 않은 필요 사항을 알아차리고 제자 됨의 중요한 표시인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자애는 다른 사람들이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돕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주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신성한 잠재력을 성취하여 “그의 구원과 그의 구속의 능력에 참여”할²³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 갈 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도우려는 소망은 저절로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처를 받았거나 잊혔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친구가 되어 주거나,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환영받는다 느끼도록 도와주거나, 친구들을 (아마도 이번 부활절) 성찬식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차례의 태풍이 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아가마타 형제님은 혹독한 폭풍우 중에는 농작물을 심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폭풍이 지나가자, 그는 땅이 물에 젖어서 모내기엔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진 사이에 재빨리 모를 심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쉽게도 성전 방문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아가마타 가족의 고민을 알게 된 두 제자 카우일란 장로님과 자매님, 그리고 세 명의 청년 봉사 선교사들은 농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돕기를 자청했습니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그들은 모내기를 도왔으며, 그렇게 해서 아가마타 가족은 그 일을 마치고 예정대로 성전 인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우일란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흰옷을 입고 있는 [아가마타 가족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며 느낀 기쁨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²⁶



카우일란 장로와 자매, 그리고 세 명의 청년 봉사 선교사들이 농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가마타 가족의 모내기를 도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돕는 일은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봉사의 행위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느끼시는 방식으로²⁵ 다른 사람을 보는 눈과²⁴ 느끼는 마음을 갖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들이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돕는 일은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봉사의 행위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현재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인 필리핀에서 아가마타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침례를 받은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인근의 필리핀 우르다네타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을 날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인봉 예정일이 되기 직전에 몇

이제 아가마타 가족은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받아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 됨의 표시인 자애로 가득한 몇몇 동료 제자들이 그들의 형제 자매가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돕기로 결심한 덕분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지속하는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사랑의 행위로 가득한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어렵고 힘들 수 있으며 때로 힘겨워하며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가 노력할 때마다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 이끄기를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²⁷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확약을 기억하며, 제자의 길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벨슨 회장님의 권고를 따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 그가 나타나실 때에 … 우리가 그와 같이”²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 됨의 표시,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를²⁹ 지냈기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아 계신 영광스러운 구주이자 구속주이시고, 모범이시며, 친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벨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121쪽.
2.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bound” 참조.
3. 델린 에이치 옥스, “그리스도를 따름”,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23쪽.
4. 엘마서 5:14; 또한 엘마서 5:19 참조.
5. 베드로후서 1:3~8 참조.
6. 러셀 엠 벨슨,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87쪽.
7. 모로나이 7:46; 또한 고린도전서 13:3 참조.
8. 교리와 성약 18:19; 강조체 추가.
9. 요한복음 13:34~35; 강조체 추가.
10.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누기 안내서』(2023), 10쪽.

11. 사도행전 10:38.
12. 제3니파이 17:3 참조.
13. 제3니파이 17:5~6.
14.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bound” 참조.
15. 제3니파이 17:7~25 참조.
16. 마태복음 9:36; 14:14; 마가복음 1:41; 6:34.
17. 경찰은 사망 사고로 인한 표준 절차의 일환으로 나를 감옥에 가두었다. 내가 운전자였기에 그들은 나를 동반자와 분리했다. 나는 감옥에서 이들을 보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청년이 사고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차량 앞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했다. 나는 정식 심리를 위해 판사 앞에 섰는데, 거기서 과실이나 부주의의 증거는 없고 그 일은 그저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고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났다.
18. 마태복음 25:31~40, 특히 36절 참조.
19. 러셀 엠 벨슨,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리아호나』, 2023년 5월호, 98쪽.
20. 요한복음 5:2~9, 14 참조.
21. 요한복음 8:1~11 참조.
22. 마가복음 2:1~12 참조.
23. 움나이서 1:26.
24. 교리와 성약 76:12 참조.
25. 니파이후서 26:24 참조.
26. 다윈 세라노 카우일란의 개인 서신, 2024년 12월 1일.
27. 이사야 41:13.
28. 모로나이서 7:48.
29. 모로나이서 7:47.



스코트 디 와딩턴 장로
칠십인 정원회

두 번째 유혹에 유의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해 줄 사람들에게서 숨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가십시오.

불과 몇 년 전,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저는 처음으로 아론 신권 정원회의 1박 야영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정원회 지도자셨던 제 아버지께서는 종종 저는 빠고 와드 청남들과 야영 모임에 가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야영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야영에 갈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사실 와드 형들과 너무나도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형들이랑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곧 형들은 제가 형들이랑 어울려 놀 만한 녀석인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는 지도자들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제 아버지의 자동차 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이내 자동차 키를 손에 쥐고 도취감에 빠져 형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임무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 등받이와 경적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제가 차 문을 잠그면 늦은 저녁에 경적이 울려 대도 청남 지도자들이 막대기를 뺄 방법이 없어 당황할 것이고,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빠져서리게 창피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막대기를 끼운 후 차 문을 잠그고는 최대한 빨리 근처 덩굴로 달려가 몸을 숨겼습니다. 땅에 꾸그러 앉았을 때 저는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급히 서두르다가 그만 부채선인장 위에 앉고 만 것입니다.

고통에 찬 제 비명은 요란한 경적 소리에 묻혀 버렸고, 저는 절뚝거리며 조심스럽게 차로 돌아가 제 “죄”를 자백하고 창피스러운 응급처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텐트 안에 엎드려 있었고,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집계로 선인장 가시를 뽑아 주셨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제가 편히 앉을 수 없었다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여러 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어린 시절의 어리석음을 웃으며 말하며, 그 경험 속에 녹아 있는 원리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욕에 속한 사람의 행동에는 비슷한 패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리에 끼고 싶은 욕구,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행동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그것을 감춰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 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행동 패턴, 즉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고 나서 감추는 것에 대해



그리스

다루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장난이 중죄는 아니었지만, 이 경험에서 배운 교훈은 우리가 필멸의 여정에서 시험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매우 평화로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그 동산에는 잡초도 부채선인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듯이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는 필요한 만큼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이브에게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러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첫 시험을 통해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서 돌아가는 마지막 종착지에 이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증명하고, 준비하며, 발전할 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대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루시퍼에게는 아담과 이브를 시험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계명을 기억했기에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혹은 이브에게 넘어갔고, 복된

그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선택했으며 아담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후 아담과 이브는 이 결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¹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다시 오셨음을 알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된 결과와 참담함으로 틀림없이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그때까지 그들은 옷을 입지 않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온 터였습니다.² 하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에 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이제 자신들의 범법이 드러나게 됐다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무방비 상태인 데다 취약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벌거벗은 존재였습니다.

천하의 기회주의자인 루시퍼는 아담과 이브가 위태롭고 약한 상태임을 알고는 하나님을 피해 숨으라며 다시 한번 유혹했습니다.

저는 이 유혹을 “두 번째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번째 유혹에 굴복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는 모든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지상에서 다양한 첫 번째 유혹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성숙함과 이해력이 커 가면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노력하는 중에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힘이 계속해서 커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들통나거나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전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숨는 것은 불가능함을 배웁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며 예레미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³

또한 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⁴

시편의 저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가장 시적인 표현으로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⁵



프랑스

새로운 개종자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온 분들은 두 번째 유혹이 특히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성약을 맺은 것인데, 많은 사람에게 이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습관과 관행, 심지어는 어울리는 사람들과도 바꿔야 합니다.

대적은 여러분이 교묘한 공격에 취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불만족스러웠던 과거 생활이 이제는 지극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⁶ 참소자로 불린 사탄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넌 삶을 바꿀 정도로 강하지 않아. 넌 못해. 넌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회원들은 절대 널 받아 주지 않을 거야. 넌 약해 빠졌어.”

새로 성약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부디 참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간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주와 함께 모든 것을 해낼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과 지지가 가장 필요할 때, 예전 생활로 잠깐 돌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내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속죄의 권능을 통해 여러분은 다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서 숨고 새로 찾은 신앙의 친구들에게서 멀어진다면, 여러분은 시련을 극복할 능력과 힘을 주실 근원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최근 개종자인 제 친구는 혼자 힘만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응원해 주는 신앙의 친구들 곁에서 함께 남아 있으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모두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받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루 이틀 안에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거둬들여 받아들이면서 평생에 걸쳐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웁니다. 우리는 성약의 길에 계속 남아 영적인 힘, 개인적인 계시, 신앙 증진, 천사의 성역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⁷

만약 신체에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상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받지 않은 영적 상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해 줄 사람들에게서 숨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치유 권능에 다가설 수 있도록 훌륭한 감독, 지부 회장, 지도자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께 부디 돌아오시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속죄가 필요하며,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아시며, 여러분은 그분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그분과 화목하게 되십시오.

그분의 성도인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구주의 길을 따라 걸으며 발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 주며, 복돋아 주는 문화 말입니다.

두 번째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고대와 현대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숨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기적의 치유 권능을 이용하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의 목적은 바로 “몸과 생각에 있어 온갖 약점을 지”닌⁸ 나약한 필멸의 육신을 얻는 것이며, 슬프게도 이 육신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에 따라,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더라도 발전하고, 유혹에 빠진 후에도 신성한 도움을 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것입니다.⁹ 이것의 그분의 방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길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5:10~11 참조.
2. 모세서 4:13~17 참조.
3. 예레미야 23:24.
4. 욥기 34:21~22.
5. 시편 139:1~2, 4, 7~8.
6. 요한계시록 12:10 참조.
7. 러셀 엠 넬슨, “세상을 이기고 숨을 얻으십시오”, 『리아호나』, 2022년 11월호, 97쪽.
8. 모사이야서 2:11.
9. 베드로후서 1:2~4 참조.





김현수 장로
칠십인 정원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어린 조셉 스미스의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복의 일환으로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고대 기록을 번역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이 미대륙의 고대 주민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며 여기에는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이 실려 있”습니다.¹

어린 시절 저는 물몬경을 읽으면서, 레이맨과 레뮤엘은 주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 그들에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왜 자신들이 받은 진리를 믿지 않았는지 종종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은 왜 부친 리하이와 동생 니파이의 가르침에 더 겸손하고 순종적일 수 없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를 니파이전서에서 찾았는데, 거기에는 니파이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비통”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² 니파이는 형들에게 “당신들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하고 어두움은 어쩍이니까?”라고 물었습니다.³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몬경에서는 “hardness”를 우리말로 “완악”(頑惡)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은 “완고하다”라는 의미의 한자 “완(頑)”과 “악하다”라는 의미의 한자 “악(惡)”을 사용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눈이 멀게 되어, 좋은 것이 마음이나 생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고집이 세지고 세상적인 욕망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것에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만 집중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대신 세상과 대적의 영향력에 마음을 열기로 선택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성신의 영향력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더디”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⁴

엘마는 엠몬아이하 땅에 있는 백성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거절”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⁵ 그는 또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들, 그들에게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그들이 그의 비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까지 이르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⁶ 결국 주의 영이 물러가고 나면⁷ 주님은 레이맨과 레뮤엘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들에게서 “[그분의] 말[씀]을 제[하실] 것”입니다.⁸ 레이맨과 레뮤엘은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성신의 느낌을 거부했으며, 부친과 니파이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을 선택한 까닭에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맨이나 레뮤엘과 달리 니파이는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영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 대가로 주님은 니파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 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⁹ 주님은 니파이가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도록 도우셨습니다. 니파이는 성신의 끊임없는 동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매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¹⁰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회개는 진보를 위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성약의 길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고통을 즐기다... .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는 기쁨을 오늘부터 경험하십시오. 구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특히 더 사랑하십니다.”¹¹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게 됩니다.¹²

둘째,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매일 회개하면 마음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제 아내 홍성미 자매와 저는 지난 4년 동안 한 훌륭한 부부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었고, 그 아내는 선교사들과 만나 복음을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그녀를 만나 그녀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복음에 관한 생생한 간증이 있으며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방문하는 동안 자주 영을 느꼈고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와드의 훌륭한 회원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침례의 물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모로나이서 7장 43~44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가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느니라.

만일 그러하면 [너]의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라. 이는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



대만

이 구절을 읽은 후,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의 의미를 진작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해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믿음과 소망을 갖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집과 지혜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자신을 낮추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겸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침례받기를 원하신다는 영의 증거를 느꼈습니다.

이 부부는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구주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마음을 부드럽게 한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신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¹³ 마찬가지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참으로 공의롭게 행하도록, 겸손히 견도록 … 인도하는 그 영을 신뢰하라.”¹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시련과 곤경과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입니다.¹⁵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해력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함의 완전한 모범이셨습니다. 니파이후서 3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니라.” 주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셨지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으며 침례를 받음으로써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멸의 생애 마지막에 쓴잔을 마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 고난은 그분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떴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쓴잔을 마시지 않고 물리”설 수 있을지 간청하셨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¹⁶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도록 초대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택에 평화와 기쁨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그들을 모을 것임이라.”¹⁷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물문경 소개.
2. 니파이전서 2:18.
3. 니파이전서 7:8.

4. 니파이전서 17:45.
5. 앨마서 13:4.
6. 앨마서 12:11.
7. 힐라맨서 6:35 참조.
8. 힐라맨서 13:8.
9. 니파이전서 2:16.
10. 제3니파이 9:22.
11. 러셀 엠 넬슨, “영적인 가속도의 힘”, 『리아호나』, 2022년 5월호, 98쪽.
12. 모사이야서 3:19.
13. 니파이후서 4:34.
14. 교리와 성약 11:12.
15. 앨마서 36:3 참조.
16. 교리와 성약 19:18~19.
17. 교리와 성약 10:65.





패트릭 키아론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거룩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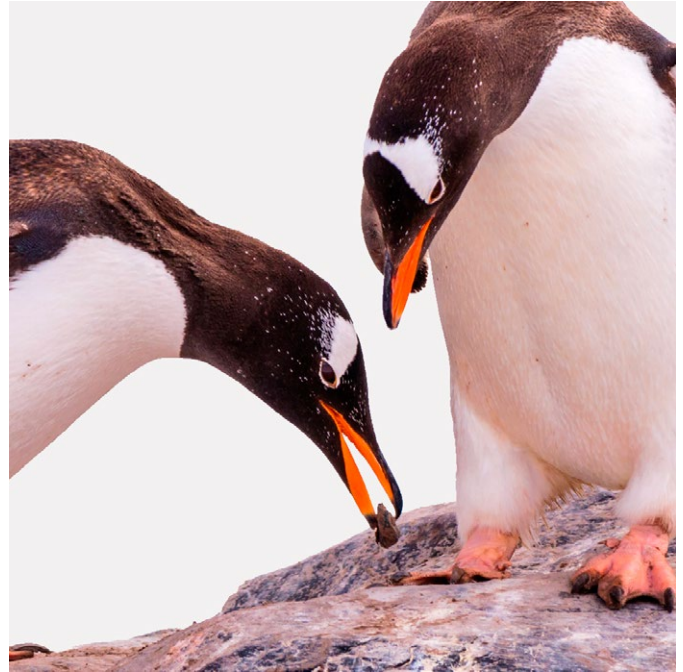
선물을 주는 것은 모든 문화와 문명, 시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관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관계를 강화하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결혼, 생일, 명절과 같은 중요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펭귄은 미래의 짝에게 반짝이는 조약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노보(침팬지와 비슷한 영장류)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서로에게 과일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줄 완벽한 선물을 찾았거나 만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딱 원했던 선물이며 두고두고 아낀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직감적으로 아셨을 겁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에게나 친구, 자녀, 선생님,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줄 선물이었습니까? 그 선물을 찾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선물을 열어 보는 것을 상상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완벽한 선물을 주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선물

제가 일곱 살 때쯤 부모님과 아라비아에 살고 있을 때, 치티치티뱅뱅이라는 어린이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스스로 운전하고, 물 위에 뜰 수 있고, 심지어 하늘을 날 수도 있는 마법의 자동차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저는 고향인 영국에서 치티치티뱅뱅 같은 미니 장난감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자동차의 날개가 펼쳐지는 차였습니다! 아버지는 영국으로 출장을 가시는 길에 원하는 것이 있다고 물어보셨고, 저는 치티치티뱅뱅 자동차가 너무나도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셨지만, 자동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슬펐고 아버지가 깜빡하신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제 생일이 되었는데,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설레었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선물을 풀었는데, 거기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레버를 당기니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자동차처럼 날개가 펴졌습니다! 이 귀한 선물에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사랑하는 어린 양,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안 그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고, 오랜 세월 동안 간직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서 기뻐던 만큼 아버지는 그것을 주시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 받고, 열어 보고, 받아들임

선물을 주는 것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선물을 주는 것은 선물을 고르거나 만들거나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선물을 전하고자 하는 사려 깊은 의도가 담깁니다.
2. 선물을 받고 열어 보는 것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건네받을 때 시작되며, 종종 선물을 열어 보기 전에는 놀라움과 감사, 기대감의 표현이 동반됩니다. 그 후 리본을 풀거나 포장지를 뜯어 그 안에 담긴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순간이 이어집니다.
3. 그다음 단계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준비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받고 열어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삶에서 온전히 사용한 후, 그 선물을 준 사람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포장을 여는 것 이상의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물뿐 아니라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사히 여기며 그 사람과 하나로 연결되는 일이며,

이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결속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저는 그 장난감 자동차를 떠올릴 때면 소중한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그 선물과 그 밖의 수많은 다정한 행동을 통해 전해졌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자녀인 우리 개개인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많은 빛과 진리의 은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¹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²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으로 결속된 관계 속에서, 언제나 그분은 베푸는 분이시고 우리는 겸손히 받는 자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사랑하는 어린 양,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구주께서 겻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기꺼이 바치신 희생과 승리하신 부활의 결과물이고 그것을 통해 생명력을 얻습니다.³ 자비로우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욱 좋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은사인 한 가지 영원한 진리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은사인 한 가지 영원한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 줍니다. 이 필수적인 지식의 은사를 온전히, 그리고 영혼 깊이 받아들일 때, 인생의 기쁨과 고난, 그리고 답을 얻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입니다.⁵ 이 진리는 참으로 놀랍고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⁶

이 진리를 처음으로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실제로 그분이 아끼시는 딸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분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은 그분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입니다. 전지전능한 사랑을 지니신 그분은 여러분이 지상에 오기 전에 누구였으며,⁷ 이 지상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모든 내일을 위해 계획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그분께로 돌아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분과 함께하는 영생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⁸

문제는 이 진리의 은사가 실존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대가는 구주께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진리를 오랫동안 배우고 이야기하고 노래해 왔다면, 그 **놀라운 경이로움**이 사라진 지 오래여서 그 권능과 평안을 더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값진 통찰의 은사와 거기에서 비롯하는 모든 선함과 평안, 희망을 받지 않고,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⁹

저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장엄한 깨달음을 처음으로, 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열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근본적인 진리를 참되고 순수하게 이해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¹⁰

이 장엄한 현실을 영혼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는 위안과 전율을 모두 느낄 때, 우리는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¹¹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주와 성약으로 맺은 결속이 더욱 강해지며, 이 감미로운 은사가 주는 관점을 통해 삶에 새로운 광채와 아름다움과 희망이 생깁니다.¹²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 진리를 영혼 깊이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은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진심으로, 더 기꺼이, 더 풍족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다른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영원한 진리의 은사를 받아들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 은사를 받을 기회를 막지 마십시오. 현실은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은사는 오직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¹³ 그러나 관대하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가 그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해 또는 새로워진 이해가 분명히 임하면서, 이 은사를 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기뻐할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신앙을 찾은 이후로, 저는 제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은사를 마음속으로 온전히 받아들일수록 제가 누구이며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더 뚜렷이 알게 됩니다. 저의 이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경전 말씀과 축복사의 축복, 성전 예배, 타인을 위한 봉사, 감사 표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성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를 진작에 알았다더라면 제가 삶에서 겪었던 슬픔과 고통, 비애가 어떻게 다시 해석되고 위로받고, 많은 부분 극복될 수 있었을지 경이롭기만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와 받으십시오

모로나이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라고 권면합니다.¹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득한 친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고개를 들고 팔을 뻗고 두 손을 벌려 준비하고서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 희망, 빛, 진리, 계시, 지식, 지혜의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러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자 아들이라는



사실,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거룩한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을 구속하고 의롭다 하며 성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¹⁵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노래의 제목이 아닙니다.¹⁶ 부디 그분이 주시는 이 지식과 통찰의 선물을 받고, 열어 보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가까이 두시겠습니까? 이 은사를 다시, 혹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모든 면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은사로써 예비하신 더욱 좋은 길입니다.¹⁷ 여러분이 존재함은 진실로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¹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43:18~20 참조.
2. 야고보서 1:17.
3. 요한복음 3:16 참조.
4. 이디서 12:11.
5. 로마서 8:16; 니파이전서 11:17 참조.
6. 요한복음 3:16~17; 니파이전서 17:36; 제3니파이 14:9~11 참조.
7. 에레미야 1:5 참조.
8. 로마서 6:23; 요한1서 5:7, 11, 14; 제3니파이 9:14; 교리와 성약 14:7; 66:12 참조.
9. 교리와 성약 88:33.
10. 시편 82:6 참조.
11. 러셀 엠 넬슨,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참조.
12.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내리게 될 거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러셀 엠 넬슨, “영원을 위한 선택”[전 세계 청년 성인 영적 모임, 2022년 5월 15일 월요일], 복음 자료실)
13. 니파이후서 2:8 참조.
14. 모로나이서 10:8, 30.
15. 모세서 6:57~62 참조.
16.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참조.
17. 이디서 12:11 참조.
18. 니파이후서 2:25 참조.



미국



벤저민 엠 지 타이 장로
철십인 정원회

하나님의 사랑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증언합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을 여행하던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바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장엄하게 펼쳐진 은하수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따금 별뿔뿔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물을 보고 감탄하였고, 동시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¹ 제 아이들은 홍콩에서 자랐던지라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이는 하늘과 똑같은 하늘이 맞냐는 순진한 질문을 했지요. 저는 똑같은 하늘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과 과도한 인공조명 때문에, 하늘에 별들이 있어도 우리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² 방향감을 잃게 만드는 방해물들과 지상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그분들의 실재성, 그리고 우리를 염려하시는 마음에 대해 명확한 확신을 받게 됩니다.³

몰몬경에서 선지자 리하이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았는데, 그 열매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만큼 먹음직[스럽고]”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맛본 리하이는 영혼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가족들도 열매를 맛보기를 바랐습니다.⁴ 우리는 이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리하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할 때 그분에 대한 기쁜 증거를 받게 됩니다.⁵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었습니다.⁶ 그분은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비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으며, 우리의 고통과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⁷ 그분은 성신을 보내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영의 열매에는 기쁨, 평안, 신앙이 있으며, 그로 인해 소망과 사랑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랑을 간절히 찾아다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프랑스

느끼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⁹ 경전과 주님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반복해서 회개하고, 흔쾌히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려 애쓰고, 이타적으로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¹⁰ 또한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그분과 매일 대화하는 등 그분께 가까워지기 위한 일들을 할 때도, 그리고 교만, 분쟁, 반항을 비롯하여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만둘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¹¹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구주의 도움으로 우리 삶에서 오래된 잔해를 제거”하라고 권유하셨고,¹² “노여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³ 또한 “우리 … 삶의 중심을 [구주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과 성약에 맞춤으로써 영적인 기초를 … 강화”하라고 권해 주셨습니다.¹⁴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전 성약을 지킬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을 풍족하게 경험합니다.”¹⁵

제게는 아름다운 가족과 전도유망한 직업이라는 축복을 받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병에 걸려 일을 계속할 수 없었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몇 년간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의지하며 견뎌 냈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전처가 재혼했다는 사실과, 기존에 받은 성전 인봉의 취소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는 주님의 집에 가서 평안과 이해력을 간구했습니다. 성전에 다녀간

다음날, 친구는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간밤에 성전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 내게는 아무래도 노여운 마음이 꽤 남아 있었지. … 내가 변해야만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지난주 내내 변화를 간구했었지. … 어젯밤 성전에서, 영이 말 그대로 내 마음에서 노여움을 치워 버리시는 것을 느꼈어. 그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서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 … 나를 물리적으로 짓누르던 불행한 짐이 이제는 사라졌어.”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지만, 친구는 주님의 집에서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으로 인해, 친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고, 삶을 더 낙관적으로 보게 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짐을 쉽게 지게 되며 주님의 뜻에 인내를 가지고 즐거이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우리의 역경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속박에서 건져 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¹⁶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게 됩니다.¹⁷ 리하이의 가족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 열매를 취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우려면 겸손, 자애, 연민, 인내를 비롯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따름으로써 구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¹⁸

제 아들 중 하나는 십 대 청소년 시절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도울 방법을 알고자 기도했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장로 정원희 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 제가 아들과 함께 방문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여쭙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몹시 편찮으신 한 자매님을 방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부 회장님의 승인을 받아 매주 성찬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뻐지만, 매주 반복될 이 책임에 대해 제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첫 방문 날, 이 사랑스러운 자매님이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시는 것을 보며 저희도 괴로웠습니다. 자매님은 성찬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사하셨고, 저희는 자매님 부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로 몇 번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타지에 있어 아들과 동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우리의 임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문이 어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반 친구들이 이런 멋진 일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성찬 전달은 무리 없이 집행되었지요. 그런데 그 주에 자매님은 속상한 일이 있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비디오 플레이어에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원인을 찾아냈고, 그 자리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고쳐 드렸습니다. 아들은 자매님의 하루를 밝혀 드리면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 느꼈고, 행복했으며, 신뢰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지요.

만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삶에 먹구름이 끼 있다면, 만일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꼭 명심해 주십시오. 노력은 하나도 빠짐없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이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주의 제자들은 배에 탄 채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구주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구주께 가고자 하였고, 예수께서는 손짓하며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초점을 잃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구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¹⁹

삶에서 역풍이 불어올 때, 기꺼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²⁰ 구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는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²¹ 우리는 기꺼이 신앙을 지니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합니까? 특히 앞에 놓인 길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합니까?²²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을 때 구주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려 주십니까?²³ 어떻게 하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분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²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족히 느끼고 싶으시다면, 다음 권고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대만

- 첫째, 자주 멈춰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감사한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²⁵
- 둘째, 매일 기도하며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려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 셋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여쭙십시오.
- 넷째, 받는 영감에 따라 신속하게 행하십시오.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도하고 구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적절한 때에 우리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이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몇 달 전에 베트남을 여행했습니다. 저희가 탄 비행기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쳤고, 창밖으로는 시커먼 구름과 쏟아붓는 비, 번개가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의 길고도 불안정한 비행 끝에 저희 비행기는 먹구름을 뚫고 올라갔고, 영광스러운 절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떠올렸고, 그분들의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증언합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충실히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동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²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시편 19:1; 이사야 40:26; 엘마서 30:44 참조.
2. 히브리서 11:1.
3. 요한복음 10:14; 고린도전서 8:3; 이터서 12:6, 12 참조.
4. 니파이전서 8:10~12 참조.
5. 니파이전서 11:21~22, 25 참조.
6. 요한복음 3:16; 요한1서 4:9~10 참조.
7. 이사야 53:4~5; 엘마서 7:11~13 참조.
8. 요한복음 14:26; 갈라디아서 5:22~23; 모사이야서 3:19; 모로나이서 8:26 참조.
9. 니파이후서 26:33 참조.
10. 교리와 성약 6:20 참조.
11. 잠언 13:10; 28:25; 야고보서 4:8; 베드로전서 5:5; 니파이후서 12:11; 모사이야서 18:21~22; 교리와 성약 38:27 참조.
12. 러셀 엠 넬슨, “환영 말씀”, 『리아호나』, 2021년 5월호, 7쪽.
13. 러셀 엠 넬슨,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리아호나』, 2023년 5월호, 101쪽.
14. 러셀 엠 넬슨, “성전과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 『리아호나』, 2021년 11월호, 95쪽.
15. 러셀 엠 넬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4년 11월호 121쪽.
16. 모사이야서 24:13~16 참조.
17. 니파이후서 8:12; 이노서 1:8~9; 모사이야서 4:11~12 참조.
18. 마태복음 22:37~40; 요한복음 13:34~35; 요한1서 4:11 참조.
19. 마태복음 14:22~32; 마가복음 6:45~51; 요한복음 6:15~21 참조.
20. 신명기 31:6; 여호수아 1:9 참조.
21. 참조. 이사야 41:10; 누가복음 24:13~35; 히브리서 13:5.
22. 누가복음 1:37 참조.
23. 시편 30:1; 이사야 40:2; 엘마서 145:14 145:14 참조.
24. 교리와 성약 6:36 참조.
25. 시편 46:10; 사도행전 17:29; 엘마서 34:38; 모세서 1:4, 6~7 참조.
26. 시편 40:11; 요한복음 15:4~12; 요한1서 4:16 참조.



러셀 엠 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

하나님의 면전에서 갖는 확신

우리가 삶을 사랑과 덕으로 채우기를 부지런히 구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중요한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큰 가속도가 붙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수많은 영역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충만한 기쁨을 느낍니다.¹

특히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며 영감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을 찾고, 성전에서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젊은 형제 자매들이 선교 사업 지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자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새로 태어난 증손녀를 만났습니다. 이 아기가 살면서 겪게 될 어려움을 숙고하면서, 저는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도록 돕고 싶다는 큰 열망을 느꼈습니다. 이 아기가 미래에 행복하려면 그분의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나 그러하듯 어려움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질병과 낙담과 유혹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역경으로 인해 우리의 자기 확신에멍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른 종류의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 점점 강하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² 하나님의 면전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 지금 바로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 사항을 우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신다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신다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³ 하나님께서 큰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잠재력에 이르도록 도우신다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 사랑이 네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라.”⁴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덕을 지니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진정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 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사랑을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성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분들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때 했던 말을 반복하겠습니다. “분노는 결코 설득하는 힘이 없고, 적대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툼은 절대로 영감받은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⁵

모든 사람을 향한 참된 사랑이야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구분 짓는 특징입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가 하는 대화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전에 드린 권고를 마음에 새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현 시기에 공적인 대화나 소셜 미디어에 드러나는 적개심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증오에 찬 말은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성신이 우리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솔선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본성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 타인을 비하하려는 충동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⁷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진보에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신성한 성품의 기초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더 큰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를, 특히 사랑하기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⁸ 자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⁹ 구주께서는 평양의 왕이십니다.¹⁰ 우리는 평강을 위한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덕으로 우리 생각을 장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든 덕으로 그 생각을 향상한다면, 얼마나 큰 도약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덕은 모든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더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상상을 해 봅시다. 불순한 생각, 잔혹한 생각, 우울한 생각이 들 때 여기에 덕을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덕이 그러한 생각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불안하고 골치 아픈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간악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점점 더 순결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변함없이 유덕해야 하며,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백성이 될 위대한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¹¹

주님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사랑과 덕을 베푸는 역량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확신이 커집니다.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더 잘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지는



증손녀 엘리너와 함께한 러셀 엠 넬슨 회장.

못합니다.¹²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라고 지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두려운 날”을¹³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랑과 덕으로 채우기를 부지런히 구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확신을 키우기 위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행하시기를 권합니다.¹⁴ 그런 후 더 큰 확신을 갖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커질 것입니다.¹⁵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을 넘어서는 영적 권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성전 건축이 가속화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분의 지시를 따라 다음 15개 장소의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 멕시코 레이노사
- 페루 초리요스
- 우루과이 리베라
- 브라질 캄푸그란지
- 포르투갈 포르투
- 나이지리아 우요
- 필리핀 산호세델몬테
- 뉴칼레도니아 누메아
- 오스트레일리아 리버풀
- 아이다호 콜드웰
- 애리조나 플레그스태프



그리스

- 사우스다코타 래피드시티
-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
- 버지니아 노퍽
- 유타 스페니스포크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인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의 기도입니다. 아멘. ■

주

1. 선지자 다니엘이 후기에 대한 꿈에서 보았던 작은 돌이 굴러 나아가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다.(다니엘 2:31~45; 교리와 성약 65:2 참조)
2. 교리와 성약 121:45.
3.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4. 교리와 성약 121:45, 강조체 추가; 또한 46절 참조.
5. 러셀 엠 넬슨,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리아호나』, 2023년 5월호, 98쪽.
6. 타인과 다투기로 선택하는 것은 성신의 인도 없이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교리와 성약 121:45) 사랑을 품어야 한다.
8. 이 말은 “마음의 힘을 다해”(모로나이서 7:48) 기도한다는 의미이다.
9. 모로나이서 7:48 참조.
10. 이사야 9:6 참조.
11.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원리를 소유해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72쪽)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훈계했다.(히브리서 4:16)
12. 마태복음 24:36~37 참조.
 13. 말라기 4:5; 또한 스바냐 1:14~18 참조.
 14. 주님께서는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애,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4:6) 이것들을 기억하면 우리의 확신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4:7 참조)
 15. 우리는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했던 다음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신의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의 평안을 얻으니, ...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의 놀라운 신앙으로 인함이었더라.”(모사이아 4:3)





존 디 에이머스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2020년에 존 디 에이머스 장로는 루이지애나 배턴루지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 부름으로 인해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했지만, 에이머스 장로 부부는 신앙으로 그 임무를 정중하게 받아들였다.

에이머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결정과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저 응할 뿐입니다.”

존 디 에이머스는 1961년 11월 2일에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에서 존 앤 에이머스 일세와 도로시 빅토리안 에이머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대학에서 함께 수강한 수업을 통해 미래의 아내 미셸 에벳 라이트를 만났는데, 둘 다 전기 공학을 전공했다.

이미 교회 회원이었던 미셸은 첫 데이트에서 존을 교회 무도회에 초대했다. 그 후로 그는 교회와 회복된 복음에서 구주께서 하시는 중심적 역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중심이십니다.”

에이머스 장로와 미셸은 1990년 6월 9일에 조지아 애틀랜타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세 자녀와 여섯 손주를 두었다.

에이머스 장로는 전기 및 원자력 공학 학위를 받았다. 직장 생활 중 그는 미 해군에서 복무했고,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 Inc.)에서 근무했으며,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그 이전에는 지역 칠십인(북미 남동 지역),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감독, 감독단 보좌, 와드 주일학교 회장, 와드 집행 서기, 대제사 그룹 지도자, 유아반 지도자로 봉사했다. ■



로널드 엠 바르셀로스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로널드 엠 바르셀로스 장로는 열두 살 때 처음으로 몰몬경을 읽었다. 몰몬경을 다 읽은 후, 그는 와드의 세미나리 교사에게 가서 자신도 세미나리 반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열두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 세미나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과 몰몬경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항상 복음에 대한 사랑을 느꼈고, 그것이 참되다고 느꼈습니다.”

훗날 그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신앙이 굳건해졌고, 삶에서 항상 복음을 우선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늘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하고 성약을 지키면,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 실현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로널드 말도나도 바르셀로스는 1975년 11월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세르히오 바르셀로스 실베이라와 마르시아 말도나도 바르셀로스 실베이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99년 12월 4일에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카린 스팟 알비노 바르셀로스 실베이라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다.

바르셀로스 장로는 상파울루에 있는 상마르크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직업적 경력으로는 여러 회사에서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으며 기업가로도 활약했다. 그는 그린마일(GreenMile, LLC)을 비롯한 몇몇 기업을 공동 설립하여 수년 동안 CEO로 재직했다.

최근에 바르셀로스 장로는 포르투갈 리스본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를 마쳤다. 또한 그는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청남 회장, 감독, 감독단 보좌, 대제사 그룹 지도자, 장로 정원회 회장, 세미나리 교사로도 봉사했다. ■



스티븐 시 발로우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스티븐 시 발로우 장로가 성신과 함께한 가장 가슴 뭉클한 경험 중 하나는 “크리스티나 에번스와 결혼해야 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느낌”이었다. 그들은 1991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발로우 장로 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를 포함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콰도르에서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했다. 그 기간에 집으로 돌아간 선교사들이 많았으며, 발로우 부부의 선교부로 재배정된 선교사들도 있었다. 발로우 장로 부부는 그런 선교 활동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목격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희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때도 있었죠. 저희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주 기도했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예전에 그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는 항상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얻었지만, 이 경험으로 그 교훈이 더 확고해졌다.

발로우 장로는 1993년에 유타 대학교에서 보건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의료 분야의 데이터 분석 및 품질 개선 부문에서 임원으로 일했다. 부름받을 당시, 발로우 장로는 유타 지역에서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스티븐 채드 발로우는 1969년 1월 1일 유타주 바운티풀에서 존 케이 발로우와 베키 크리스텐슨 발로우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헌신적이고 충실한 부모에게서 자랐으며”,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



케빈 지 브라운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케빈 브라운이 열두 살이었을 때, 한 자매 선교사가 그에게 몰몬경을 읽어 보라고 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는 기도하고, 몰몬경을 읽고, 다시 기도하곤 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몰몬경이 참된지 여쭙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기도하던 중에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 질문을 여쭙 필요조차 없었어요. 주님의 응답이 참으로 심오한 방법으로 왔거든요.”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느꼈다. “나는 너를 알고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그 즉시 성신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란다. 몰몬경은 참되고,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란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브라운 장로는 현재의 자신은 그 자매 선교사와 다른 사람들의 영향 덕분이라고 말한다. 어릴 때부터 그는 지방부 회장부터 초등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젊은 선교사들부터 장년 선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도와준 교회 회원들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아내 나딘은 주님을 제외하고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케빈 지 브라운 장로는 1976년 5월 18일에 자메이카 맨체스터에서 데스몬드 홀니스와 팻시 윌리엄스 브리셋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99년에 나딘 레잔 카터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브라운 장로는 2008년에 자메이카 공과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에는 서인도 제도 대학교에서 통치 및 공공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는 교회의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에서 근무해 왔다.

부름받을 당시 브라운 장로는 유타 지역에서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



비 코리 퀴벨리에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비 코리 퀴벨리에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부 회장이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의 동료들은 “제정신이세요?”라고 말했다.

퀴벨리에 장로는 자신이 잘나가던 직장을 3년간 접으려는 이유를 동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의문은 “저희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왜 그런 것을 믿는지, 그리고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브라이언 코리 퀴벨리에에는 1969년 1월 12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에서 입양되어 자랐다. 그의 아버지 하인츠 요아킴 퀴벨리에에는 경찰관이었다. 그의 어머니 조앤 레슬리 자네케 퀴벨리에에는 가사를 도맡았다. 그는 네 자녀 중 맏이이다.

청년 시절에 퀴벨리에 장로는 브라질 상파울루 남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1994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홍보학 학위를 받았다. 1996년에는 셸 오일 컴퍼니(Shell Oil Company)에 입사하여 북미 지역의 다양한 사업부에서 근무했다.

퀴벨리에 장로는 1992년 7월 18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웬디 수 맨워링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아들 넷을 두었다. 퀴벨리에 부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브라질 쿠리치바 남 선교부에서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했으며, 부름받을 당시 텍사스주 케이티에 살고 있었다.

그 이전에는 북미 남서 지역의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감독, 감독단 보좌, 와드 청남 회장으로 봉사했다. ■



마이클 치에슬라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마이클 치에슬라 장로는 2017년에 겪은 시련을 결코 잊지 못한다. 1월의 어느 화요일, 그는 한 국제 법률 회사가 파산 선고를 하면서 직장을 잃었다. 이튿날, 수도관이 터지면서 그의 집은 물바다가 되었다. 사흘째 되던 날, 도둑들이 그의 집을 온통 뒤지며 그 가족의 귀중품을 훔치려고 했다. 며칠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저는 그 일요일에 평소처럼 연단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몹시 슬펐어요. 제 마음은 매우 어두웠죠.”

모임이 끝난 후, 와드의 한 조용하고 점잖은 형제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치에슬라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 형제님은 그저 제 말을 들어 주었고, 그러고는 저를 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감싸 주시고, 제 곤경을 아시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이클 치에슬라는 1972년 7월 26일 독일 노이뮌스터에서 아르민 루트비히와 임트라우트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 자랐고, 이후 유타 옥든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의 아내인 마그렛 앤 라우는 템플스퀘어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들은 1997년 4월 4일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에서 결혼했다. 부름받을 당시 그들은 독일 그리스하임에서 다섯 자녀와 함께 살았으며, 그곳에서 숲속을 거닐고 덴마크의 한 섬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즐겼다.

치에슬라 장로는 2000년에 마인츠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맥더못 윌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에서 기업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유럽 중앙 지역의 지역 칠십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교부의 임시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고등평의원, 감독단 보좌로 봉사했다. ■



제임스 이 에번스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제임스 이 에번스 장로는 캐나다 앨버타주 레스브리지 동쪽에 자리한 반월의 작은 마을에 있는 사탕무 농장에서 자랐다.

충실한 개척자의 후손인 에번스 장로는 “복음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열 살이 되었을 때, 그는 삽화가 들어간 가족 물몬경과 교회 역사 이야기 16권을 모두 읽고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집 건너편에 있는 숲속으로 몰래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고, 조셉 스미스가 참된 선지자이며, 물몬경이 참되다는 성신의 확인을 받았다.

그러한 확신은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유타 오렐 선교부 회장 등 평생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부름받을 당시, 에번스 장로는 레스브리지에 있는 자신의 와드에서 용기반 활동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었다.

제임스 유진 에번스는 1968년 8월 16일에 앨버타주 테이버에서 데일 유진과 필리스 태너 에번스의 여덟 자녀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에번스 장로는 1989년 12월 20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조디 카릴 조벨과 결혼했다. 그들은 다섯 자녀와 열한 명의 손주를 두었다.

에번스 장로는 앨버타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와 치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6년간 개인 치과 의사로 일했다. ■



브릭 브이 에어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브릭 브이 에어 장로는 애리조나 피닉스 선교부의 회장으로 3년 동안 봉사한 경험을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내 수전과 함께 봉사한 것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동반자와 동등하게 멩에를 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란히 봉사했습니다.” 수백 명의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한 경험에 대해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닌 대표자들과 매일 함께 보낸 것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브릭 번 에어는 1964년 1월 17일 유타주 로건에서 번 병엄 에어와 에머 레이 앤더슨 에어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다섯 명의 누나와 교회의 초기 회원이었던 몇 명의 조상이 있다.

에어 장로는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는 1987년 6월 27일에 유타 로건 성전에서 수전 자리 라힘자데와 결혼했다. 에어 자매의 아버지는 무슬림 가문이고 어머니는 후기 성도 가문이다. 부름받을 당시 에어 부부는 유타주 파크시티에 살고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성인이 된 다섯 자녀가 있다.

에어 장로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재무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털사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박스터 인터내셔널(Baxter International)에서 수석 부사장 겸 미주 지역 사장을 역임하는 등 의료 제품 업계에서 근무했다. 가장 최근에는 헤마소스(HemaSource)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부름받을 당시 에어 장로는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감독, 와드 청남 회장, 새벽반 세미나리 교사로도 봉사했다. ■



오자니 파리아스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오자니 파리아스 장로는 청소년 시절부터 어려운 결정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토대로 삼았다. 파리아스 장로는 열다섯 살 때 선교사들을 만난 후로 기도를 했다. 그는 전임 선교 사업, 교육, 결혼, 취업 기회에 관해 기도했다.

그리고 나아갈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분을 먼저 섬겨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큰 축복들을 목격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성신의 속삭임을 따랐기 때문에 결코 잘못된 길로 빠진 적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저는 개인적인 계시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자니 바르보자 마르케스 파리아스는 1969년 10월 19일에 브라질 헤시피에서 호세 오사냥 파리아스와 세베리나 바르보자 마르케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와 그의 아내 지오바나 데 메데이로스 프라타 파리아스는 1994년 1월 18일에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그들은 세 자녀를 두었다.

파리아스 장로는 페르남부쿠 가톨릭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페르남부쿠 대학교에서 재무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툴리오 바르가스 재단(Getulio Vargas Foundation)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교회의 재무 관리자, 인적 자원 관리자 등 여러 직책에서 일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 지역의 실무 책임자로 일했다.

현재 파리아스 장로는 조지아 애틀랜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서기, 고등평의원, 감독, 감독단 보좌, 초등회 교사로도 봉사했다. ■



에런 티 홀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에런 티 홀 장로는 아내 킴벌리와 함께 텍사스 휴스턴 남 선교부의 선교부 지도자로 성별받았던 때를 기억한다. 그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에게 자신들이 큰 부담감부터 들뜬 마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베드나 장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홀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부름이든 우리가 받는 부름과 관련하여 그날 그분이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은 결코 제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은 ‘저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택하셨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저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부름을 수행할 의향과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에런 트레이시 홀은 1971년 3월 4일 유타주 프로보에서 앨런 유진 홀과 폴러 진 노와 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칠레 오소르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 후 1993년 12월 28일에 유타 로건 성전에서 킴벌리 웨이드 홀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네 자녀를 두었다.

부름받을 당시 홀 장로는 유타 지역에서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집행 서기, 감독,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청남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홀 장로는 웨버 주립 대학교에서 전문 영업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유타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전에는 기술 및 사모 펀드 회사의 임원으로 일했으며, 최근에는 교회 선교사부 책임자로 일했다. ■



브라이언 제이 홈즈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브라이언 제이 홈즈 장로는 자신과 아내 매기가 교리와 성약 84편 88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증인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저희를 위해 평생 하신 일이었습니다.”라고 홈즈 장로는 말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칠십인 총관리 역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통해 홈즈 장로는 하늘 아버지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중심적 역할에 대해 간증할 기회를 갖기를 소망한다.

“그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구주이며 구속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브라이언 제이 홈즈는 1977년 12월 5일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마이클 에이치 홈즈와 매리언 알 홈즈의 열두 자녀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청년 시절에 그는 독일 뮌헨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 후 1999년 3월 29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매기 윌슨과 결혼했다. 홈즈 장로 부부는 여섯 자녀를 두었으며, 부름받을 당시 애리조나주 쿼크리크에 살고 있었다.

홈즈 장로는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애리조나에 있는 홈즈 홈스(Holmes Homes)의 부사장으로 일했고, 홈즈 로 피엘시(Holmes Law, PLC)를 설립했으며, 최근에는 차트 원 엘엘시(Charter One, LLC)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북미 남서 지역에서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또한 스테이크 회장, 고등평의원, 감독으로도 봉사했다. ■



페드로 엑스 라레알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페드로 엑스 라레알 장로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지 4개월째에 고든 비 힙클리(1910~2008) 회장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선교부를 방문했다.

라레알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분은 헌납에 관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권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100퍼센트 집중한다면, 미래의 여러분의 가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후에 라레알 장로는 고향에 있는 여자 친구와 헤어지기 위해 편지를 썼다. “나는 더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단에 바쳐야 해.”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그는 좋은 교육과 성공적인 취업을 포함한 많은 축복이 사도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의 지시를 따를 때 우리 삶에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약속드립니다.”

페드로 자비에르 라레알 노게라는 1976년 7월 6일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서 돌리오 안토니오 라레알 로메로와 하이디 마리아 노게라 데 라레알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2001년 8월 25일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에서 새라이아 알바레스 캄포스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다.

라레알 장로는 시몬 로드리게스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산타마리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으며, 네이처스 선사인 프로덕츠에서 총괄 책임자 및 멕시코, 중미 및 도미니카 공화국 지역 책임자로 일했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텍사스 매캘런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두 지역의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집행 서기, 감독으로 봉사했다. ■



클레멘트 엠 마츠와고타타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클레멘트 엠 마츠와고타타 장로는 보츠와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할머니께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 드리곤 했다. 그는 우연히 사무엘상 3장을 읽게 되었는데, 그 장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엔 선지자로 부름받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자연스레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까?’”

그 의문을 계기로 그는 현재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열여섯 살 때 후기 성도 선교사들을 만났고, 며칠 만에 몰몬경을 다 읽었으며, 새벽 3시에 선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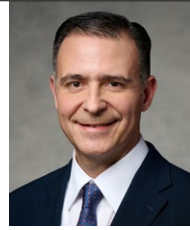
후에 그는 보츠와나에서 부름받은 최초의 스테이크 회장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최초의 지역 칠십인이 되었으며, 이제는 최초의 칠십인 총관리 역원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마음 깊이 뿌리내린 간증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과, 우리는 선지자가 지상에 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레멘트 모시아메 마츠와고타타는 1980년 1월 8일에 보츠와나 미들피츠에서 보요틀레 제이 마츠와고타타와 레이첼 엠 마츠와고타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선교부에서 봉사한 그는 지역 청년 독신 성인 대회에서 아내인 노벨티 부시시웨 부틀레지를 만났다. 그들은 2004년 2월 28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다.

그는 철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여러 브랜드의 자동차 업계에서 종사했으며 발로월드 모터(Barloworld Motor)의 영업 관리자, 총괄 관리자 및 국가 관리자 등 여러 관리 직책을 역임했다.

이 부름을 받을 당시, 마츠와고타타 장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성전의 의식 봉사자이자 지역 자립 전문가로 봉사하고 있었다. ■



에두아르도 에프 오르테가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에두아르도 에프 오르테가 장로는 수년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감독이든 형제 성역자이든 어떤 부름을 받든, 우리가 주님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 부름이 쉬워진다는 교훈이다.

그는 몰몬경의 야곱서 5장 71~72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분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 생각한다면 그 일이 쉬워집니다. 저는 여러 부름에서 주님이 제 곁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포도원이 아니라 그분의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에두아르도 프란시소 오르테가는 1977년 7월 10일 아르헨티나 멘도사 고도이크루스에서 페르난도 다니엘 오르테가와 이르마 엘비라 앤드스토퍼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2002년 9월 13일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성전에서 가브리엘라 알레한드라 카피 프란치아와 결혼했다. 그들은 다섯 자녀를 두었으며, 부름받을 당시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살고 있었다.

오르테가 장로는 2008년에 아르헨티나 존 에프 케네디 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6년에 벨그라노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7년에는 하버드 경영 대학원에서 리더십 수료증을 받았다. 그는 에스비에이 컴퍼니(SBA Company)와 빌리지 로드쇼 엔터테인먼트 그룹(Village Roadshow Entertainment Group)의 아르헨티나 지사에서 건설 공사 관리자로 일했다. 2014년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American Express Company)의 부동산 이사가 되었고, 2025년에 아치 로얄 프로젝트스 리미티드(Arch Royale Projects Limited)의 이사회 임원이 되었으며, 2025년에는 코넷 글로벌(CorNet Global)의 이사회 임원이 되었다.

부름받을 당시, 오르테가 장로는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감독, 감독단 보좌, 장로 정원회 회장, 대제사 그룹 지도자, 콜롬비아 칼리 선교부의 전임 선교사로도 봉사했다. ■



에드워드 비 로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에드워드 비 로 장로는 국제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에 이따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유일한 교회 회원인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 그들은 『와서 나를 따르라』 교육 과정이 도입되기 수년 전에 가정에서 승인된 교회 예배를 보았다. 그들의 예배는 안식일 복장과 말씀 임무를 완전히 갖춘 가정 중심의 예배였다.

로 장로는 “저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은 저희가 주는 가르침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자녀들이 구주와 관계를 맺도록 돕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 가족이 단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화할 수 있었다. “성스럽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에드워드 버틀러 로는 1967년 4월 23일에 유타주 프로보에서 프레드 에이 로와 세릴 로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89년 1월 3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브룩 프랜시스와 결혼했다. 그들은 다섯 자녀를 두었으며, 부름받을 당시 유타주 플레전트그로브에 살고 있었다.

로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철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시카고 대학교에서 공공 정책 석사 학위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워싱턴 디시 및 전 세계의 여러 법률 회사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제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19년부터는 스티어링 재단(Stirling Foundation)의 CEO로 일했다.

부름받을 당시, 그는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아드리안 북 선교부 회장(2011~2014), 감독, 스테이크 청남 회장,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선교 지도자,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선교부의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



완랑 우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완랑 우 장로는 열 살 때 가족과 함께 대만에서 볼리비아로 이민을 갔다. 그곳에서 그의 누나들은 친구들을 통해 선교사들을 만났다. 그는 선교사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열한 살에 침례를 받았다.

새로운 집에서 적응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가족이 이주한 것에 감사해한다. “저는 주님의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잃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완랑 우는 1970년 12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창용 우와 바오구이 린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에게는 세 명의 누나와 한 명의 형이 있다.

그의 가족은 볼리비아 산타크루스로 이민한 후, 그가 열네 살이었을 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했다. 그는 중국 홍콩 선교부에서 봉사한 후, 1995년 3월 17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서 마르셀라 베아트리스 카스텔라니와 결혼했다. 그들은 세 자녀를 두었다.

그와 마르셀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르셀라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소유 및 관리했다. 2007년부터는 교회를 위해 일했는데, 처음에는 집회소 시설부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에는 남미 남 지역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책임자로 일했다.

우 장로는 2014년에 아르헨티나 기업 대학교(Universidad Argentina de la Empresa)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2020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소재한 CEMA 대학교(Universidad del CEMA)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부름받을 당시, 우 장로는 칠레 안토파가스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감독,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서기, 장로 정원회 회장단 보좌, 성전 의식 봉사자로도 봉사했다. ■



티머시 엘 파른스 회장

본부 청남 회장

티머시 엘 파른스 회장이 열네 살이었을 때, 다른 종교를 믿는 한 친구가 그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청소년기에 티머시는 처음으로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되다는 간증을 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곳에 영이 가득했습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 둘 다 그걸 느꼈고, 우리 둘 다 변했습니다.”

파른스 회장은 교회의 청소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약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즉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된 은사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티머시 로웰 파른스는 1969년 6월 29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게리 윌리엄 파른스와 메리 앨런 파른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유타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성장했다. 그는 일곱 자녀 중 맏이이다.

파른스 회장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후에 메드소스 디렉트(MedSource Direct), 어스파이어(Aspire), 인도주의 비영리 단체인 월드 조이(World Joy)를 포함한 여러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1992년 8월 27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린지 앤 파른스와 결혼했다. 그들은 다섯 자녀와 여섯 손주를 두었으며, 유타주 바운티풀에 살고 있다.

파른스 회장 부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북 선교부에서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했다. 그 이전에는 유타 지역의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고등평의원, 감독, 청년 독신 성인 감독 등의 부름에서 봉사했다. ■



데이비드 제이 윈덜리 형제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

데이비드 제이 윈덜리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매우 오래 전부터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성적으로 신앙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분에게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윈덜리 형제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모든 나라에 또래의 교회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

데이비드 존 윈덜리는 1961년 6월 22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프레드릭 시어도어 윈덜리와 버나딘 라이먼 윈덜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캐나다에서 자신의 와드로 이사 온 다이앤 로빈스를 만났다. 그들은 1984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으며 캘리포니아와 유타주 알파인에서 네 자녀를 키웠다.

윈덜리 형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유타 대학교에서 회계학 전공과 포르투갈어 부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스턴 스포츠(Easton Sports)의 임원과 오지아이오 인터내셔널(OGIO International)의 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몇몇 기업 이사회와 자선 이사회에서 활동했다.

부름받을 당시 그는 본부 청남 자문 평의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윈덜리 자매는 본부 초등회 자문 평의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선교부의 지도자로 봉사했다. 또한 윈덜리 형제는 청년 독신 성인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 선교사 훈련원 지부 회장단 보좌, 와드 청남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



손 알 디슨 형제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손 알 디슨 형제는 앞다투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려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청소년들이 현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르기를 바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들은 청소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선지자[러셀 엠 넬슨 회장님]가 아니라, 구주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구주를 향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들이 구주를 따른다면 삶에서 직면하게 될 일들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 롬니 디슨은 1970년 5월 5일에 유타주 프로보에서 도널드 롬니 디슨과 다이앤 스콧 디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이후 1992년 5월 14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므셀 런던퀴스트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디슨 형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가족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피닉스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30년 동안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으며, 현재는 오렘에서 세인트조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교 교육원을 감독하는 유타 남 종교 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유타 카운티에서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했으며 유타 밸리 종교 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부름받을 당시 디슨 형제는 유타 스페니시포크 동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감독, 감독단 보좌, 와드 청남 회장으로 봉사했다. ■

2024년 통계 보고

제일회장단은 교회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회의 성장 및 현황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3,608
선교부	450
지방부	494
와드 및 지부	31,676
교회 회원	
총 회원 수	17,509,781
2024년에 태어난 기록상의 새로운 자녀	91,617
2024년에 침례받은 개종자	308,682
선교사	
전임 토론 선교사	74,127
장년 교회 봉사 선교사	31,120
청년 교회 봉사 선교사	4,192
성전	
운영 중인 성전	194
건축 또는 보수 중인 성전	59
추가로 발표된 성전	114

더 많은 성전 소식

2024년에 헌납된 성전: 페루 리마 로스올리보스, 유타 오렘, 유타 레드클리프스, 필리핀 우르다네타, 멕시코 푸에블라, 유타 테일러즈빌, 과테말라 코반, 아르헨티나 살타, 유타 레이턴,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아르헨티나 멘도사,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브라질 사우바도르, 유타 데저렛 피크, 와이오밍 캐스퍼, 플로리다 텔러해시.

보수 또는 재건축 중인 성전: 솔트레이크, 스웨덴 스톡홀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유타 프로보 록캐니언, 뉴욕 맨해튼, 플로리다 올랜도, 하와이 코나, 온타리오 토론토.

무대 뒤에서: 통역 및 대회 참석자 서비스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주말에 연차 대회에 참석하는 기쁨을 누린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와 교회 직원들이 수개월에 걸쳐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그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방송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를 살펴보자.

통역 서비스

전 세계 143개 언어 팀들이 실시간으로 연차 대회 말씀을 통역한다. 따라서 회원들은 바로바로 자신의 모국어로 연차 대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중 57개 팀만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에서 통역을 한다.

통역은 글로 작성된 말씀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번역과는 다르다. 통역의 경우, 언어 팀은 마지막 순간에 변경된 것과 연단에서 즉석으로 언급된 말도 통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통역자들은 전 세계 회원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교리와 성약 90:11 참조)

대회 참석자 서비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연차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면, 좌석을 안내해 주는 안내원들을 보았을 것이다. 템플 스퀘어에 있는 약 400명의 선교사들은 연차 대회 기간에 약 9,000시간을 자원봉사하며 대회 참석자들이 컨퍼런스 센터를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은 매 연차 대회 모임에 참석하는 20,000명의 사람들을 안내한다. 일단 한 모임이 끝나면, 그들은 참석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다음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로를 청소한다. ■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동영상 코드를
스캔한다.
(영어로 이용 가능)



연차 대회 기간 동안, 통역
팀은 실시간으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연사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연차 대회 메시지를 가르치고 배우고 적용하기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구원 및 승영 사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일요일 모임에서 그들은 최근 연차 대회 말씀에서 얻은 가르침을 이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회원들의 필요 사항과 영의 인도에 근거하여 매주 일요일 모임 시간에 다룰 연차 대회 말씀을 선정한다. 때에 따라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토론할 말씀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 전한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토론 주제로 선정할 수 있다.

교사들은 회원들이 연차 대회 말씀에 담긴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지도자와 교사들은 회원들이 선정된 말씀을 미리 공부하도록 격려할 방법을 찾는다.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8.2.1.2, 9.2.1.2, 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가르칠 준비를 함

다음 질문은 교사가 연차 대회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필요에 따라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협의한다.

-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왜 이 말씀을 토론 주제로 선정했는가? 회원들이 이 말씀을 토론한 후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를 바라는가?
- 연사는 회원들이 무엇을 이해하기를 바라는가? 연사는 어떤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러한 원리들은 내가 속한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연사는 자신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경전 구절을 인용했는가? 회원들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읽을 만한 다른 경전 구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 구절은 말씀의 미주나 경전 안내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 회원들이 말씀에 담긴 가르침을 더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회원들이 그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주님의 일과 이 가르침의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 모임에 영을 초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토론이 더 훌륭히 이루어지도록 이야기나 비유, 음악 및 예술 작품을 포함하여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회원들이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연사는 어떻게 했는가?
- 연사가 권유한 것이 있는가? 회원들이 이러한 권유에 따라 행동하려는 소망을 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활동 아이디어

회원들이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배움을 얻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교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다음은 몇 가지 예시이다. 교사에게는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



- **우리의 삶에 진리를 적용한다.** 회원들에게 대회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개인으로서나 장로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도록 권유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역자로서, 부모로서, 회원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어떤 가르침을 얻는가?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그룹별로 토론한다.** 회원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그룹별로 연차 대회 말씀의 각기 다른 부분을 배정해 준 뒤 읽고 토론하게 한다. 그런 다음 그룹별로 그들이 찾은 진리 한 가지와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발표하게 한다. 또는 말씀의 각기 다른 부분을 공부한 회원들로 그룹을 구성하여 자신이 찾은 것을 서로 나누게 할 수도 있다.
-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회원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보라고 한다. 이 말씀에서 어떤 복음 진리를 찾았는가?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떠한 권유와 약속된 축복이 주어졌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또는 회원들이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거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적용하도록 권유할 만한 질문들을 직접 만들어 본다. 회원들에게 질문 하나를 고르게 한 후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게 한다.
- **말씀 인용문을 나눈다.** 회원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 중 구원 사업에서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도록 영감을 준 인용문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 성역 대상자를 포함하여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이 인용문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격려한다.
- **실물 공과를 한다.** 몇몇 회원에게 연차 대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미리 부탁한다. 모임 중에 그 물건들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말씀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 **가정에서 가르칠 공과를 준비한다.** 회원들에게 짝을 지어 연차 대회 말씀을 기초로 가정의 밤 공과를 계획해 보라고 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을 우리 가족과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성역 대상자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 **경험을 이야기한다.** 연차 대회 말씀 내용 중 몇 구절을 함께 읽는다. 회원들에게 그 구절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설명하거나 강화해 주는 예를 경전 혹은 그들의 삶에서 찾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 **구절을 찾는다.** 회원들에게 대회 말씀을 훑어보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구절을 찾아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찾은 구절과 그 구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해 보게 한다. 이 가르침은 그들이 주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해 달라고 한다.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방법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제언”을 참조한다. (복음 자료실의 “연차 대회”에서 “학습 제언”을 클릭한다.)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머링
심이사도 정원화: 제프리 알 홀런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게릿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패트릭 키아론
편집자: 로버트 엠 데인즈
부편집자: 최윤희
고문: 데이비드 피 호머, 외르크 클레빈가트, 가브리엘 더블유 리드, 크리스틴 엠 이

관리 책임자: 제이슨 제이 미첼
교회 잡지 책임자: 애덤 시 울슨
출판 팀 관리자: 리 기븐스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코디네이터: 달린 보스, 클라크 마일즈

편집장: 마틴 배런
편집장 보조: 브리드니 비티, 라이언 카, 시 매슈 플리턴, 민디 셸루, 디비 트로스티
출판 보조: 낸시 서튼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게릿 에이치 가프, 차켈 위들레이 허버트, 마이클 알 모리스, 엘리스 알 우드
편집 인턴: 베카 브라보, 조이 디드, 트렌트 호턴

미술 책임자: 마이클 던퍼드
디자인: 아이라 글렌 어데어, 페이 피 앤드라스, 줄리 버넷, 데이비드 그린,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콜린 힝클리, 스티븐 넬슨
디자인 인턴: 카일리 보달리

제작 관리자: 암몬 해리스
제작 팀: 에일라 조 블랜처드, 베일리 에스카밀라, 에바니 페이스, 데릭 워시번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곤잘레스
통권: 제710호, 제62권, 제5호
최초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재등록: 2021년 11월 3일, 서초-라11806호
발행일: 2025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안덕현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0 정곡빌딩 남관 205호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준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르비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빈도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2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개인이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개인적, 비상업적인 용도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시각 자료는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5,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구독 상담 서비스: 1-800-537-5971.**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에카도르

연사 색인

게리 이스티븐슨, 56
 게릿 더블유 공, 97
 김현수, 118
 닐 엘 앤더슨, 30
 달린 에이치 옥스, 4, 10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82
 데일 지 랜런드, 4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75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51
 러셀 엠 넬슨, 127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13
 리카르도 피 히메네스, 21
 마이클 비 스트롱, 111
 벤저민 엠 지 타이, 124
 산디노 로만, 40
 세르히오 알 바르가스, 68
 스코트 디 와이팅, 115
 스티븐 디 섬웨이, 86
 스티븐 제이 란드, 34
 에스 마크 파머, 37
 에이미티 에이 라이트, 60
 올리세스 소아레스, 108
 재러드 비 라슨, 6
 제럴드 코세, 94
 제임스 알 래스벤드, 64
 제프리 알 홀런드, 7
 존 에이 맥쿨, 101
 카밀 엔 존슨, 9
 쿠엔틴 엘 쿡, 17
 태머라 더블유 루니아, 90
 패트릭 키아론, 121
 한스 티 보움, 48
 헨리 비 아이머링, 24

주제 색인

가족, 30, 48
 간증, 48
 감사, 75
 개심, 9
 개인의 가치, 90
 개척자, 17
 겸손, 7, 118
 경건, 108
 경륜의 시대, 82
 계명, 104
 교육, 13
 교회 부름, 86
 교회 성장, 13
 구원의 계획, 64, 104, 121
 균형, 13
 그리스도의 빛, 56, 104
 기도, 40, 124
 기쁨, 90, 101, 108
 낙태, 30
 단합, 51
 덕, 127
 두려움, 43
 목표, 21
 물문경, 64, 82, 118
 봉사, 24, 34, 43, 86, 94, 124
 부모, 48
 부활, 24, 56, 97
 부활절, 56, 97
 비유, 43
 사랑, 21, 24, 30, 40, 51, 90, 101, 111, 121, 124
 선교사 봉사, 13, 48
 선택의지, 104
 성신, 104, 118
 성약, 21, 24, 60, 101, 104
 성역, 111
 성전 사업, 94
 성전, 13, 17, 64, 127
 성찬, 7, 34
 소망, 9, 40, 90
 소속감, 51
 속죄, 17, 97, 104, 115
 순수함, 7
 순종, 90
 신권 권세, 34, 82
 신권 열쇠, 82

신뢰, 40, 118
 신성한 본질, 68, 121
 신앙, 9, 37, 40, 48, 51, 60, 124
 아담과 이브, 115
 아론 신권, 34
 안식일, 75
 역경, 17, 40, 48, 94
 연민, 111
 영생, 68
 영적인 성장, 108
 예배, 75
 예수 그리스도, 7, 9, 13, 17, 21, 24, 37, 40, 43, 56, 60, 68, 75, 90, 97, 101, 104, 111, 118, 121, 124
 용서, 64, 90
 우정, 24
 유혹, 115
 은사, 121
 의식, 104
 인내, 48, 68
 자녀, 7, 30, 60
 자비, 64
 자신감, 127
 자애, 111, 127
 재림, 43, 86, 127
 전통, 21
 정신 건강, 9
 제자 행, 24, 51, 60, 101, 108, 111
 조셉 스미스, 82
 죄, 115
 준비, 43, 86
 첫번째 시험, 82
 청소년, 34, 127
 축복, 94
 충성심, 40
 치유, 9, 37
 친절, 24
 평안, 121
 하나님 아버지, 75, 101, 121, 124
 화평케 하기, 127
 활동 촉진, 37
 회개, 30, 37, 90, 115, 118
 회복, 82, 97
 희생, 48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태복음 18:4]
자매 형제 그리고 친구 여러분,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으뜸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실하며 고귀한 아기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이 지상에서 반영하는 하나님 왕국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 주는 모습임을 간증드립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회장, “어린아이와 같이”



러셀 엠 넬슨 회장은 교회의 제195차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 **지금 바로**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 사항을 우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신다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신다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잠재력에 이르도록 도우신다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